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64777

2015년 2월

박사학위 논문

이집트의 콥트 문화에 대한 연구

- 콥트의 역사, 언어 및 전망을 중심으로 -

조선대학교 대학원

지역문화학과

김 경 옥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집트의 콥트 문화에 대한 연구

- 콥트의 역사, 언어 및 전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ptic Culture in Egypt

2015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지역문화학과

김 경 옥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집트의 콥트 문화에 대한 연구

- 콥트의 역사, 언어 및 전망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송 경 근

이 논문을 문학 박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지역문화학과
김 경 옥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김경옥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 수	김 원 필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 수	이 승 권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 수	송 경 근 (인)
위 원	서울장로신학대학교	부교수	최 영 철 (인)
위 원	단국대학교	전임연구원	남 옥 정 (인)

2014 년 12 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목 차

표 목차 iv
ABSTRACT v

제1장 서 론 1

제2장 이집트 기독교도 콥트의 성장과 콥트어 5
제1절 지중해 문화권에 속한 이집트의 역사 5
1. 고대 이집트 시대 : 파라오 왕조 시대 5
가. 유대인 유입
나. 고대 이집트어
2. 그리스· 로마 · 비잔틴 시대 8
가. 프톨레마이오스왕조 시대 : 그리스 마케도니아 시대
나. 로마제국 시대
다. 비잔틴제국 시대
제2절 콥트의 두 기둥 : 콥트교회와 수도원 제도 12
1. 콥트교회와 콥트교황 13
가. 콥트교회
나. 콥트교회와 교황의 활약
2. 수도원 설립과 수도원 제도 22
가. 세계 최초의 수도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나. 수도원 제도
제3절 콥트어 생성과 활용 25
1. 콥트어의 생성 26
2. 콥트어의 활용 27

제3장 이슬람 사회 속의 이집트 콥트 32
제1절 콥트의 이슬람 사회 적응 시도 32
제2절 이슬람 제국의 시작 35
1. 무함마드와 이슬람 공동체, 움마 35
2. 코란의 가르침 37
제3절 콥트와 이슬람 신앙의 정체성 비교 39
제4절 이슬람 지배 왕조 속의 콥트의 언어 45
1. 이슬람 왕조와 콥트의 언어 45
2. 아랍어의 세계화와 콥트의 언어 48
제5절 콥트의 다수가 무슬림으로 51
1. 십자군 전쟁의 영향 52
2. 무슬림의 세계와 소수의 콥트 54
3. 쿠쉐, 테러마을을 평화마을로 58
4. 크리스마스를 이집트 국경일로 61

제4장 콥트 공동체의 상황과 전망 64
제1절 콥트 공동체의 변화 64
1. 제115대 교황과 콥트의 삼두정치, 그리고 제116대 교황 65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제117대 쉐누다 교황의 업적과 콥트의 해외이주 시작 67
3. 제118대 타와드로스 교황과 정권교체 71
제2절 현재의 콥트의 언어와 상황 73
1. 이집트 아랍어 방언 74
2. 콥트의 신앙생활과 최근의 상황 및 전망 75
가. 콥트교회와 수도원에서
나. 해외의 콥트교회에서
다. 21세기, 콥트와 콥트어에 대한 기대

제5장 결 론 81

참고 문헌 86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목차

도표1. 고대 이집트 - 콥트교회 교황 30
도표2. 유대교, 콥트 기독교, 이슬람 39
도표3. 이집트의 콥트 교황 44
도표4. 콥트의 수도생활 일과표 76

d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BSTRACT

A Study on the Coptic Culture in Egypt

- Focused on the Coptic History, Languages and Perspective -

Kim Kyoung Ok
Advisor : Prof. Song Kyung-Keun, Ph.D.
Department of Local Culture Studies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Mediterranean Sea connected various cultures throughout West Asia, North Africa, and Southern Europe during the Greco-Roman Empire era. Egypt played a central role in Mediterranean Sea culture. It is located in the center of world trade, transportation between East and West, tourism and academia. The majority of Christian Egyptians have lived near the banks of the Nile River since the first centu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how Copts have used the Coptic language during the Greco-Roman Empire era, what role the Coptic language played for Copts in Arabic Islam societies historically, and what the prospects for Copts and the Coptic language will be in the 21st century.

Coptic ancestors in pursuit of the resurrection built pyramids. Old Egyptians had close relationships with Jews. Moses who was born and grown up in Egypt wrote the pentateuch of the old testament. And in the Bible, Isaiah's prophecy that Copts accepted is written about the two pillars in Egypt as the symbols of churches and monasteries. Since the first century, Coptic popes have been elected by Copts for Coptic community from generations to generations. Bishop Tawadros was chosen as the 118th Pope of the Coptic Orthodox Church in 2012.

Copts are the people who have an excellent ability to speak fluently in their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own language Egyptian Hieroglyphics from their ancestors and Greek. The English name Egypt is derived from the ancient Greek Aigyptos. They made 31 Coptic letters added together with 24 Greek alphabets and 7 Hieroglyphics for expressing fully their ideas in their religious life. In 1822 Champollion, a French, figured out the meaning of Hieroglyphics how to read and understand on the Rosetta Stone which was written on a royal decree from 196 B.C..

The Egyptian Christians are referred to as Copts and use the Coptic language for their religion and social life. Their language and culture reflect their forward-looking, creative, and flourishing spirit during the Roman and Byzantine Empire eras. They were bilingual people who fluently spoke and wrote the Greek and Coptic languages. They were the first to translate Mark's Gospel from Greek to Coptic and also translated the Old and New Testaments.

Islam arrived in the 7th century and Egypt emerged as a center of politics and culture in the Muslim world. Copts have been bilingual enough to communicate amongst themselves in the Coptic language and with Muslims in the Arabic language. The Coptic language remained the language of the land, but the Arabic language became the formal and official language of social life. Even now, the Coptic language continues to be the liturgical language in the Coptic Churches. Yet Copts have to speak Arabic in daily life. Copts living with muslims created the Egyptian speaking Arabic language just like making Coptic language from Greek with Hieroglyphics. They have been bilingual people in Islam world as well as Greco-Roman Empire era.

Arabic along with Chinese,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is one of the six official languages in the United Nations. Arabic is only spoken in the Arab world. However, there are two languages that co-existed with Modern Standard Arabic and spoken Arabic. The most popular spoken language in the Arab world is Egyptian Arabic, because Egypt is the leading country among Arab countries in culture.

The Coptic language is the main symbol for the Coptic religious life in their community. Although Coptic Christians speak Arabic with each other to express their opinions, feelings and culture, they also want the Coptic language more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involved in formal education programs.

Until the Fatima dynasty, there were many more Copts than Muslims in Egypt. However, The population of Muslims had increased during the several Crusades. Tens of thousands of Copts were converted Islam. Coptic Christianity became the ethnic minority at about 10% of the population. It was very important for the Coptic community to keep surviving within Islamic society as Christians, attending churches in peace. That's why they thought the Pope's leadership was so important for their future generations. For example, when they found that the 115th Pope was indecisive, they sent him to a monastery. They elected three bishops to perform the Pope's role as a triumvirate. Another example is when some terrorists made a sudden attack on al-Kusheh village in 2000. Owing to the act of terror, many Coptic Christians were killed, and much of their properties were damaged. Despite this tragic outbreak of violence, the village community wanted to live in peace with their neighboring Muslims and agreed to call their village 'Village of Peace'. The Mubarak government issued a decree that declared January 7, Coptic Christmas, a national holiday in Egypt (al-Ahram Weekly 2003).

There are many documents such as St. Mark's gospel and Nag Hammadi Library written in Coptic language in museums, Coptic churches, and religious houses in Egypt. However, some Copts are moving to live in foreign countries especially America or Canada to avoid the Arab terrorists attacked. They have built new Coptic churches in settled areas and teach their children the Coptic language there. America and Canada are belonging to Pacific culture areas as well as Transatlantic culture areas. In East Asia of Pacific culture areas, there are also some countries where christian people are living. Christians want to know more about the Coptic documents regarding the early christians' records and want them to be translated into their own languages from Coptic language. Therefore more researches are required to further understand about Copts and Coptic language of Coptic culture in Coptic societies.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1장 서 론

이집트[1]는 세계에서 가장 오랜 문명과 문화를 가진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 이집트는 리비아, 수단, 이스라엘, 요르단과 접경하고 있으며, 동쪽으로 인도양과 연결되는 홍해가 있고, 북쪽으로 지중해와 연결되는 세계에서 제일 긴 나일 강(the Nile River)[2]이 흐르고 있다. 나일 강은 이집트인의 삶의 터전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이집트인은 농공상인이다. 홍수와 범람으로 풍요로운 농산물이 생산되어 일찍부터 농경사회를 이룰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 곳, 충분히 자급자족이 가능한 비옥한 땅이 있는 곳, 나일 강 유역은 중동의 곡창지대였다. 건조한 사막성 기후로 인하여 아라비아 반도에 기근이 들 때마다 고대 이집트[3] 시대부터 이웃나라 민족들이 나일 강 유역으로 유입되였다. 자연히 해안선을 따라 육로와 뱃길의 교통이 발달되었고, 동·서양의 문물이 교환되는 상업의 중심지로 발전되었다. 지중해 건너편의 유럽 상인들도 빈번히 모여드는 곳이었다.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한 알렉산드리아의 파로스섬에는 세계 최초의 등대가 설치되었다.

세계에서 최초의 도서관이 기원전 284년에 문화 권력의 상징으로 떠오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초대 왕인 프톨레마이오스 1세에 의하여 알렉산드리아에 건립되었다. 또한 알렉산드리아에는 190년경에 판타나우스(Pantanaeus)에 의하여 세계 최초로 기독교 교육기관인 무제이온(Mouseion)이 세워졌다. 이 신학교에서는 아테나고라스(Athenagoras), 클레멘트(Clement), 오리겐(Origen)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들을 배출시켜 학문 연구의 기반을 다졌다. 이 학교에서는 신학 이외에도 과학, 수학, 인문학을 가르쳤고, 이로 인해서 많은 인재들이 찾아오는 학문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러나

---

1) 이집트(Egypt)라는 호칭의 유래 : 고대 이집트의 수도인 멤피스를 "히크프타하(프타하 신의 집,The House of the Spirit of Ptah' (Ha-ku-Ptah))"이라고 불렀다. BC 7세기부터 이집트에 이주 정착한 그리스인은 이것을 "아이깁토스(Aigyptos)"라고 그리스화 하여, 이 호칭으로 전 이집트를 가리켰다. (학원세계대백과사전 V.29 1993, 55)(송경근 2013, 4)

2) 이집트 영토 면적의 대부분인 95%가 사하라 사막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적도 지방의 빅토리아 호수에서 발원한 나일 강의 길이는 6,690㎞로 나일 강 유역의 비옥한 면적이 약 3,000,000㎢에 이른다.

3) 고대 이집트는 BC 2925년경에 메네스 왕에 의해 상이집트와 하이집트가 통일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통일로 인해 파라오 왕국의 문명은 절정기에 들어섰고, 이후 약 3,000년 동안 토착 이집트 이집트인들이 계속해서 지배자의 위치를 이어왔다. 31개 왕조에 걸쳐 BC 332년까지, 즉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의 침입을 받기 전까지 계속된 이집트의 고대사를 고왕국 · 중왕국 · 신왕국으로 구분하면, 피라미드는 고왕국의 유산이며, 오시리스 숭배와 조각의 세련미는 중왕국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제국시대와 유대인의 출애굽은 신왕국에 속한다고 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호사다마(好事多魔)라는 속담이 있듯이 계속되는 외침으로 인하여 이민족의 지배를 받는 아픔을 겪게 되었다. 이집트는 그리스(BC 332 - BC 30)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로마제국(BC 30 - AD 395)시대에는 이집트 전역에 기독교가 전파되어 이집트인들의 문화와 종교, 그리고 지적 흐름에 큰 영향을 주었다. 당시의 기독교는 이집트인의 정체성과 사명을 확고히 깨닫게 하는데 기여하였다. 비잔틴제국(AD 395 - 641)의 지배를 받는 시대에는 이집트 전역에 기독교문화가 뿌리 깊게 형성되었다.

7세기 초에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슬람이 성립된 후, 이를 받아들인 아랍군은 지중해 문화권에 소속된 서아시아와 이집트를 시작으로 북아프리카의 나라들을 정복하여 이슬람제국을 형성하였다. 이런 아랍의 침입 물결 속에서 알렉산드리아가 642년에 점령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이집트 기독교도들은 전부 이슬람으로 개종하지는 않았다. 21세기에도 이집트 전체 인구의 1/6 내지 1/10에 해당하는 약 7-8백만 명이 그대로 기독교도로 남아서 기독교도의 자긍심을 지키고 있다(Cragg 1992, 170). 1977년에 그들 공동체의 117번째 정신적 지도자인 교황 쉐누다(Shenouda) 3세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여 카터 대통령을 만남으로써 그들의 존재가 국제적인 이슈로 떠올랐었다(이원삼 1997, 191). 이 일을 계기로, 이집트 기독교도들의 해외 이주, 특히 미국으로의 이민이 증가하였다.

콥트(Copts)라는 명칭은 7세기에 아랍인들이 이집트 땅을 점령한 후에 그 곳에서 살고 있는 기독교도들을 콥트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이집트 역사 속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콥트가 사용하는 언어를 콥트어(Coptic language)라고 하는데, 이집트에 기독교가 전파되기 시작한 시기가 1세기 때부터이므로 콥트어는 1세기 이후부터 이집트인의 민족어로 널리 통용되던 언어라고 볼 수 있다. 콥트들은 그들이 유일한 이집트의 원주민이며 파라오 왕조의 후예들임을 강조한다. 그렇지만 파라오 왕조 시대의 고대 이집트인들은 콥트어를 사용하지 않았었으며, 그 이후의 이집트 원주민들이 콥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콥트어는 이집트 전역에서 생성되어 통용되고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본 논문은 이집트 콥트의 문화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집트 역사, 환경 즉 주변 국가와의 관계, 지리적 조건, 종교를 바탕으로 지난 2,000년 동안의 콥트 문화를 분석함으로써, 이집트 콥트가 어떻게 그들의 종교와 문화를 활용하여 이집트 내에서 그들의 정체성과 풍속을 유지시켜 왔는지를 고찰해 볼 것이다. 세부적으로 이집트 콥트의 정체성, 언어생활과 문화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던 콥트어의 필요성, 이슬람 도래 이후 동화되지 않고 독립된 문화를 유지하게 된 요인 등, 역사와 언어를 중심으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로 이집트 콥트가 남긴 문화에 대한 가치를 재고찰 하고자 한다. 특히 이집트 기독교인들이 로마-비잔틴 제국 시대에 어떻게 콥트어를 만들어 통용했고 성장시켰으며, 아랍 이슬람 사회에서 무슬림과 이집트 콥트들에게 콥트어는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그리고 21세기에 이르기까지 콥트 공동체에 콥트어가 살아남아 있음에 주목하여 향후 그들의 언어생활은 어떻게 변화할 지를 전망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집트 콥트에 대한 국내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이원삼(1997)은 "이집트 소수집단 꼽트 연구"에서 콥트 민족 정체성이 형성되는 계기와 과정이 다양한 조건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고 하였다. 윤상구(1997)는 정치 과정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 소수집단 꼽트 연구"에서 콥트에 대한 정의와 그들의 상황을 밝히고 있다. 대다수의 콥트들이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요소들이 변화를 겪게 되었다고 하였고, 비록 이러한 변화가 당시의 시대적 흐름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콥트들은 이슬람 지역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에도 여러 가지 압박과 분리라는 시련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한다. 이성옥(Lee, Sung-Ok, 2002)은 콥트를 "소외된 파라오의 자녀들(Pharaoh's Alienated Christian)"로 칭하고 "이집트 콥트 기독교인들의 자아정체성과 자기표현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Self-Identification and Self-Expression of 'Coptic' Christians in Egypt)"에서 콥트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방식과 이를 제도적, 집단적, 개인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역사가 전개됨에 따라 변화되었다고 연구하였다. 황의갑(2008)은 "이슬람 이전 시대의 이집트 콥트교의 유래와 발전과정 연구"에서 콥트들은 "고대 이집트 원주민의 혈통으로 이집트의 토착민이라는 것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집트의 원주민들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 그리스와 로마, 비잔틴, 페르시아 그리고 이슬람 등의 외부 세력에 대항하기도 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순응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송경근(2013)은 콥트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 사회 속의 이집트 기독교도의 상황과 미래"에서 이슬람 사회에서의 소수 종파인 기독교도들의 현재의 위치와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 또한 송경근(2013,6)은 "이집트 국내 갈등의 분석과 해결에 대한 연구"에서, 이집트 국내 갈등 요인을 고찰하고 그 갈등 요인의 근본적인 분석과 이해를 통하여 갈등요인의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이집트 기독교도의 문제를 다루었다.

해외 영문 연구 논문 자료에서는 Milad Hanna(1994)가 "The Seven Pillars of the Egyptian Identity"를 통하여 이집트는 시간과 공간에 의해 정체성이 정해졌으며, 4개의 시간적 개념을 파라오, 그레코-로마, 콥트, 이슬람으로, 그리고 3개의 공간적 개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을 아랍 세계, 지중해 지역, 아프리카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Mark Purcell(1998)는 Cultural Geographies에 기고한 "A place for the Copts: imagined territory and spatial conflict in Egypt"라는 논문에서, 비록 소수로 남아 있으나 콥트들이 나일 강 유역에서 현재도 여전히 살고 있다고 밝혔다.

Brittingham(2005)의 보고서에 의하면, 2000년도에 미국에는 일백만 명 이상의 아랍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들 중의 반 이상이 레바논이나 이집트인의 후예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2010년도에는 4백만 명 이상이 아랍계 미국인으로 거주하고 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Samhan(2006, April)의 보고에는 전체 아랍인 미국 이민자의 77%가 아랍 기독교인이라고 통계적으로 예측한 수치를 발표하였다.

이 외에도 Sallie Boulos 의 “The Role of Acculturation, Ethnic Identity, and Religious Fatalism on Attitudes towards seeking Psychological Help among Coptic Americans", Paul Rowe의 ” Building Coptic Civil Society: Christian groups and the State in Mubarak's Egypt, Middle Eastern Studies",와 M. Nisan의 ” Minorities in the Middle East “ 그리고, Jill Kamil(2002), Kenneth Cragg(1992), Peter Makari(2007), Otto Meinardus(1999)와 Edward Wakin(2000)의 단행본, 등을 참고하여 고찰하려한다.

본 논문은 콥트 문화를 연구하기 위하여 콥트어를 키워드로 한 이집트의 역사를 크게 둘로 즉, 그리스 로마, 비잔틴 제국 시대와 이슬람 사회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한다. 제2장에서 그리스 로마, 비잔틴 제국 시대의 이집트 기독교도인 콥트의 성장에 대하여 연구하고, 이집트 초기기독교도의 언어가 된 콥트어의 생성과 활용에 대하여 고찰한다. 제3장에서는 이슬람사회 속에서 콥트들이 어떻게 적응하고 반응하며 생존을 추구했는지에 대하여 분석한다. 그리고 제4장에서 21세기 콥트 공동체의 대응과 콥트어에 대한 전망의 순으로 연구를 진행하려 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2장 이집트 기독교도 콥트의 성장과 콥트어

제1절 지중해 문화권에 속한 이집트의 역사

이집트는 지중해(the Mediterranean Sea) 연안에 위치한다. 지리적으로 지중해 문화권이 형성된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중요한 곳에 이집트가 위치하고 있다. 남유럽을 마주보며 서아시아로 북아프리카를 연결하고, 홍해와 지중해의 중간에서 동양과 서양의 문화와 문명을 연결시켜주는 곳이다. 그리고 이집트에는 세계에서 제일 긴 강 나일 강이 흐른다. 이 강은 아프리카 적도 지방의 빅토리아 호수(Victoria Lake)에서 발원하여 6,690 km를 흘러서 지중해로 들어간다. 이집트인들은 자기 나라를 '검은 땅'이라고 불렀다. 그 이유는 주위 사막의 '붉은 땅'과 대조를 이루는 나일 강 계곡의 검은 퇴적물 때문인 것 같다. 이 나일 강 유역에서 생산되는 풍요로운 농산물을 토대로 이집트는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무역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상업의 중심지요 교통의 중심지이었다.

이집트는 세계에서 가장 오랜 문명과 문화사회를 이룬 역사를 가진 나라다. 고대 이집트 역사는 크게 둘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경제적으로 좋은 위치에서 자생한 파라오 왕조 시대 약 3,000년 동안의 역사이고, 둘째는 그 좋은 위치를 빼앗기 위해 침략해 온 외침을 막아내지 못하고 점령당하여 정치적으로 주권을 상실한 그리스· 로마 · 비잔틴 제국 시대 약 1,000년의 역사이다. 이는 대외적으로 외교권을 상실하여 고립 상태에 처하게 되었으며, 대내적으로는 군사력과 행정력을 빼앗기고 사회생활에 간섭을 받게 된 것이다. 더구나 연속되는 장기간의 외침은 - 이집트는 그리스 마케도니아(BC 341 ~ BC 30)와 로마제국(BC 30 ~ AD 395)의 통치를 받았으며, 로마제국이 동·서 로마로 분리될 때는 동로마 비잔틴제국(395 ~ 641)의 통치하에 들어갔다 - 고대 이집트인들이 콥트가 되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1. 고대 이집트 시대 : 파라오 왕조 시대

고대 이집트인들은 파라오 왕조 약 3,000년 동안 나일 강 유역에 모여 범람으로 비옥해진 땅에 농사를 짓는 농업에 종사하면서, 범람에 대처하는 토목과 관개기술을 개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발해내고 도시를 건설하여 후세의 사람들이 '고대 이집트 문명'이라고 부르게 되는 위대한 문명의 기초를 다져놓았다. 이집트는 해마다 범람하는 이 나일 강의 홍수에 의존하여 풍요로운 농산물을 생산하였고, 바로 이 풍요로운 농산물 생산이 고대 이집트의 화려한 파라오 왕국을 형성하도록 했다.

마네토[4]는 BC 3,000년 이전부터 외침이 시작되는 BC 341년 전까지 31개 왕조를 이루는 이집트의 고대사를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으로 구분한다. 피라미드(Pyramid)와 상형문자는 고왕국 시대의 유산이며, 라(태양신) 숭배 사상과 이시스(Isis)와 오시리스(Osiris)신화는 중왕국 시대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유대인의 출애굽은 신왕국 시대에 속한다고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고대 이집트 사회의 특징은 첫째, 경제적으로는 풍부한 농산물 생산이 무역과 교통을 발달시켰고, 둘째, 정치력을 발휘하여 대형 석조 피라미드를 구축하고 피라미드로 묘를 만들고 미라를 만들어 사후의 안녕과 영생을 기원했다. 셋째, 태양신 라(Ra)를 숭배하여 신전들을 건축하였다. 넷째로 지중해 연안 각처로부터 타 민족들이 유입되어 인구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주변 국가에 기근이 들어도 나일 강 유역은 여전히 농작물이 풍성히 수확되었기 때문이었다. 예로 유목민인 유대인의 빈번한 이주로 인한 유입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집트인들은 결코 나일 강 유역을 떠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집트로 이주하는 타지역인들로부터 고대 이집트인들은 여러 다른 문화와 다른 언어를 체험하여 그들과도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켰다. 특히 유대인의 유입이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끼친 영향은 지대하다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으로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말과 글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피라미드에 상형문자를 남겼다.

가. 유대인 유입

고대 나일 강 유역에서 생산된 다량의 농산물이 이웃 나라에로 운반되는 길이 형성되고, 무역 등 상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많았다. 이러한 대상들로 인하여 농산물 이외에도 각양각색의 문물이 전달되었고, 또한 각 지방의 소식, 전통과 풍습, 학문과 언어, 종교도 전달되었으며, 기근이 발생할 때에는 생업을 찾아 타 지역에서 이집트로 이주하는 이동 인구가 많았다. 특히 이웃나라 유대인의 유입이 빈번하였는데, 이에 대

4) 마네토 (Manethos)는 BC 300년경에 활동한 이집트의 성직자로 프톨레마이오스 1세(BC 305~282) 때 그리스어로 된 이집트 역사를 쓴 인물로 추정된다.(브리태니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하여 구약성서 창세기에 자세한 기록이 있다. 노아시대의 대홍수 이후, 함의 후예들이 나일 강 남쪽 유역으로 내려왔다. 갈대아 우르(Ur, 이라크 지역)에서 태어난 아브라함(Abraham)도 가족을 이끌고 하란과 가나안 땅을 거쳐 이집트에서 여러 해 살다가, 이스마엘을 낳은 이집트 여인 하갈도 함께,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갔다. 요셉(Josep)이 형제들의 시기심으로 지나가는 대상에게 팔려 이집트에서 노예로 생활하였다. 심한 가뭄의 시기에 먹을 곡식이 떨어지자 생존을 위하여 야곱(Jacob)이 가솔을 이끌고 이집트로 이주하였다. 아브라함보다 약 430년 이후에 이집트에서 태어난 모세(Moses)의 시대엔 수백만의 유대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주로 농사를 지으며 노예생활을 하고 있었다. 모세의 통솔 하에 유대민족이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성서의 출애굽기는 유명하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수백 년 동안을 노예생활하면서도 유일신 신앙생활에 집착하는 유대인의 생활 모습을 보았으며, 이집트인들은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의 유일신 사상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BC 13세기경에 써졌다는 모세5경[5]의 집필자인 모세의 생애와 직접 함께 했던 고대 이집트인의 후예가 바로 콥트라고 그들은 자긍심을 표하고 있다. 모세의 출애굽 이후에도, BC 586년 바벨론 군에 의해 유대가 멸망할 때, 선지자 예레미야를 비롯해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집트에 정착하였다.

나. 고대 이집트어

고대 이집트어(Egyptian language)는 나일 강 유역에서 쓰이던 언어로 지금은 사라져 사어가 된 언어이다. 고대 이집트어는 셈어군·쿠시어군·차드어군 및 베르베르어군과 함께 함셈어족에 속한다. 학자들은 이집트어로 써진 문헌을 바탕으로 하여 이집트어사를 대개 고대 이집트어(BC 3,000-2,200경), 중기 이집트어(BC 2,200경-1,600경), 후기 이집트어(BC 1,550-700경), 민중문자 시대의 통속 이집트어(BC 700-AD 400경), 콥트어(AD 1세기-현재) 등 다섯 시기로 나누고 있다. 고대 이집트어에 대한 지식을 제공해준 주요자료로는 사람의 일생을 다룬 전기 문헌(제3왕조 말기인 BC 2,575경 시작), 제4-6왕조(BC 2,575경~2,150경) 시대에 왕들이 내린 포고령, 제5-6왕조(BC 2,465경-2,150경) 시대에 왕이 죽은 뒤 명복을 비는 주문인 피라미드 문헌 등이다.

5) 구약의 제1부인 토라(Torah), 즉 모세 5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한다. 모세의 저작으로 알려졌으나, 후대의 편집과정을 거쳐 BC 586년 바벨론 포로 이후 현재의 형태로 완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중기 이집트어는 기독교 시대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기념비의 비문과 일부 문학작품에 계속 사용되었다. 후기 이집트어 문헌은 몇몇 비문에도 남아 있지만 주로 필사본이다. 민중문자 시대의 통속 이집트어는 이집트가 페르시아·그리스·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기에 줄곧 쓰인 언어였다. BC 196년경에 제작된 로제타스톤[6]의 상형문자는 통속 이집트어 문자의 좋은 보기이다.

고대 이집트어는 원래 상형문자로 표기했다. 기념비의 상형문자는 BC 3,000년경부터 AD 3세기까지 사용되었다. 표기된 상형문자는 신성문자와 민중문자로 발전했다. 가장 오래된 신성문자는 제1왕조(BC 2,925경~2,775경) 시대의 것이다. 민중문자는 통속 이집트어 시대의 언어를 표기하는 데 쓰였다. 제26왕조(BC 664~525) 이후 신성문자는 주로 파피루스에 종교문헌이나 전통적 문헌을 베껴 쓸 때에만 사용된 반면 민중문자는 그 밖의 모든 목적에 사용되었다.

1798년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침략한 후, 1799년에 로제타스톤이 발견되었고, 이 돌에 써진 상형문자가 샹폴리옹에 의하여 해독되었다. 그는 고대 이집트의 언어가 상형문자(히에로글리프), 신관문자(히에라틱), 민중문자(데모틱)라는 세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상형문자는 그림문자의 특징을 가진 상징문자이자 뜻을 단순화시킨 표의문자이며, 동시에 음가를 지닌 표음문자이기도 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1822년에 그는 <다시에 씨에게 보내는 편지, 음운 상형문자의 자모에 관하여(Lettre a M. Dacier, l'alphabet des hieroglyphes phonetiques)>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그는 수많은 이집트의 비문을 계속 검토하여, 그의 연구결과의 정확성을 실제로 확인하였다.(손주영·송경근 2009, 329)

2. 그리스· 로마 · 비잔틴 시대

이집트는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세계문명을 이룩한 곳인 만큼 세계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외세의 침입을 겪은 나라 중 한 곳이다. 파라오 왕조 시대 이후로는 오랜 세월 동안 계속 외침을 당하는 아픔의 역사적 기록을 가지고 있지만, 이집트인들은 결코 본

6) 로제타스톤(Rosetta stone): 프랑스 학자 샹폴리옹(Jean Champollion 1790-1832)이 로제타스톤에 새겨진 문자를 해독하였다. 1799년 나폴레옹 원정군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동쪽으로 60km떨어진 로제타 마을에서 발견한 글이 새겨진 검은 돌(길이 1.25m, 너비 0.7m, 두께 28cm)이다. 이 단단하고 반질반질한 검은 빛 돌에 세 종류의 글자들이 새겨져 있다. 첫째 단 14행은 상형문자이고, 둘째 단 32행은 민용문자이고, 셋째 단 52행은 헬라어였다. 풀어보니 BC 196년에 이집트 신관(神官)들이 프톨레마이오스 5세를 찬양한 글이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토인 나일 강 유역을 떠나지 않은 채 대대손손 그들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이집트 나일 강 유역에 정주한 이집트인들이 지속되는 외침에도 위대한 인류문명을 이룩하고 특히 이집트 콥트가 유대인들의 대량 유입되는 과정에서 그들과 어떻게 선린관계를 유지하면서 기독교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콥트 교회의 전통을 수립했는지 그 역사적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가. 프톨레마이오스왕조 시대 : 그리스 마케도니아 시대(BC 341 - BC 30)

BC 341년에는 페르시아의 아르탁세륵세스 3세가, BC 332년에는 마케도니아-그리스군의 알렉산드로스대왕[7]이 이집트를 정복했다. 알렉산드로스대왕이 죽은 뒤 부장 프톨레마이오스 1세는 알렉산드리아에 프톨레마이오스왕조를 세웠다. 경제적인 면에서 지중해 연안의 알렉산드리아 항구 도시는 이집트 최대의 도시로 발전하였다. 파로스 섬에 135m정도 높이의 등대(Pharos of Alexandria)[8]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BC 280년쯤에 건축되었다. 그 시절에 알렉산드리아에 등대가 세워졌다는 것은 알렉산드리아가 국제도시로의 중요한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했다는 뜻이며, 그리스와 로마를 위시하여 각지에서 알렉산드리아로 많은 배들이 몰려와 문물 교환이 이루어지므로, 배들 끼리 부딪치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을 위한 등대가 절실히 요구되었었다는 뜻이 된다.

프톨레마이오스왕조는 이집트 고유의 문화를 존중했으며, 왕들은 이집트식 신전을 세우고 이집트식 상형문자를 새겼다. 왕가의 공용어는 헬라어였으나, 왕명은 상형문자·민중문자·헬라어문자 3가지로 발표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알렉산드리아는 헬레니즘 세계의 중심이었고, 학문과 예술의 수준이 세계 최고인 도시였다.

---

7)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BC 356~BC 323, 재위 BC 336~BC 323)은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였으며, 이집트에도 알렉산드리아 항구 도시를 건설하여 동서 교통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였고,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를 융합한 헬레니즘 문화를 이룩하였다.

8) 가장 유명한 고대의 등대로 기술적인 위업이며 이후 세워진 모든 등대의 원형이다. BC 280년경 크니도스의 소스트라토스가 이집트 왕 프톨레마이오스 2세를 위해 알렉산드리아 항 안에 있는 파로스 섬에 세웠다고 전해진다. 이 등대는 3단식으로 맨 아래층은 4각형, 중간층은 8각형, 꼭대기층은 원통형이며 모두 약간 안쪽으로 쏠리게 지어졌다. 폭이 넓은 나선형 경사로가 옥탑으로 이어져 있었으며 옥탑에서 밤에 불을 밝혔다. 이 등대 위에는 거대한 조상(彫像)이 높이 솟아 있었는데, 알렉산드로스 대왕이나 프톨레마이오스 1세 소테르를 태양신 헬리오스의 형상으로 나타낸 것으로 여겨진다. 중세에 아랍인들은 꼭대기 등대를 작은 모스크로 바꾸었다. 이 등대는 12세기 이후에 무너졌으며 1477년경 맘루크 술탄 카이트 베이는 그 잔해를 이용해 요새를 지었다.(Daum 백과사전: 브리태니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항구도시 알렉산드리아에 무제이온(Mouseion) 학교가 운영되어, 과학적 사고의 능력과 학문적 연구에 심혈을 기울일 수 있는 바탕이 조성되어 있었다.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초대 왕인 프톨레마이오스(Ptolemaeos) 1세(BC 364-282)는 알렉산드리아를 문화 권력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하여 거대한 도서관도 세웠다. 세계에서 최초의 도서관이 BC 284년에 문화 권력의 상징으로 세워졌었다. 그 만큼 세계의 석학들이 알렉산드리아로 몰려들었었고, 과학적인 사고와 각 분야의 학문 연구가 알렉산드리아에서 활성화 되고, 각국의 언어가 통용되며, 연구할 문서 자료가 많았다는 것을 입증한다. 사실 당시에 유명한 학자들이 알렉산드리아에 많아, 학문에 뜻을 둔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서 모여 들었었다.

알렉산드리아가 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연구교육센터인 무제이온(mouseion)에 석학들이 모여들자,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전통을 기반으로 그 문화의 중심에 들고자 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헬라어(Ancient Greek)를 사용 중이었고 히브리어(Hebrew language)는 거의 잊어버린 상태였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일이 다급해졌음으로 헬라인 아리스테아스(Aristeas)를 통해 번역 작업이 시작되었다.

프톨레마이오스 II세(BC 308~246)가 알렉산드리아를 예술과 과학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그는 아리스테아스로부터 유대인의 율법서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도서관장 데메르티리우스 팔레리우스에게 말했다. “그 책들은 유대인의 방언과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어로 번역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들었다.”(유대고대사 12~1) 그는 데메르리우스에게 명하여 유대의 대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율법서의 번역을 부탁하는 서신을 보내게 했고, 서신을 접수한 유대의 대제사장 엘르아살은 각 지파에서 6명씩 72명의 학자를 알렉산드리아에 파견해 번역에 착수하게 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것이 곧 라틴어로 ‘셉튜아진타(Septuaginta)’[9]라고 부르고 LXX로 표기되는 70인역 성서이었던 것이다. 이 성서는 다분히 헬라적 정서가 개입된 번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문화가 알렉산드리아를 통해 세계로 나가는 문이 되었다. 이러한 바탕에서 후에 유대인 출신의 대학자 ‘필로[10](Philo Judeus, BC 15~AD 50)’가 나오게 되었다.

또한 유클리드(Euclid BC 325~270)[11]는 늘 “이렇게 확실히 증명하였다.”를 사용

9) 70인역(Septuaginta, Greek version of the Old Testament; LXX)은 유대교 랍비들에 의해, BC 3세기 중엽부터 모세오경을 처음으로 번역하기 시작하여 약 100여년에 걸쳐, 팔레스티나 外域 디아스포라 지역(diaspora)의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공동체를 위하여 구약성경을 처음으로 당시 공용어 그리스어로 옮긴 최초의 번역본이다.

10) 필로 : 고대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철학자, 당시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사회의 지도자이며, 《구약성서》를 그리스 철학, 특히 플라톤의 사상을 원용하여 비유적 해석을 행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하여 모든 수학 정리들이 논리적으로 중요한 원리들에 의해 증명된다고 말했다. 오늘날까지도 모든 수학자들이 증명을 끝낸 후 '증명의 수학자' 유클리드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말미에 'Q.E.D.'를 써 넣고 있다. 그것은 라틴어 'Quod Erat Demonstrandum' 즉 '이렇게 확실히 증명하였다'의 약자이다.

이렇듯 알렉산드리아에 도서관과 무제이온이 있음으로 해서 많은 석학들이 모여 과학적 사고와 학문연구에 의한 저서와 라틴어의 셉튜아진타 70인역 성서, 아람어나 히브리어로 된 율법서가 헬라어로 번역되어 완벽한 헬라어 번역서로 출간되는 등 알렉산드리아는 정치 경제 학술 각 분야에 눈부신 발전과 성장을 일으켰고, 유대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국제 문화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곳이었다.

나. 로마제국 시대 (BC 30-AD 395)

BC 30년 프톨레마이오스 12세의 딸인 여왕 클레오파트라 7세(Cleopatra, BC 69-30)가 로마와의 싸움에서 패하여 자살하자, 로마는 이집트를 속주로 삼고, 항구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곡물을 가져갔다. 유스티니아누스대제가 신전폐쇄를 명한 이후 고대 이집트 파라오시대의 문화전통이 사라지게 되었다. 기독교가 이집트로 전파되었다. 알렉산드리아에 '마가(Mark)'가 세운 첫 번째의 교회가 있다. 다음은 '콥트의 두 기둥'의 '콥트교회와 콥트교황'에서 계속된다.

다. 비잔틴제국 시대 (AD 395-642)

395년 로마제국이 서로마제국과 동로마제국(비잔틴제국)으로 분열된 이후에 이집트는 비잔틴 제국 령으로 편입되었다. 기독교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보호 속에서 급격히 발전하였다.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이집트의 모든 우상 신전을 파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기독교 수도자와 은둔자들이 급격히 늘어나 세계 최초로 이집트에 수도원이 등장하였다. 성서, 성자들과 순교자들의 삶에 대한 번역물이 주를 이루는 풍부한 콥트문학이 이집트에서 발달했다.

---

11) 유클리드(Euclid) :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BC 330~BC 275). 기하학의 대성자(大成者)로, 저서 《기하학 원본(幾何學原本)》(Euclidean geometry)을 통해 엄밀한 이론 체계를 구성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2절 콥트의 두 기둥 : 콥트교회와 수도원 제도

이집트에는 1세기부터 기독교가 전파되기 시작한 이래 끊어짐 없이 이어온 교회와 교황제도 그리고 수도원제도의 역사가 있다. 알렉산드리아 항구 도시는 여전히 무역이 성행하였고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외교권 군사력 행정력은 로마의 법칙과 규율에 따라야 했다. 로마는 이집트인들에게 로마 교황을 숭배하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기독교가 점점 더 많은 이집트인들에게 전파되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그들의 정체성 찾기에 관심이 고조되었다. '마가(Mark)' 가 세운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중추적 역할을 했다. 박해와 순교가 만연해지자 종교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로마제국시대에는 라틴어와 헬라어, 두 언어가 공용어로 통용되었으나, 이집트인들에게는 이미 헬라어에 더 익숙해져있었으므로 이집트에는 헬라어와 이집트어 두 언어가 공존했다. 그러나 이시스와 오시리스 신화를 숭배하는 신전이 파괴되고 기독교 교회로 개조되면서 상형문자를 읽을 수 있는 신전에 거주하였던 교사들이 쫓겨나가게 되었다. 구약 성서 읽기가 유행하였다. 왜냐하면 구약 성서가 이미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었고, 구약성서에 포함된 모세5경이 이집트에서 태어난 모세에 의해 써졌기 때문이었다. 또한 예수도 어린 시절을 이집트에서 자란 흔적이 있기 때문이었다. 특히 이사야의 예언 말씀에 민감했다. 자유로운 기도생활을 위하여 사막을 배회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공동체 생활에 치중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구약 성서에 이집트에 관한 언급이 많이 있다. 특히 바벨론 포로시대(BC 586-539)에 활약했던 것으로 추측되는 이사야의 예언,「그 날에 이집트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In that day there will be an altar to the LORD in the midst of the land of Egypt, and a pillar to the LORD at its border."」(이사야19:19)를 콥트인들은 기억하여, '제단(altar)'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 생활과 '기둥(pillar)'으로 사막에 수도원을 설립하여 은둔 생활을 하는 자들이 많았다. 일찍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콥트교회와 수도원 생활이 콥트들의 상징이 되었으며 콥트문화의 두 기둥을 뜻하게 되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 콥트교회와 콥트교황

가. 콥트교회

(1)기독교 전파

이집트인들은 파라오시대부터 수시로 이주해 오는 유대인들에게 너그럽게 삶의 터전을 제공해 주었다. 유대인들이 믿는 유일신에 대하여 자주 듣게 되고 그들의 생활 모습을 가까이에서 직접 관찰하곤 했었다. 그러나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이집트인은 이집트인으로 구분되었지 신앙생활로 인한 충돌을 일으키려 하진 않았었다. 유대인들은 그들만이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자부심으로 이방인인 이집트인에게 전도를 하거나 개종의 필요성을 주장하지 않았었기 때문이었다. 오히려 항구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대인과 이집트인들이 곡물 거래의 주도권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곤 했었다.

신약성서 마태복음 2장 13절에 아기 예수의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온 사실이 언급되어 있다. 이집트는 예수가 실제로 3년 동안 거주했던 땅이다. 예수를 환란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던 장소라는 점으로 말미암아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집트의 기독교도가 이집트에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며, 유지될 수 있었던 토양과 힘을 제공하였다(송경근 2013 5-6).

예수의 수난 이후부터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주해오는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 기독교도들의 수가 증가하였다. 그들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복음을 전파하므로 그들의 유일신 전도를 믿고 따르는 이집트인들의 수 또한 증가하였다.

기독교 복음 전도사 마가(Mark)는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중의 한 사람은 아니지만, 70인 전도대원 중의 한 사람이다. 마가의 집 다락방에서 예수가 모임을 자주 가졌었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마가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들어와 성공적인 선교활동을 하여 교회를 하나 세웠다. 이렇게 이집트인이면서 기독교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콥트(Copts)라 불림을 받았고, 그들이 세운 교회를 콥트교회(Coptic Church)라 했다. 그러나 마가는 알렉산드리아 기득권층의 질시를 받게 되었으며, 68년 5월 8일 예수의 부활절 날 그들에게 붙잡혀 갖은 고초를 당하다가 순교하였다.(송경근 2013 5-6) 이집트의 기독교도인 콥트들은 이런 마가를 초대 콥트교황으로 추대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콥트와 콥트교회는 마가와 마가복음서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마가와 마가복음서

‘마가’가 누구이기에 무엇을 어떻게 전파하였기에 한 국가의 대부분의 국민을 대대손손 기독교를 신봉하도록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그의 저서인 ‘마가복음서‘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① 마가의 정체성과 예수에 대한 증언

‘마가'(Mark)라는 이름은 신약성경에 9번 나온다. 마가는 지중해의 구브로(키프러스) 섬 출신의 레위 족으로 유대인 기독교도였다. 히브리의 본명은 `요한(John)'이고, 로마식 이름이 `마가(Mark)'다. 마가는 유년 시절부터 신앙심이 돈독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와 외삼촌, 바나바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자랐다.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기회를 여러 번 가졌다.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마가네 집 2층 다락방을 모임의 장소로 자주 찾았었기 때문이다. 이 다락방은 예수께서 잡히기 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가지셨던 바로 그 장소였다. 예수의 승천 후, 성령이 강림하실 때까지 열흘 동안 120명이 모여 기도했던 그 다락방이 역시 같은 장소였다. 유대 왕 헤롯 아그립바의 명령으로 체포된 베드로가 천사가 열어 준 감옥 문을 나와 맨 먼저 마가의 집 다락방으로 찾아가서 교인들을 만났었다는 기록도 있다. 지금 현세에도 남아 있는 마가의 집 다락방은 천장이 상당히 높고 120명이 함께 기도할 수 있을 정도여서 그 집이 꽤 큰 규모의 저택이었음과 마가가 부잣집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게 해준다.

예수가 잡혀 갈 때 그의 제자들이 모두 그를 버리고 달아났다. 마가도 예수가 잡혀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보고는 도망쳤었다. 유대를 지배 통치하는 이방 민족의 박해가 심해지면서 많은 레위 지파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새로운 삶을 찾았다. 마가도 알렉산드리아로 내려가서 수학을 배운 것으로 추측된다. 마가복음서를 읽어보면 마가가 수학을 공부했다는 것이 나타난다. 마가가 유학을 마치고 어머니가 있는 고향으로 되돌아 온 후로는 바나바와 바울의 수행원으로 전도여행에 동참했다. 즉 AD 46년 외삼촌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 안디옥으로 간 마가는 이듬해인 AD 47년 그들의 수행원으로 선교 여행에 따라나섰다. 그러나 도중에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마가는 그들과 헤어져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겠으나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할례 문제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마가는 보수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적 유대인으로 할례당원이었다.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마가는 할례당에 속한다고 되어 있다. 할례당원이므로 바울과의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의견충돌이 빈번히 일어났었던 것이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도 무조건 세례를 주므로 마가는 바울의 행위를 이해하지 못하여 도중에 이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즉 바울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바로 세례를 주었는데, 마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다. 할례당의 생각은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이방인은 일단 유대인처럼 할례 받는 결례를 행하여 유대인으로 인정된 후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야지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할례당원이었었다. 바울과의 의견충돌이 있었다는 것은 할례당과의 충돌이었는데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의도적으로 마가가 할례당원이었다는 사실을 기록한 것을 보면 이것 때문에 첫 전도여행에서 충돌이 있었던 것이었을 것이다. 후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할례와는 관계없이 이방인도 세례를 받을 수 있고[12]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고 결정되었다.

마가는 바울과 결별을 한 후에도 자신의 외삼촌 되는 바나바와 키프로스 쪽으로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났다. 바나바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마가가 예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수행원과 통역원으로 동행을 했다. 베드로도 “내 아들 마가”라고 했다. 마가는 베드로의 설교와 강의를 통역하고 정리를 하다가 그 내용을 간추려, 로마에 있을 때 헬라어로 마가복음서를 썼다. 그 시대 로마의 공용어가 라틴어와 헬라어였다.

마가는 예수가 직접 택한 12제자에 속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마가가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첫 번째 복음서를 썼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마가복음이 기록된 것은 예수가 승천하시고 20년 정도 지난 후 AD 50년경에 기록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마가는 복음서를 기록 할 때 그 대상을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제국에 속한 사람들을 향하여 기록했다. 즉 이집트인들도 포함된 이방인들의 세계를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마가복음서를 보고 마태(Matthew)와 누가(Luke)도 복음서를 썼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共觀福音)이라고 한다.

마가는 로마에서 바울과 베드로의 순교를 본 후, 말년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로 내려가, 구두 수선공에게 전도하는 것을 시작으로, 선교 활동에 전념하며 살다가 교회를 하나 세우고 순교했다. 마가가 직접 이집트인들에게 마가복음서를 남겨줌으로서 예수를 증거 하는 증인의 역할을 확실하게 하였던 것이다.

12) 성서 사도행전 15장 참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② 마가복음서의 구성과 내용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마가복음서는 마가에 의하여 기록된 기쁜 소식이다. 그 기쁜 소식은 예수의 사건, '예수가 오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순교하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고 다시 올 것'이라는 사실을 기록한 기쁜 소식이다. 마가복음서는 16장으로 구성되어, 신약 성서의 네 복음서 중 가장 짧으나, 문체가 소박하고 간결하며, 수식어가 없어 문장에 박력이 있다.

마가복음서의 특징은 첫째, 마태 · 요한과는 달리 예수탄생은 물론 그의 설교내용을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의 업적만을 생생히 묘사한 데 있다. 마가는 마가복음서에서 예수를 그리스도,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른다. 마가는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복음서 첫 문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을 한다. 그 시절은 로마제국 시대이므로 하나님의 아들은 로마제국의 황제를 가리키는 호칭이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파격적인 선언이었다.

둘째, 마가의 복음서는 문장력의 짜임새가 좋다. 의미 전달이 확실하고, 진실을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다. 마가복음서의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보면 신뢰감을 느낄 수 있다.

마가는 그의 복음서의 첫 문장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The beginning of the gospel about Jesus Christ, the Son of God.)"로 시작했다. 그리고 구약성서에서 나오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여 구약에서 나오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것임을 알려주었다.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모두가 다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는데, 마가만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했던 것이다.

마가는 마가복음의 마지막 구절을 증명의 수학자 유클리드(Euclid BC 325~270)가 "이렇게 증명하였다."를 사용하여 끝맺음을 확실하게 하였던 것처럼, 마가도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막 16:20) Then the disciples went out and preached every-where, and the Lord worked with them and confirmed his word by the signs that accompanied it.(Mark 16:20) 로 끝맺음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집트 콥트들에게 증거하였다.[13]

13) 아가페 NIV *Explanation BIBLE*(2000) 참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리고 마가복음서의 내용은 세례 요한의 예수 증거부터 시작하여 예수가 부활하는 아침까지를 다루고 있다. 예수는 이 땅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고, 이를 예수가 세례 받을 때(1:9~10), 변화산 위에서(9:2), 백부장의 고백(15:39), 또 사탄까지도 복종하는 등의 이야기를 통하여 확증시켜준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종의 자세로 봉사하다가(1:1~10:52), 희생되고(11:1~15:47), 승리하는 사실(16:1~20)을 기록하고 있다.

(3) 콥트교회 설립

마가가 순교한 후, 콥트인들은 더욱 열광적으로 헬라어 마가복음서를 콥트어로 번역하여 읽었다. 이미 헬라어로 번역된 '셉튜아진타'를 읽으면서, '히브리서'의 저자로 알려진 아볼로가 헬라어로 번역된 율법서에서 발견한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For the law appoints as high priests men who are weak, but the oath, which came after the law, appointed the Son, who has been made perfect forever.)"(히 7:28)에서 얻어낸 결론으로 아볼로가 히브리서의 말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적어 놓았음(God is treating you as sons. For what son is not disciplined by his father? = Every son is disciplined by his father.(히 12:7)을 읽으며, 세례를 받는 이집트기독교인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알렉산드리아 교회는 아리우스·아타나시우스·오리게네스·클레멘스와 같은 초기 기독교 교부들의 활동을 눈부시게 빛나게 했다. 그러므로 또한 무자비한 박해와 시련이 뒤따랐다. 콥트인들은 로마인들의 박해를 피하여 카이로 남쪽의 콥토스(현재의 구브탄)에 모여 살았다. 순교자의 수도 증가하였다. 특히 로마 황제 디오클레시안(Diocletian)의 통치기간에는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순교자의 시대라 불렀다. 순교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하여 디오클레시안(Diocletian)이 로마황제로 즉위한 해 즉 AD 284년을 콥트교회의 원년으로 정했다. 순교자의 시대라 불렀던 것은 많은 순교자를 낸 그 해를 기념하여 잊지 않기 위하여, 콥트교회의 공식적인 출발의 해로 정한 것이다.

이집트 콥트인들은 육신의 생명을 무의미하게 유지시키는 것보다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준 기독교 신앙을 고수하는 것에 훨씬 더 가치를 부여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고통과 핍박을 인내로 견뎌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더구나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을 때는 신앙을 배신하고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음을 한탄하며 지배자의 행정력이나 통치력에 무릎 꿇기가 더 쉬웠을 것인데, 그들은 순교를 택했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었다. 이집트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다. 오히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었다. 유대인들이 '노아(Noah)'의 큰아들인 '셈(Shem)'의 후예들이라면, 이집트인들은 '노아(Noah)'의 큰아들인 '셈(Shem)'과 둘째아들인 '함(Ham)'의 후손들임에 틀림이 없었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그들만의 유일신으로 신봉하려고 전도를 하지 않았지만,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순교를 각오하며 그 유일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 주었다. 이를 귀하게 여기고, 이집트인들은 유대 기독교인의 전도를 받아드려 이집트기독교인 즉 콥트가 되었던 것이다. 유일신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지상에서 사는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받아들였다. 옛날 선조들인, 인간으로서 최대의 부와 권력을 거머쥐었던, 고대 파라오의 왕들도 영생을 추구하며 피라미드를 건축하고 부활을 기대했었다는 것을 기억했다. 전해 내려오는 인간이 만든 신화속의 특출한 인물들도 영생을 꿈꾸며 부활하여 신처럼 되기를 원했었고 이집트인들은 이 신화를 숭배해 왔었다. 죽음 · 부활 · 영생, 이 난제를 풀어준 사람이 바로 신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믿고 의지하여 순수히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결코 같은 인간이며 한 세대의 권력을 쥔 로마 교황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며 따를 수는 없었던 것이다.

결국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공포하여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였고, 로마제국이 AD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지정하고, 교회의 사법권과 재산권 등을 우대함으로써, 이집트에서도 공공연히 교회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게 되었다. 콥트교회가 물밀듯이 전파되어 나일 강을 따라 북쪽에서 남쪽으로 활기를 띠고 우후죽순처럼 곳곳에 세워졌다.

나. 콥트교회와 교황의 활약

AD 300년경에 이르러서는 지중해 연안의 알렉산드리아의 콥트기독교 공동체가 가장 크고 가장 잘 조직된 종교 집단이었다. 유세비우스(AD 263년경-339년)는 기독교가 로마제국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희망이라고 까지 선언하였다.(엘리아데 2010, 561)

AD 311년 로마제국의 수도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채택하였으나, 지역에 따라 종파적 분열에 직면하게 되어, 콘스탄티누스 1세가 325년 니케아에서 제1차 공의회를 소집하였다. 알렉산드리아 교회는 로마제국의 신학의 흐름을 이끌었던 주요 다섯 교회[14] 중 하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콥트인들에게 예수는 부활을 통해 메시아가 되었다. 그는 인간에게 길을 가리켜 보여주시는 분, 구원을 가져다주시는 분,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었다. 예수는 성령 안에서 어느 시대나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의 체현(體現)이었다. 예수를 아래로부터의 호칭으로는 다윗의 아들, 새로운 모세, 대제사장이라 하였으며, 위로부터의 호칭으로는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 만일 예수와 하나님을 동등하게 보는 니케아 공의회(325년)의 결과를 기준으로 그 이전의 모든 기독교인을 평가한다면, 유대 기독교인만 이단이 아니라 처음 3세기동안 활동했던 그리스의 교부들도 거의 다 이단일 수밖에 없었다. 교회의 처음 3백년 역사 속에서는 이집트 기독교 콥트들도 정통이었다. 그러므로 콥트 기독교인들도 초기 기독교의 합법적 상속인이라고 할 수 있다(퀑 2012). 콥트 정교회는 니케아 신조(the Nicene Creed)[15]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었다(Boulos 2011, 11).

기독교의 가르침이 승리를 얻어낸 원인은 다양하다. 무엇보다 콥트들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도덕적인 강인함, 고문과 죽음에 맞선 그들의 용기를 들 수 있다. 더욱이 콥트들은 결속력이 강했다. 그들은 과부, 고아, 그리고 노인들을 돌보았고, 해적들에 사로잡힌 자들을 구해냈다. 외로움으로 고통당한 사람들,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약자들에게 콥트교회는 정체성을 강조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 회복하도록 희망을 주었다. 처음 4세기 동안 콥트공동체의 삶처럼 이러한 평등, 자비, 그리고 형제애에 대응할 만한 것을 경험한 역사적인 사회는 아마도 전무후무할 것이다.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콥트로 하여금 더욱 정체성을 확고히 하게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AD 395년 로마가 동로마·서로마제국으로 분리되면서, 이집트는 위치상, 동로마제국 즉 비잔틴 제국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 동로마제국의 수도에 있는 콘스탄티노플 교회의 주교들과 알렉산드리아 총대주교 시릴1세 사이에 기독교 조직신학에 대하여 기득권을 취하려는 경쟁이 있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의 총대주교인 시릴

14) 로마제국의 주요 다섯 교회 : 로마교회, 알렉산드리아교회, 예루살렘교회, 안디옥교회, 콘스탄티노플교회.

15) The Nicene Creed of AD 325 : We believe in one Lord, Jesus Christ, the only son of God, eternally begotten of the Father, God from God, light from light, true God from true God, begotten, not made, of one Being with the Father; through him all things were made. For us and for our salvation he came down from heaven, was incarnate of the Holy Spirit and the Virgin Mary and became truly human. For our sake he was crucified under Pontius Pilate; he suffered death and was buried. On the third day he rose again in accordance with the Scriptures; he ascended into heaven and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the Father. He will come again in glory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and his kingdom will have no end. (Boulos, 2011, 11p)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Cyril)1세가 430년에 에베소에서 개최된 공의회의 대표였는데, 교회문제에 정치가 개입되었으므로 회의 진행이 공정치가 못했다. 동로마제국의 마키아누스(Marcianus) 황제가 교회의 신앙 문제를 간섭하기 시작했으며, 결국 알렉산드리아 총대주교(제25대 교황) 디오스코루스(Dioscorus)가 나중에 추방당하는 결과를 빚었다. 451년 칼케돈 공의회 때 기독교회는 더욱 두드러지게 정치성을 띠게 되었고, 알렉산드리아의 총주교 디오스크루스가 이단으로 단죄되었다. 콥트교회가 불공평하게 단성설을 믿는 유티케스(Eutyches)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이었다. 단성설은 예수의 신성 속에 인성을 포함시켜서 오직 신성만을 가지고 있다는 교리이었다. 실제로 콥트교회는 칼케돈 위원회가 묘사한 단성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온전한 신성과 완벽한 인성이 있다고 믿는데, 예수의 신성과 인성이 "인간의 모습을 가진 하나의 본성(the nature of the incarnate word)"이라 불리는 단성으로 결합되어 있음을 믿는다고 칼케돈 회의에 참석한 알렉산드리아의 시릴(Cyril)에 의해서 거듭 거듭 되풀이 되었다는 것이다. 콥트교회는 철저하게 예수의 인성과 신성이 "섞임 없이, 혼동 없이, 변경 없이(without mingling, without confusion, without alteration)"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콥트교회가 451년의 칼케돈 위원회에서 질투와 오해를 받았다. 나중에 위원회는 정확히 이해를 했다고 정정했으나, 이미 위원들이 콥트교회를 축출하기 원했었고, 이집트 콥트교회를 고립시켜 없애기를 원했으며,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독립심이 강한 콥트교황제도를 폐지시키기 원했다. 이는 서로마제국의 교회들로부터 정치적으로 영향 받기를 거절하는 대가로 콥트교회를 축출하려는 음모였거나, 제25대 콥트교회 디오스코루스 총대주교가 콥트는 단성론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시키기에 전력을 다 하지 않았었거나, 콥트교회는 모든 교회들 사이에서 표현하는 어휘의 의미를 다양하게 설명하여 화해하려는 의도가 부족했었던 것 같다. 이 문제에 대하여 후에 제117대 교황 쉐누다 3세가 "콥트교회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다른 위원들이 중요시하는 언어의 의미와 전문 술어학에 미치는 영향이 콥트에게는 덜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특별히 강조하곤 했다.[16]

왜냐하면, 이미 제1차 니케아 공의회(325년)때 아리우스[17]를 이단자로 선고했었고,

16) http://www.coptic.net

17) 아리우스(Arius, 250경 리비아 출생-336년 콘스탄티노플에서 사망) :알렉산드리아 지역 기독교 공동체의 금욕적·도덕적 지도자. 예수의 인성을 주장하고 예수가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을 지녔다는 신조에 서명하기를 거절하는 그의 가르침 때문에 아리우스주의 라고 알려진 신학사상이 생겼다. 아리우스는 신플라톤주의를 집대성하여 가르침으로써 많은 추종자를 얻었으나, 초기 교회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2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381년)에서 삼위일체를 결의했으며, 예수의 최초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성물을 콘스탄티노플 교회가 가지고 있음을 강조했었다. '교황' 이라는 명칭을 로마 교회의 시리키우스 주교(Siricius 384-399년 재위)가 최초로 사용했으며 그 자신이 다른 주교들의 "형제"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선언했었기 때문이었다. 비잔틴 동방교회도 역시 주교와 대주교 조직보다 교황제도를 제정했다. 그러므로 제2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동방교회는 4개의 지역 관구로 콘스탄티노플 교회,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교황교구' 로 구획했었고, 제3차 에베소공의회(431년)에서는 네스토리우스를 이단으로 선고했었다. 그리고 제4차 칼케돈 공의회(451년)에서 로마교회 교황 레오 1세(440~461년 재위)가 기독교 단성론을 이단으로 규정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신경(信經)의 문안을 제시하여 동방교회의 주교들에게 승인을 받았는데, 그 내용과 사상이 시릴의 사상과 일치하였다. "예수는 메시아로서 독생자이며, 두 개의 본성이 있어 섞이거나 변화하거나 분리되지 않은 채 존재한다. 두 가지 본성이 하나의 유일한 위격과 유일한 실재 안에 함께 내포되어 있다"고 선언되어 있었다. 그 결과 단성론파로 몰리게 된 콥트교회는 분리가 불가피해졌었다(엘리아데3, 2010, 92-97).

콥트교회는 동로마 비잔틴제국 지배 하에서 동방교회나 서방 교회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한 채 이단시되어 박해를 받았다. 교회 사가들은 칼케돈공의회에서 콥트교회가 채택한 신학은 예수의 인성의 부인이 아니라 인성을 더 거룩하게 해보려는 시도였다고 해석하기도 하고, 칼케돈 공의회 회의장에 공교롭게도 이집트 콥트교회의 대표자가 거리가 멀어서인지 때를 잘못 맞추어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설도 있었으나, 결과는 파문을 당했고, 이단으로 몰렸고. 대화와 통신의 부족으로 외롭게 고립되었다.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를 이어받은 비잔틴 제국은 그리스정교회를 바탕으로 하여 문화를 발전시켰으므로, 단성설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이집트 콥트교회를 이단으로 몰아붙이고, 콥트들의 신앙생활을 간섭하며 핍박하고 박해했었다. 신앙생활의 다름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었다. 단성설에 입각한 그들의 신앙생활을 결코 수용하거나 인정하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이집트 콥트들은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갈구하며, 육체적 생명 유지보다도 믿음에 더욱 우선순위를 두고 신앙생활에 집착하거나 은둔생활을 택했었다. 콥트교회는 콥트 공동체가 가지는 교회로서의 역할과 가치와 내적 기도와 명상, 고행 및 수도 생활 등을 더욱 중요시하였다. 오랜 후에, 콥트들은 4-7세기

의 정통교리에 도전하는 주요이단으로 비난을 받았다. (브리태니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사이를 즉 아랍 무슬림군이 침략해 오기 직전의 이 시기를, 그래도 그들에게는 가장 심혈을 쏟았던, 가장 순수했던 기독교 신앙생활을 구가했던, 황금기(golden era)였다고 했다. 이 시기에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택한 훌륭한 순교자들, 신앙생활을 위한 사막 은둔 생활자들, 신학자들, 교회에 관한 학문 연구자들을 무수히 배출하였기 때문이었다. 돈독한 기독교 신앙이 적극적으로 우상숭배를 타파했었고, 자연계를 숭배하는 다신교 숭배자나 무신교자들이 기독교에 유의했었던 시기로 그야말로 신실한 신앙생활에 집착했었던 시기였었다. 콥트공동체는 이집트 전역에 교회들을 세우고 교황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돈독히 하였으므로, 이사야 예언의 두 기둥 중 하나인 제단 쌓기를 신실하게 이루고 있었다.

2. 수도원 설립과 수도원 제도

가. 세계 최초의 수도원

교회를 세워 공동체 생활하는 것 외에 또 다른 이집트 콥트인들의 생활 모습은 자유로이 신앙생활하며 그들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사막의 오아시스나 광야로 들어가 수도생활을 하는 것이었다. 중부 이집트의 테베에서 콥트인들 사이에 수도원(religious house, monastery) 공동체생활을 통한 영성 운동이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사막이나 산속을 헤매며 혼자 사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난 것이다. 3-4세기 때는 이집트 전 지역으로 번창하였다. 비잔틴 제국 정부의 비잔틴 교회의 탄압과 차별은 이집트의 콥트들에게 더욱 열렬한 신앙심을 갖게 했고 은둔 생활을 택하게 했다. 안토니우스가 이집트에 수도원을 설립하였다. 홀로 세상과 격리된 채 은둔 생활하는 것보다 은둔자들이 모여 공동생활을 하는 수도원을 선호하였다. 수도원은 정체성을 찾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기에 적절한 곳이었다. 기독교 영성의 보고였다. 알렉산드리아의 총대주교 아타나시우스가 삼위일체 교리를 니케아 종교 회의에서 관철시킨 후, 그는 자신에게 아리우스 이단에 대항하여 교리 논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준 영적 스승으로 은둔 수도사인 안토니우스를 소개하는 소책자를 발간하였다. 이 '안토니우스의 생애'는 많은 동방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인의 모본이 되었고 알렉산드리아 남쪽 60km 지점의 니트리아(Nitria)에 많은 은둔 수도사들이 이주하는 계기가 되었다. “안토니우스의 생애(356년 이후)’ 라는 책이 일찍이 서유럽에 전해져, 안토니우스가 수도원의 아버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로 존경을 받았다.

나. 수도원 제도 : 정체성과 사명 찾기 위하여

파코미우스는 320년에 테베의 사막에서 수도원 생활을 조직하여, 수도원제도의 규율을 제정하였다. 그들은 복종과 겸손과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가르침을 토대로 세속으로부터의 분리와 스스로에게 가하는 매우 가혹한 금욕주의를 특징으로 했다.

파코미우스(Pachomius)는 남부 이집트의 조그만 촌락에서 286년경에 태어났다. 그가 성장하여 군에 입대한 후, 기독교인이 되었고, 세례를 받은 후, 은둔 수사로 12년 동안 떠돌다가 320년경에 나일 강 동쪽 해변에 있는 타벤니시(Tabennisi)에 최초의 남성 공동체 수도원을 세웠다. 그리고 그의 누이 메리는 그곳의 한 집단의 여성들을 관장하며 수녀원을 만들었다. 이 수도사들의 공동체는 단기간에 아주 강하게 되어 그가 죽기 전(348년)에 테베(Thebae) 지방에 여러 개의 수도원을 보유하게 되었고 수사들의 수도 삼천 명에 달했으며 한 세기 뒤에는 오천 명에 달했다고 할 만큼 그 수가 급증하였다. 수백 개의 수도원과 수천 개의 독방과 동굴들이 이집트의 사막언덕들에 산재했다.

그들의 생활 방식은 파코미우스의 엄격한 수도 회칙에 의해서 정해 졌는데 훗날 제롬(St. Jarome)이 라틴어로 번역하여 알려졌다. 수도사들의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3년간의 시험 기간을 거쳐야 했다. 수도사들은 영적 훈련을 하면서 동시에 농사, 선박건조, 바구니제작, 요와 이불 짜기 등, 노동을 병행 했으며 노동을 통해서 번 수입으로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도와주었다. 수도사들은 금욕적 경건의 등급에 따라 스물네 계층으로 구분 되었고, 각 계층에 헬라어 알파벳 문자로 이름이 붙었다. 이들은 독방 하나를 세 명이 함께 사용했다. 식사는 공동으로 했으나, 식사 도중에는 얼굴을 가린 채 엄격히 침묵을 지켰다. 병든 수도사는 각별히 보호를 받았으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성찬을 거행했다.

파코미우스는 대 수도원장으로서 전체를 감독했으며, 각 수도원 마다 소 수도원장과 청지기가 있었다. 그가 회심한 뒤부터는 한 번도 포식을 하지 않았으며, 50년 동안 돌에 앉아 잠을 잤다. 파코미우스가 콥트어로 쓴 수도규정은 일찍부터 헬라어와 라틴어로 번역되어 널리 유포되었으며, 공동생활양식의 수도원은 그의 제자 에우게니우스에 의하여 멀리 메소포타미아에까지 전하여졌다 한다.

파코미우스가 죽은 뒤, 니트리아(Nitria) 지방에는 테베(Thebae) 지방에 세워졌던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수도원에 조금도 뒤지지 않는 50개의 수도원이 설립되었다. 그들은 인근의 리비아 사막에 사는 은둔 수도자들을 위해 빵 공장을 운영 했으며 후기에는 신학 연구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파코미우스는 단순한 삶, 헌신, 일 그리고 순종으로 규율을 정했으며 이 공동 수도원 제도는 동방 전역과 갈리아 지방, 아일랜드까지 확산 되었다.

니트리아 수도원의 창시자 암몬(Amoun)은 더 남쪽으로 내려가 새로운 은둔 수도사들의 중심지로 첼레(Celle, Kellia)를 설립하였다. 은둔 수도사들은 각기 다른 동굴에서 지냈고 서로의 사생활을 침범하지 않았으며 공동 수도원을 설립하지 않았다. 이들 은둔 수도사들의 수는 많게는 600 명이 넘었고 각 기도 동굴은 공간이 넓어서 서로 보거나 들을 수 없었다.

니트리아의 기도 동굴과 첼레(Celle, Kellia)사막에 점점 많은 은둔 수도사들로 인해 포화 상태가 되자 알렉산드리아 남쪽 100km 지점에 위치한 스케테(Scete, Scetis)가 은둔 수도사들의 또 다른 새로운 영성의 요람이 되었다.

이들은 4세기에서 6세기 까지 은둔 수도사의 삶을 살았는데 '달'을 숭배하는 '베르베르(Berber)' 유목민들에 의해 처참히 순교를 당하였다. 그 후 부터 독거하는 은둔 수도사의 삶 보다는 공동체를 형성 하면서 함께 수도하는 수도원을 건립하여 현재까지 영성을 추구하고 있다. 현재는 이 스케테(Scete)지역(와디 나투룬[18])에 바라무스 수도원과 소리안 수도원, 비쇼이와 마카리우스 수도원이 남아 있다.[19]

바실(St.Basil)은 AD 357년쯤에 이집트의 수도원을 방문하여 보고 배워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수도원 운동의 창시자가 되었으며, 성서를 라틴어로 번역한 제롬(St.Jarome)도 AD 400년경에 이집트를 방문했었으며, 베네딕트(St.Benedict)도 6세기에 파코미우스식의 수도원제도를 모방하여 그 규율을 강화시켰다. 그 외에도 타 지역의 수많은 필그림(pilgrims)들이 "사막의 아버지들"이라고 칭송받으며 수도원 생활을 하는 수도사들을 찾아 와 보고 배워갔다. 콥트들이 북 유럽으로 선교사역도 했다. 한 예로 이집트에서 간 로마 Theban 군단 소속의 Moritz는 스위스 알프스의 작은 마을에서 주민들에게 기독교 사상을 가르쳤으며, 또 다른 Saint로 Theban 군단의 St.Victor는 "Boktor"로 알려진 콥트였다. 콥트의 수도원제도가 북 유럽으로 전파되어 유럽의 종교적, 문화적, 사회적 역사에 현저한 영향을 주었음이 명백하다. 오늘날에도 수도원 생활을 천직 또는 사명으로 알고 수도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20]

---

18) 와디는 사막의 오아시스라는 뜻이고, 와디 나투룬은 이집트의 한 지방이다.
19) 마카리우스 수도원에서 바라무스 수도원 까지 약 26km이고, 바라무스 수도원에서 비쇼이 수도원 까지는 약 6km이며 비쇼이 수도원과 소리안 수도원은 인접해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3절 콥트어 생성과 활용

서아시아에서 그림문자 시대(Pictographs)가 열렸었다. 약 5,000년 전, 즉 BC 3,000년쯤에 서아시아의 수메르(Sumer) 지역에 사는 수메르인(Sumerian)[21]들이 그들의 생각과 말을 그림으로 그려 표현하기 시작했었다. 그리고 쐐기 모양인 설형문자 시대(Cuneiform)로 변화를 일으켰었다. 단어로 표현하는 대신 소리와 음절을 사용하여 그들의 뜻을 상징하기도 했다. 그림을 그려 단어 전체를 표현하는 것과 음절을 혼합하여 좀 더 자상하게 그들의 의사를 표현했다. 수메르인들과 이집트인들은 서로 생산된 물건들을 교환하기위하여 지중해 연안지역을 여행하곤 했었는데, 말로만 하던 대화를 설형문자를 이용하여 기록하기 시작했다. 나일 강(The Nile River) 유역의 이집트인들은 그들 고유의 상형문자(Hieroglyphics)를 창조해냈었다.

그리고 약 1,000년이 지난 후에, 페니키아인(Phoenicians)들이 약 4,000년 전(BC 2,000년) 쯤에 읽고 쓰기 쉽게 문자 체계를 간소화하였다. 말을 음절로 나누어 쓰기(Syllabic Writing)를 시도했다. 문자 체계(writing system)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서로 표현하고 이해하는데 있어서 문어가 구어보다 훨씬 더 어려웠었다. 그들은 구어를 음절로 쪼개어 문어로 썼다. 그 결과 22개 내지 24개의 다른 상징을 음절로 표시했다. 이 음절은 자음(consonant)으로 시작되었고 모음(vowel)으로 끝맺음을 했다. 알파벳(alphabet)이란 단어가 바로 이 음절의 첫 두 상징인 “aleph"와 ”bet“에서 유래되었다. 히브리어(Hebrew)와 아랍어(Arabic)가 옛 페니키아어의 음절 체계를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문어에 속한다.

약 3,000년 전(BC 1,000년) 쯤에 이르러서는 헬라어(고대 그리스어)가 페니키아어의 문자 체계를 채택했다. 의사 표현함에 있어서 어림짐작으로 하는 애매모호함이 줄어들었다. 그 후, 그리스를 뒤이어 지중해 문화권을 장악한 로마제국의 로마인들도 헬라어의 알파벳을 도입하여 변경시켜서 그들 고유의 언어, 라틴어(Latin)를 만들었다. 영어(English)의 알파벳 26글자는 직접 로마자(Roman alphabet)에서 따온 것이다.

1세기에 이집트 기독교인들이 그들 고유의 상형문자에 헬라어 문자를 추가하여 콥트어(Coptic Language)를 만들었다. 콥트어는 민족어이다. 1세기에 만들어졌던 이집트

---

20) http://www.coptic.net/Encyclopedia Coptica: The Christian Coptic Orthodox Church of Egypt

21)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놓인 메소포타미아의 가장 남쪽 부분, 후에 바빌로니아가 된 지역(바그다드 주변에서 페르시아 만에 이르는 지금의 이라크 남부 지역)에 살던 사람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콥트어는 21세기에도 사라지지 않고 제례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아직도 사어화 되지는 않았고, 오히려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1. 콥트어의 생성

콥트어의 생성은 고대 이집트 파라오 시대의 상형문자가 있었기에 창조가 가능했다.

고대 이집트어는 아프리카적 요소에 함어와 셈어가 섞여 발달했다. 아프리카적 요소인 상형문자(히에로글리프,hieroglyph)가 3,000년 이상 사용되어왔었다. 신전의 문자나 칙령 등에 상형문자가 사용되었다. 고왕국시대의 신관(神官)은 상형문자의 간략서체인 신관문자를 만들었다. BC 7세기에는 도상성(圖像性)이 없는 속필문자(速筆文字)인 민용문자가 고안되어 상업 등에 이용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콥트어(Coptic language)가 문자체계로 표현되었기 때문이다.

콥트어는 기독교의 전파와 합하여 이집트인들이 1세기 이후부터 그들의 정체성을 찾기를 갈구하며 그들의 지정의(知情意)를 자유롭게 표현하기 위한 필요에 의하여 그들 스스로 창조한 그들 고유의 언어였다. 기독교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전통적 상형문자만으로는 종교적 신념을 표현하기에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콥트들은 이 상형문자에 그 당시 국제통용어로 사용된 그리스어 알파벳을 포함시켜, 콥트어를 만들어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풍부하게 표현했던 것이다. 그들은 로마제국 시대에 박해와 순교를 많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생활과 신앙생활 그리고 일상생활의 모든 표현을 그들 고유의 언어인 콥트어로 소통하고 기록하여 기독교 문화 황금기를 구가하였다. 이집트인 온 국민을 하나로 응집시키는 데 콥트어가 큰 역할을 했다. 오늘날의 기독교계에도 콥트들이 세운 콥트교회의 공헌이 매우 크다 하겠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된 신·구약 성서(the Holy Bible)가 이미 2세기에 모두 콥트어로 번역되어 있었다. 그 사본들이 오늘날 세계 도처의 도서관이나 박물관이나 대학교에 복사본으로 수장되어 있다. (http://www.coptic.net/EncyclopediaCoptica. 2012.11.17) 이렇듯 로마-비잔틴 제국 시대 콥트들은 헬라어와 콥트어, 두 언어를 모두 다 유용하게 구사했었다.

콥트어는 음소문자이다. 콥트어 문자는 헬라어 자모를 이집트 말에 대한 이두식 표기로서 활용한 것이었다. 헬라어 자모는 24개가 있는데, 24개만으로는 이집트말의 발음체계를 다 표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민용문자(民用文字·:상형문자를 일반 국민이 두루 쓰도록 쉽게 바꾼 문자)인 디모틱문자(Demotic)에서 7개의 글자, Sch(Schei),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F(Fei), Ch(Khei), H(Hori), Dsch(Djanjia), Sh(Shima), Ti(Ti)를 빌려왔다(Meinardus 1999, 283). 즉 그리스문자에서 24개, 이집트 문자에서 7개, 모두 31개의 문자를 차용하여 만든 것으로, 자음과 모음을 모두 표기할 수 있으므로 고음(古音)의 표기에 이용 가치가 높았다. 콥트어는 헬라어의 명사와 형용사도 차용하였으며(김용옥 2010, 55-6), 명사를 남성과 여성으로 분류했다. 초기 단계에서는 접미사를 붙여 동사를 변화시켰다. 그러나 점차 접미사 대신 동사적 명사를 포함한 동사구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형태의 동사를 나타내게 되었다.

Coptic Letters

학자들은 콥트어를 대개 6개 방언으로 나누는데, 이 가운데 4개는 상(上)이집트에서, 나머지 2개는 하(下)이집트에서 사용되었다. 이 방언들은 주로 음운체계에서 차이를 보인다. 주로 상이집트의 나일 강 서쪽 유역에서 쓰인 파이윰 방언은 8세기까지 남아 있었고, 아시우트 주변에서 쓰인 아시우트어 또는 아흐밈어는 4세기가 그 전성기였다. 이 언어로 씌어진 〈요한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문헌이 지금까지 남아있다. 아흐밈어는 상이집트의 아흐밈 시와 그 주변 지역에서 쓰였다. 사히드어는 원래 테베 주변에서 사용된 방언이었지만, 5세기 이후 상이집트 전체의 표준 콥트어가 되었다. 이 언어는 6개 방언 가운데 가장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따라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방언이다. 하이집트의 방언은 바슈무르어와 보하이르어이다. 바슈무르어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고, 보하이르어는 원래 알렉산드리아와 멤피스를 비롯한 하이집트의 서부지역에서 사용되었다. 11세기 이후에도 콥트 교회의 모든 콥트들이 종교적인 목적으로 주로 보하이르어를 사용했다.

2. 콥트어의 활용

헬라시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BC 301-201)때,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70인 역)로 번역되었듯이, 1-2세기에 헬라어로 써진 마가복음서가 콥트어로 완벽하게 번역되었고, 2-3세기에 이미 모든 신약과 구약성서가 다 콥트어로 번역되었다. 예수의 수제자 중의 한 명인 요한의 요한복음서가 콥트어로 기록된 문서로 발견되었다(http://www.coptic.net. 2012.11.17). 인도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알려진, 예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도마(Thomas)의 도마복음서도 콥트어로 번역되어 널리 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혀졌음이 발견되었다. 1945년도에 나그함마디 마을 근처의 파코미아 수도원(Pachomian monastery)에서 발견된 나그함마디 문서(Nag Hammadi library)[22]가 그 당시에 이미 콥트어로 기록되어 있었음을 거듭 증거 했다(김용옥 2008, 27-38).

콥트 문헌을 더 살펴보면, 고대 이집트어의 마지막 단계인 콥트어가 문자로 사용된 이래 1세기부터 7, 8세기 쇠퇴기까지 많은 기독교 유산들이 저술되었다. 대부분 종교적인 작품들로 헬라어를 번역한 저서를 비롯하여 교부 및 동방의 수도원 창시자들이 저술한 독창적인 작품들과 기독교의 초기 영지주의 문서들과 마니교에 관한 자료들까지도 저술되었다.

첫째, 콥트문헌의 최초 형태는 성서의 번역이었다. 안토니우스는 그의 마을 교회에서 마태복음이 낭독되는 것을 듣고 개종했다고 했다. 헬라어를 알지 못했던 안토니우스는 콥트어로 된 성서를 필요로 하였다. 파코미우스 수도원에서는 성직 지망자들에게 성서를 읽고, 암송하는 능력을 요구하였다. 신약과 구약의 콥트어 번역이 초기에는 사히디 방언으로 번역되었으며 후에 보하이르 방언과 중부 이집트의 아크밈 방언 등으로 재(再)번역되었다. 구약은 칠십인 역을 대본으로 하여 번역하였기 때문에 제 2 경전으로 분류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현존하는 역본의 사본은 주로 보하이르 방언으로 된 것들이다. 콥틱어 역본은 연대 문제를 비롯하여 상호관계, 그리고 본문의 형태 등에 대한 문제는 아직도 많은 연구 과제를 남기고 있다.

둘째는 수도원 문서가 콥트어로 써진 최초의 독창적인 문헌은 '사막 교부'로 알려진 안토니우스의 서신들이 있으며 3, 4세기 경 많은 성직자들과 수도사들이 콥트어로 글을 썼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파코미우스(Pachomius)의 "규율서"(rule)를 들 수 있다. 파코미우스의 수도원 '규율집'은 독자적인 수도 생활을 하다가 공동체를 이루게 된 수도사들을 위한 최초의 규칙서인데, 여기에는 특히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성서를 콥트어로 읽을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셋째, 나그함마디 문서이다. 이 문서는 4세기의 파코미우스 수도원 수도사들이 이 지역에서 가톨릭의 정통 신앙을 확립하고 있던 시기에 사용했던 것으로 추측되며, 13

22)나그함마디 문서(Nag Hammadi library)는 모함마드 알리라는 농부가 발견하였다. 12권의 가죽 장정된 파피루스 코덱스로 밀봉된 항아리에 들어있다. 영지주의 문서 52편, 헤르메스주의 문헌(Hermetica · 헤르메티카)의 문서 3편, 그리고 플라톤의 《국가》의 번역본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그함마디 문서 전체의 영어 번역판을 발간한 제임스 로빈슨은 그 책의 서문에서 이 코덱스들이 대주교 아타나시우스가 AD 367년 정경(신약27권)으로 채택되지 못한 문서들이기에 땅 속에 묻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코덱스들의 문서들은 모두 콥트어로 써져 있다. 이들은 모두 그리스어로 된 원본의 콥트어 번역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나그함마디 문서들은 모두 이집트 카이로의 콥트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위키백과)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편의 파피루스 사본들로 이루어져 있다. 사본들 가운데 10개는 콥트어의 사히드 방언으로, 3개는 아크밈 방언과 인접 언어로 써져 있다. 이미 잘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The Sophia of Jesus Christ), 섹스투스 금언집(The Sentences of Sextus), 요한 외경(The Apocryphon of John) 등을 비롯한 나그함마디 문서의 대부분은 헬라어 원본을 번역한 것이다. 사본의 편집 방법은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나그함마디 코덱스 V의 네 개의 '묵시록'처럼 문학적 장르에 따라 편집하기도 하고, VI에 연속으로 실려 있는 세 개의 헤르메스 본문처럼 출처에 따라 편집하기도 하였다.

콥틱어 야고보 편지는 나그함마디 문서 코덱스 I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편지형식으로 나타나 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550일째 승천을 앞두고서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전한 비교(秘敎)를 야고보가 한 성도에게 써 보냈다는 것이다.

나그함마디 문서 가운데 가장 많이 연구된 것은 도마복음서(The Gospel of Thomas)이다. 도마복음서는 나그함마디 코덱스 II에 포함되어 있으며, 공관복음과 평행하는 부분이 학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도마복음서에는 설화나 이적 기사, 그리고 예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설명이 없고, 또한 예수의 수난과 부활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다. 이 복음서는 예수의 말씀들을 모아 놓은 어록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예루살렘의 시릴은 일찍이 도마 복음서를 마니교의 문헌으로 일축해 버리기도 했다.

이밖에도 나그함마디 문서에는 복자 에우그노스의 편지, 세계의 기원에 관하여, 진리의 복음, 운동가 도마서, 아르콘의 본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나그함마디 사본은 카이로에 있는 콥트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사본 I의 일부가 취리히에 있는 칼 융 연구소(Carl Jung Institute)에 소장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융 사본'으로 알려져 있다.

나그함마디 문서가 주목을 받는 또 다른 이유는 비기독교적 영지주의에서 기독교적 영지주의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문헌의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나그함마디 문서에는 기독교를 기원으로 하지 않거나, 적어도 외관상 기독교적 요소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몇 가지 기록이 실려 있다. 에우그노스토스의 편지(Eugnostos the Blessed)가 대표적인 예인데, 여기에는 명백히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밖에도 아담의 묵시록이나 셈의 석의, 그리고 알로게네스(Allogenes) 등도 이에 속한다. 그러나 나그함마디 문서가 영지주의의 비기독교적 기원을 결정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렵다.

끝으로, 또한 신약성서에서 외경으로 분류된 콥트어 바울묵시록이 있다. 콥트어 바울묵시록은 카이로 코덱스 V에 속하는 콥트어 영지주의 문서로, 어린이의 모습을 한 예수에 의해서 여리고에서 바울에게 준 묵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바울이 삼층천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올라갔던 체험을 기록한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부연한 것이다. 그 밖의 자료로는 사막 교부들의 서신과 금언집들이 있고, 초기 교회의 중요한 예배 자료인 전례 문헌 등과 설교, 논문, 교훈집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이집트 기독교도 콥트들은 구어를 문어로 표현한 헬라어와 콥트어, 두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민족(bilingual people)이었다. 콥트어가 이집트 국민을 하나로 만들어 기독교 신앙생활에 몰입하게 했다. 이렇듯 이집트 콥트들은 마가를 초대 교황으로 추대한 이래 쭉 계속 끊어짐 없이 민주적으로 교황을 선출하여 종신제로 이어오고 있었다. 그런데 제 38대 교황 벤자민 1세(Benjamin I, 623-662년)(Meinardus 1999, 273)(도표1)시대에 이르렀을 때, 이집트와 인접한 서아시아 지역 아라비아반도에서는 무함마드가 종교적 성격을 지닌 공동체 즉 움마에 의한 통합을 이루고 있었다. 기독교도들은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그는 모든 신도들이 움마 안에서 평등하다고 하면서도 신분제를 용인하고 노예제도를 폐지하지 않았다. 그는 이슬람 신자 공동체가 관습· 풍속· 인종의 국경을 넘어서서 확대되는 것을 허용했다. 그러므로 아랍인들은 이교도와의 전쟁, 즉 알라의 이름으로 일신교의 완전한 승리를 위해 행해지는 전쟁에 집중하였다. 그들의 첫 시도로 아랍 이슬람군은 서아시아 아라비아 반도에서 비잔틴군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비잔틴군은 636년 야르무크 전투(Battle of Yarmouk)에서 아랍 이슬람군에게 대패했다. 그 후 이슬람군은 팔레스타인,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아르메니아, 이집트를 잇달아 정복함으로서 기독교 세력으로부터 정복지를 빼앗아 이슬람 제국의 영토를 확장시켰다. 639-641년 우마르(Umar)의 지휘로 아랍군이 이집트에 주둔한 비잔틴군을 공격하여 이겼고, 642년에 알렉산드리아 도시를 장악하여 이집트를 완전히 정복하게 되었다.

도표1. 고대 이집트 - 콥트교회 교황

고대 이집트	년도	이집트 정복자 또는 국가
파라오 고왕국 시대: 피라미드가 지어지던 시기 중왕국 시대: 모세 출애굽기 신왕국 시대: 오시리스와 이시스 신화		
	BC 7세기 경 BC 525 BC 332 - BC 30 BC 30 - AD 395	앗시리아 페르시아 마케도니아(그리스) 로마제국
콥트교회 교황(기독교 전파) 제 1대 교황 마가(AD 54 - 68) 제 20대 교황 아타나시우스 1세(AD 328-373)		

d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D 395 - 641	동로마제국(비잔틴 제국)
제 24대 교황 시릴 1세(AD 412 - 444) 제 25대 교황 디오스코로스(AD 444 - 454)		
	AD 619 - 629	페르시아 10년
제 38대 교황 벤자민 1세(AD 623 - 661)		
	AD 639 - 642	비잔틴군과 아랍군 전쟁, 아랍군 승리

※ 콥트교회 교황과 이집트 정복 국가들 : 이집트 콥트기독교의 전파가 BC 7세기 경 앗시리아에게 침략을 당한이래 계속 외국에게 정치 행정 군사력을 빼앗긴 상태에서 형성되었으므로 콥트인들의 생활은 오로지 신앙생활에 의존하였다.

d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3장 이슬람 사회 속의 이집트 콥트

아랍군은 이집트를 포함한 여러 비아랍국가를 정복한 후, 어떻게 지속적으로 통치권을 이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였다. 그들은 정복지의 주민들이 강제성을 느끼지 않으며 아랍제국의 우산 하에 들어 올 수 있도록 유연한 편입정책을 추구하였다. 이를 투영한 정치기본법 세 조건은 모든 정복지에 적용되었으며, 이집트의 콥트에게도 비예외적으로 적용되었다. 첫째 베두인족은 현지인의 농사에 피해를 주지 말 것, 둘째 아랍인 정복자는 현지인 지도자 유명 인사 관리들과 함께 일을 해 나갈 것, 콥트들로 하여금 특별세금을 지불하게 하여 육체와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도록 할 것, 셋째 아라비아반도 내에는 오직 무슬림만 거주 할 것 등이었다. 그러므로 아랍군이 콥트들에게 제시한 조건에서 다음의 4가지 갈등요인을 콥트들은 직면하게 되었다(송경근 2013.6, 57).

1.사회적 갈등 요인 : 아랍어 사용이 장려되고, 콥트어 사용은 제재한다는 정책에 따라, 아랍어를 공용어로 사용해야 한다는 갈등

2.종교적 갈등 요인 : 콥트로 남을 것인지 이슬람으로 개종하여 무슬림으로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갈등.

3.경제적 갈등 요인 : 콥트로 살면 세금(인두세)을 내야하지만,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면 세금이 면제된다는 갈등

4.정치적 갈등 요인 : 아랍제국이 정치와 종교를 구분하지 않는 정교일치주의 사상의 주장과 무슬림이 우월함을 강조하므로, 콥트로 살려면 2등 시민이 된다는 인권차별정책을 감수해야 한다는 갈등

이집트 콥트들은 이슬람 공동체 내에서 지배사회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차별을 넘어 주류사회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콥트어 대신 아랍어를 사용하고, 기독교 대신 이슬람으로 개종하여 무슬림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선택해야하는 기로에 놓여졌다.

제1절 콥트의 이슬람 사회 적응 시도

이집트가 타국에 지배당한 세월의 길이를 비교하여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스-로마-비잔틴 제국의 지배 하에서 약 1,000년 동안의 생활은 헬라어와 콥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시대이었으나, 그러나 실제로 콥트어의 생성이 1세기 이후부터이므로 겨우 약 60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번성했던 언어인데 반하여, 아랍 이슬람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국에 편입된 이후에는 아랍어와 콥트어, 두 언어의 자유로운 통용이 아니라, 콥트어의 사용 대신 아랍어와 이슬람 문화로의 동화라는 현실적 문제와 갈등 속에서 약 1,400년간을 지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콥트어가 살아 있다는 것이다. 아랍화된 아프리카의 다른 지역 민족들의 토속어들은 모두 다 사어가 되어 사라졌다. 오직 콥트어만이 유일하게 21세기에도 소멸되지 않고 살아남아 있다. 어떻게 이 긴 세월 동안을 콥트들은 콥트어 사용의 명맥을 유지시켜 올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콥트 공동체는 1세기 때부터 쭉 민주적으로 교황을 추대하거나 종신제로 선출하여, 교황을 중심으로 단합되어왔다. 그러나 이집트 콥트들의 주장이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제38대 콥트 교황 벤자민 1세(Benzamin I, 623-662 재임기간) 때, 아랍군이 무력으로 비잔틴군을 싸워 이겼기 때문에, 비잔틴군 대신 641년부터는 아랍군이 이집트의 국권을 차지했다(31p,도표1 참조). 아랍인 아므르 빈 알아스가 군영도시 푸스타트를 수도로 건설하고 이집트를 통치하기 시작했다. 아랍인들은 푸스타트 이외에도 알렉산드리아와 아스완 등 주요 도시에 거주하며 조세를 징수하고 수비대를 두었다.

아랍군의 점령 직후에는 이집트 인구의 대다수가 콥트였기 때문에 아랍인과 콥트들 사이에 충돌을 일으킬만한 큰 문제가 없었다. 콥트들은 신중하게 행동하며 조심스럽게 살았다. 그리고 아랍 무슬림들의 특징을 관찰 비교했다.

콥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즉 상하관계(사랑을 바탕으로 한 부자관계)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정체성과 사명을 발견하고 단결력이 있는 이웃관계를 맺어 온, 이집트에 단 하나의 돈독한 콥트 기독교 종교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음에 반하여, 이집트가 이슬람 제국에 편입된 뒤, 이슬람을 받아들이거나, 타 종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한 무슬림들은 복종을 조건으로 한 종속관계의 바탕에서 주변의 이슬람 세계의 무슬림과 복잡한 관계를 갖고 있는 공동체였었다.

초기 이슬람 공동체는 정치와 종교의 영역이 분리되지 않은 정교일치의 국가 체제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집트의 행정 업무가 아랍어가 아니라 헬라어나 콥트어로 행해졌으므로 헬라어와 콥트어에 능숙한 수많은 기독교도 콥트들이 정부 기관의 각 부서에 비서관으로 등용되었다. 우마이야 왕조(661-750)는 수도를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로 옮기고 거의 1세기 동안 이집트 콥트들에게 상당한 관용을 베풀었고 콥트들의 도움을 받으며 존속했다. 이 시대에 아랍어와 헬라어에 능숙한 콥트들이 발탁되었고, 유능한 콥트들이 아랍제국의 행정 업무의 기반을 다졌다.

콥트들에게는 기독교신앙의 정체성이 이미 확고히 뿌리내려져 있었다. 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음은 예수의 제자가 전해준 예수의 말씀 중 특히 “그런즉 가이사의 것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마태복음 22:21)와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마태복음 26:52)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세금(인두세)을 낼 수 있었다. 콥트들이 세금을 내므로 육체와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는다는 조건이었다. 이집트에서는 13-14세기까지도 모든 세금 행정이 콥트 기독교도 관리들의 손에 있었다. 콥트들은 비무슬림이므로 2등 시민이라는 차별 대우는 인내로 감수해야 했으나, 그 대신 콥트교황을 중심으로 교회생활과 수도원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며 콥트들 간의 대화는 콥트어로 할 수 있었다(퀭 2012, 5).

이집트 콥트가 처한 사회 갈등 요인들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들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갈등 요인인 콥트어 미사용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강하게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콥트들은 아랍어를 배워 필요시에 사용하는 두 언어 사용 민족이 되는 것이었다.
2. 종교적 갈등요인에 대하여 콥트들은 가능한 한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으려고 했다. 이슬람 사회에서 그냥 이미 그들이 선택했던 기독교도 콥트로 살기를 원했다.
3. 경제적 갈등 요인의 해결 방법에 대하여는 세금을 지불하는 쪽으로 택하였다. 다만 그들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당하지 않으면서 자유스러운 신앙생활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아랍 정복군이 제시하는 보호세를 낸다는 딤미 제도에 동의했다.
4. 정치적 갈등요인인 인권차별대우에 대하여 과연 인내로 감수할 수 있을지가 가장 우려되었다.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재물을 빼앗길망정, 신앙생활만은 간섭받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2등 시민이라는 차별 대우를 인내로 감수해야 했다.

또 다른 한편의 문제는 만약 콥트가 이슬람으로 개종한다면, 이슬람 사회 속에서 ‘새로 무슬림이 되는 비아랍인들은 어떠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인가’이었다. 비아랍계 사람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아랍인과 비아랍인의 대립관계가 극복되어야했다. 이 문제를 우려하였던 우마르 2세가 개혁을 시도하려고, 상호 이해의 정치를 펼치는 노력을 하였다.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행정 개혁을 실시했고, 조세 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우마르 2세는 39세의 나이로 운명했고, 그의 후계자 중에는 그에 필적할 만한 인물이 없었다. 결국 아랍 제국은 위기를 맞아 반란과 암살 사건이 일어났다. 계속 테러가 발생될 수 있다는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을 남기게 되었음을 무슬림들이 보여주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2절 이슬람 제국의 시작

1. 무함마드와 이슬람 공동체, 움마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571년경-632년)의 고향인 메카는 아라비아 반도 중부, 홍해 연안에서 약 80 km 지점의 골짜기에 위치하는 도시였다. 인도양에서 지중해 안에 이르는 대상로(隊商路)의 요지였다. 메카의 지배 계급은 5세기 말쯤 부근 황야에서 온 쿠라이시(Quraysh) 부족이었으며, 무함마드는 그 중의 하심 씨족 출신이었다. 당시 아라비아 각지에는 유대인들과 기독교 신자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사바인들도 아라비아에 거주하였고 이들은 서로 종교적인 영향을 주고받았다. 신성한 달[23]이라 불리던 9월에 금식을 행하는 것은 사바인의 종교적 영향이었다. 유대인들과 기독교 신자들의 영향으로 유일신 사상이 아라비아 반도에 전해지긴 했으나, 대부분은 여전히 다신교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 카바(ka'ba) 신전에는 360개 정도의 우상들이 존재했는데, 그 중 가장 강한 신을 알라(Allah)라고 불렀다.[24] 무함마드가 살던 시대에는 예수와 마리아도 카바 신전에서 숭배되던 우상들 중에 하나였다. 다산과 능력을 상징하는 여신들 중에 마리아가 포함되어 있었다.

목동이었던 무함마드는 가난했던 삼촌 아부 탈리브를 생각하여 수익성이 좋은 직업을 구했고, 삼촌 아부 탈리브의 소개로 부자였던 과부 하디자의 고용인으로 들어가, 그녀를 대신해 시리아 지방으로 대상 무역을 떠나게 되었다. 무함마드의 이 무역은 큰 성공을 거두고 샴 지방의 특산품을 구해 메카로 돌아왔다. 무함마드는 25세 때 15살 연상인 하디자와 결혼을 하였고, 부자였던 그녀와의 결혼은 무함마드에게 부와 명예를 주었다.

경제적인 부유함으로는 여유로웠으나, 무함마드는 금식하며 사색하며 진리를 찾기 시작했다. 아랍인의 신앙의 정체성을 찾기 시작했다. 사실 이러한 종교적 감수성은 그의 유년 시절부터 타고난 것이었다. 무함마드가 어린이일 때에 그의 삼촌은 카바 신전의 관리인이었다.[25] 카바 신전에서는 검은 돌을 숭배하였는데, 이를 본 무함마드는

---

23) 신성한 달 : 라마단(Ramadan), 2012년에는 라마단 기간이 7월 20일-8월 18일이고, 하지(Haji) 기간은 10월 27일-31일이다.(2012년 사우디 달력). 이슬람 최대의 성지순례 행사인 '하지(Hajj)' 기간에는 전 세계에서 온 무슬림들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의 카바신전 앞에서 기도한다.

24) http://ko.wikipedia.org/wiki/무함마드

25) 이슬람 이전 시대에도 이 흑석 주위를 순행하는 관습은 오늘날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엘리아데, 세계종교사상사3, 107p)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과연 검은 돌이 신인가?’라는 의문을 가졌었다(김경묵, 1986)고 한다.

무함마드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의 ‘경전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 알게 되었고, 자신의 동족 아랍 사람들에게 경전이 없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다. 그가 히라 산(山) 동굴(609-610년경)에서 명상에 잠겨있었을 때, "무함마드여, 그대는 알라의 사도이다(라술 알라 Rasul Allah)"라는 계시를 받았다. 무함마드는 ‘진’이라는 악령이 자신에게 나타난 줄 알고, 겁에 질려 집으로 돌아왔는데, 부인 하디자가 무함마드를 진정시키고 자신의 사촌이자 에비온파(Ebionites)의 사제였던 와라카 이븐 나우팔에게가 사정을 설명하였다. 와라카 이븐 나우팔은 무함마드가 만난 것이 천사 가브리엘[26]이었다며, 무함마드가 예언자라고 말하였다. 하디자는 집으로 돌아와 무함마드 앞에 무릎을 꿇고 최초의 무슬림이 되었다.

첫 계시를 받은 후 점차 무함마드의 양자들과 노예 그리고 친한 친구들이 무슬림으로 개종하였고, 무함마드는 자신이 '알라의 사자'(라술 알라 Rasul Allah)라는 정체성으로 자신의 친구와 친족을 모아놓고, 하늘의 계시에 의하여 유일신 알라의 전지전능함, 만물의 창조, 최후의 심판 및 천국과 지옥 등을 주장하고 설교를 하였다.

대부분의 친구와 친족들이 그를 비난하고 모욕하며 무시했으므로, 무함마드는 메카로 오는 순례 객들에게 유일신 사상을 전하기 시작했다. 메카의 카바 신전을 지키며 순례 객들로 부터 수입을 얻었던 부족원들이 무함마드를 탄압하기 시작했다. 그는 잡신을 배격하고, 알라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설교함으로써 부유한 상인들의 미움을 받았다. 그러므로 신도들을 야스리브(Yathrib, 후에 메디나(Medina)로 불림)로 피난시키고, 자기 혼자 메카(Mecca)에 남아 포교 활동을 계속하다가, 622년 그도 메카를 떠나 메디나로 갔다. 이것을 ‘이주’를 뜻하는 '헤지라(Hijrah)'라 하며 그 해를 이슬람의 역사적 분기점이 된 이슬람의 기원으로 하였다.

메디나로 옮긴 후, 이슬람을 재정립하고 결속력을 굳히게 만드는 몇 가지 사건들이 발생했다. 첫째, 메디나로의 이주는 성공했지만, 무함마드가 창시한 신흥 종교는 크게 환영을 받지 못했다. 둘째, 무함마드는 메디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만은 자신을 따뜻하게 환대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대인이나 무함마드 일행이나 모두 경전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우호적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예상을 깨고 유대인들은 그를 어리석은 협잡꾼이라고 경멸했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무함마드의 경전, 즉 하늘에서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코란에 고

26) 천사 가브리엘 : 성경에 나오는 대천사,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으로, 계시를 담당하였으며, 신약성서에서는 예수의 탄생을 마리아에게 알리는 등 네 번의 중대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스란히 반영되었다. 시적이고 신비적인 분위기를 풍기던 어조가 그때부터는 정치적이고 율법적인 색채를 띠기 시작했다. 메디나에 거주했던 시기(622-630년)에 무함마드는 이슬람을 정치와 신앙의 공동체인 '움마(Ummah)'로 발전시켰고 이슬람 사원도 건축했다.

메디나 시대에 이슬람의 예언자이며, 정치적 지배자, 무장(武將)이기도 한 그는 계속 하늘의 계시를 전하였다. 한편 종교법, 사회적·경제적 여러 규정을 정함과 동시에 무함마드가 메카와 시리아의 통상로를 지나는 카라반들을 습격함에 따라 메카인들의 증오와 적개심은 갈수록 깊어졌다. 그러나 624년 해마다 메디나를 공격하는 메카 군을 메디나 남서의 바드르 전투에서 격파함으로써 무슬림의 사기를 크게 높였다. 627년 3월, 바드르 전투는 이슬람을 방어적 위치에서 공격적 위치로 바꾸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 628년 4월에 새로운 계시(코란 48:27)를 받은 그는 신자들의 카바 순례를 승인하였다. 630년 메카에 입성하여 카바 신전의 우상을 모두 파괴하고, 그는 "진리는 왔고, 거짓은 멸망하였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슬람 신앙을 포교하는 데는 나라의 힘이 강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정복 전쟁을 계속해 아라비아 반도 대부분을 통일하였다. 632년 아라비아 반도 밖으로 이슬람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원정을 계획하던 중 병사하였다. 그의 사상은 코란 속에 잘 나타나 있다.

2. 코란의 가르침

BC 4세기부터 AD 7세기 사이에 중동지역에서 널리 쓰인 서부 아람어 방언이 아랍어 표준말이 되었다. 아랍인들이 알파벳을 갖기 이전부터 구어(口語)시(詩) 전통이 매우 발달했었다. 구어로 만들어진 시는 기억에 의해 세대와 세대 간으로 이어졌다. 코란도 예언자 무함마드의 사후 15년 동안은 오로지 말로만 존재했었다. 칼리프 오스만('Othman, 644-656)이 구두 전승이 위험하다고 느껴, 코란의 편찬을 지시했다. 7세기에는 아랍문자의 자음과 장모음만을 사용하여 기록했다. 그래서 단모음은 읽는 사람들마다 발음이 달랐다. 단어에 모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자음으로만 된 단어인 경우는 혼란이 더 심각하였다. 그래서 후에 글자 위에 기호를 더하여 소리를 구별하였고, 최종적으로 933년 현재의 모습의 코란이 완성되었다. 초기 무슬림 세대들인 아랍 선조들은 코란을 필사하는데 전 생애를 바쳤었다. 메카 정복과 이슬람 신정국가의 창설은 예언자 무함마드의 정치적 천재성이 종교적 천재성에 못지않았음을 보여주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무함마드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유대교와 기독교의 종교사상 및 실천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기독교에 관한 그의 지식은 대체로 피상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가 예수와 마리아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양자 모두 창조된 존재이므로(코란 3:59) 신적 본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언명했다(코란 5:16-20). 예수의 십자가형과 죽음을 부정했다(코란 4:157). 무함마드는 신과 예수와 마라아를 기독교의 3신으로 언급했다.

무슬림들에게 코란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성서와 차원이 다르다. 예수의 경우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지만 무슬림들은 말씀이 경전이 되어서 코란이 생겼다고 말한다. 무함마드가 말씀을 받기 이전에 하늘에는 이미 경전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무함마드가 그 경전을 낭송하도록 명령을 받았고, 하늘에 있던 완벽한 경전이 이 세상에서 유형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기독교식 표현을 빌리자면, 코란은 '성육신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슬람의 전승에 따르면, 무함마드는 글자를 모르는 문맹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코란의 계시가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되고 있다.

무함마드가 가르치는 알라는 유일신으로서 완전히 자유롭고 전지전능한 신이다. 알라는 하늘과 땅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의 창조자이며, 뜻하는 대로 계속해서 창조하시는 분이다(코란 35:1). 밤과 낮이 바뀌는 것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배가 바다 위를 떠다니는 것도 그의 연속적 창조의 덕이다(코란 2:164). 알라는 자기모순을 범할 자유까지도 지니고 있다. 알라는 자비와 연민으로 가득 찬 분이며, 그의 예언자는 선행하는 두 개의 일신교 즉 유대교와 기독교보다 훨씬 더 간명한 종교를 계시 받았다. 이슬람은 교회가 없으며 성직자도 없다.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러나 종교생활이 법적 규범인 관습적 제도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다섯 가지 '신앙의 기둥'이 그것이다. 첫 번째 기둥은 샬라트(salat), 즉 예배 또는 기도로, 매일 다섯 차례씩 땅바닥에 바싹 엎드려 행하는 기도이다. 두 번째는 자카트(zakat), 즉 법으로 정해진 희사이다. 세 번째 기둥은 사움(saum), 즉 라마단(Ramadan) 기간 중 여명부터 일몰까지 행하는 단식이다. 네 번째는 하지(hajj), 즉 메카 순례이며, 다섯 번째는 샤하다(shahadah), 즉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이다." 라는 신앙고백을 반복하여 봉창하는 의식이다. 인간은 약한 존재이다. 원죄의 결과가 아니라 인간이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세상의 어떤 것도 자유롭지 못하며, 신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실수하기 쉬운 인간의 약점을 고려하여 '코란'은 고행이라든가 수도사 생활 같은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코란'은 성인이나 완벽한 덕성을 갖춘 자가 아니라 모든 보통 사람들을 향해 설해진 것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3절 콥트와 이슬람 신앙의 정체성 비교

콥트인과 이슬람의 존재적 신앙의 정체성이 같은지 다른지, 다르다면 어떻게 표현되는지, 왜 콥트인들의 일부 후예들은 7세기 이래 지금까지 약 1400년 동안을 이슬람으로 개종하여 동화하지 않고 어렵고 고독한 삶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들의 삶의 존재적 신앙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하여 관심이 쏠린다. 그들의 삶의 의미가 신앙생활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유대교와 콥트 기독교와 이슬람의 유일신은 같은 신인지, 만약 다르다면 그들의 공통점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야훼와 루비나 그리고 이슬람의 유일신 알라가 일치하는지를 살펴본다는 것이 쉽지는 않으나 시도해 보는 것만으로도 매우 의미가 있다. 어떤 유일신에 의존하는가에 따라 정체성이 달라지고, 그 정체성에 따라 문화가 달리 표현되기 때문이다. 위의 내용을 다음의 도표2와 같이 정리하였다.

도표2. 유대교, 콥트 기독교, 이슬람.

야훼	유대교	아브라함과 이삭, 모세,	구약성서, 메시아를 기다림.
루비나	콥트 기독교	아브라함과 이삭, 모세, 예수	구약성서와 신약성서
알라	이슬람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무함마드	코란

구약성서는 메시아사상을 내포하고 있고, 유대인은 지금도 예수가 아닌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유대인은 예수의 신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로마인에 의뢰하여 신성모독 죄로 예수를 죽였다. 기독교는 부활 승천한 예수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고 의존한다. 무슬림들은 기도시간마다 “라일라하 일라 알라”(Lailaha illa Allah)라고 낭송한다. “알라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뜻이다. 이 고백이 이슬람 신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유일신의 이름이 ‘야훼’이든, ‘루비나’이든, 또는 ‘알라’이든,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님’이다.

무슬림은 모든 관계를 계약으로 생각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계약으로 생각한다. 이슬람은 의무와 복종의 종교이다. 의무를 다하고 복종할 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복음의 종교, 기독교와 다르다. 이슬람에는 원죄라는 개념이 없다. 누구나 아담처럼 잘못을 저지르지만 아담과 같이 스스로의 명예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자구책이 있다는 뜻이다. 그 자구책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이슬람이 요구하는 다섯 개의 기둥을 잘 지키는 것이다. 언제나 인간적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하는 종교가 이슬람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 모세와 무함마드의 공통점과 다른 점

모세는 이집트에서 태어나 이집트 왕족 교육을 받았고, 시나이 반도에서 40년간을 베두인 생활을 하던 중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80세에 이집트로 되돌아와 유대인들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귀향했다. 모세는 모세5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남겼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서 태어나 자란 무함마드는 글을 읽을 줄도 몰랐으나,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받은 '알라'의 계시 내용과 계율 등을 모아 114장 6, 342 구절을 외워서 암송하여 구전으로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을 전달시켰다.

모세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에 정착하기 위하여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위를 나타냈다.

무함마드는 가브리엘 천사에게서 음성과 지시를 듣고 계시를 전달하고 무력으로 이웃백성을 정복하는 행위를 실행했다. 그의 후예들도 무함마드처럼 무력으로 이웃 나라들을 침략하여 정복했다.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던 비잔틴 군과 3년 동안 싸워서 이집트를 정복했다.

(2) '하나님의 아들'과 '알라의 사자'라는 정체성

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많은 아브라함의 자손, 그들 중 이삭의 후예는 유대인들이 되고, 이스마엘의 후예는 아랍인들이 되었다. 무함마드의 조상은 5세기쯤 메카 지역으로 이동했던 한 부족이었다.

이슬람에서 신은 유일하며 절대적이고 전지전능하신 인격신이며, 우주의 창조주로서 인간과 그의 역사의 절대적 지배자이며, 동시에 인간에게는 자비롭고 자애로운 존재다. 끊임없이 이 신에 순종하고 신의 뜻을 이루려고 행동하고 생활하는 것, 거기서 인간의 안전이 있고 참된 실존이 있으며 내세의 구원이 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의 근원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 됨이 성서의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다. 예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오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느리라(요 14:16). 예수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심이라(디도서 2:14)." 우리를 구원해 주고, 영생을 얻게 해주실 목적으로 오셨다. "하나님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하사 독생자(獨生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滅亡)치 않고 영생(永生)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한복음 3:16-18).” 라고 신약성서에 기록되어 있다.

(3) 이슬람과 콥트 기독교의 공통점과 다른 점

이슬람과 기독교의 공통점을 든다면 첫째가 종교유형이다. 종교학적으로 말해서 ‘예루살렘형 종교’에 해당 한다. 인격신 신앙을 가지며 제정(制定)이 엄격히 분리되지 않는 경향을 갖고 현세 참여적 성격이 강하다. 둘째, 유일신 신앙이다. 신에 대한 이해가 다신교적이지 않다. 그래서 신 사이의 갈등은 없다. 셋째,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모세, 그 후 예언자들로 이어지는 계보를 공유한다. 이슬람에서는 예수도 무함마드 이전의 가장 위대한 예언자로 인정한다. 그리고 종말신앙과 죽은 자의 부활을 인정한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반면에, 이슬람과 기독교의 다른 점을 든다면, 첫째, 이슬람은 기독교가 예수를 참 신이며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 한다 이슬람은 절대적 유일신 신앙에 입각해서 신격에 해당하는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를 예언자 중 한 명으로 본다. 예수의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 이슬람은 알라가 예수를 십자가 처형을 받기 전 하늘로 데려갔다고 믿는다. 둘째, 기독교는 무함마드에 대한 계시를 인정하지 않는다. 기독교는 예수를 통해서 최종적인 계시가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으며, 이슬람은 무함마드에게 최종적인 계시가 임했다고 믿는다. 셋째, 기독교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신이라는 삼위일체를 주요 교리로 채택하지만, 이슬람에서는 알라 외에는 신이 없으며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넷째, 종말신앙도 기독교는 예수가 재림을 하여 최후의 심판관이 되지만, 이슬람에서는 알라가 최후의 심판관이다. 다섯째, 이슬람은 단순한 신앙체계가 아니라, ‘인간의 모든 분야를 포함하는 전체’이고 종교와 세속 쌍방을 모두 포괄하는 ‘신앙과 실천의 체계’이다. 기독교 사회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고 있는데, 이슬람 사회는 종교를 바탕으로 하여 ‘샤리아(이슬람 법)’에 의해 통치되는 정교(政敎)일치(一致)의 사회다. 이것이 이슬람의 가장 큰 특징이다

즉, 이슬람은 무함마드에게 계시된 알라의 종교이며, 원죄의 개념이 없고, 믿음과 행동의 종교이다. 믿음은 신조를 구성하고, 이 신조는 이슬람법 이행의 원리이며 원천이다. 행동은 샤리아(이슬람법)를 구성한다. 이슬람 구원의 원리는 영원한 구원과 소망을 얻기 위해 인간이 이 현세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샤리아의 법칙에 따라 하나님께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복종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가 바로 메시아이며,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믿는다. 그러기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며, 여러 많은 제자들이 기록한 신약성서를 귀히 여기고 있다. 누구나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예수의 중보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예수를 믿어야 부활이 가능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세울 수 있다. 이집트 콥트 기독교인들은 특히 예수의 신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십자가의 의미에 의존한다.

대부분의 이집트 콥트인들이 생존을 위하여 또는 사회 풍조에 따라 이슬람으로 개종을 했다. 그러나 아직도 남은 자들이 꽤 많다. 그 남은 자들, 이집트 기독교 콥트인들이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아야 한다. 추측되는 그 첫째 이유는, 그들은 고대 이집트 문화를 이룬 파라오의 후손이라는 자긍심이 강하다. 콥트인이 가장 순수한 이집트인 후손이라는 것이다. 고대 이집트의 장례문화인 부활을 믿고 있다. 둘째, 그들은 4-7세기 사이를 즉 아랍군이 침략해 오기 전의 비잔틴 제국의 지배 하에서 신음했던 시기, 즉 신앙생활의 황금기(golden era), 신앙의 고수를 위해 죽음을 택했던 훌륭한 순교자들, 신앙생활을 위한 은둔 생활자들, 신학자들, 교회에 관한 학문 연구자들을 가장 많이 배출했던 시기를 기념한다. 돈독한 기독교 믿음 신앙이 적극적으로 우상숭배를 타파했고 자연계를 숭배하는 다신교 숭배자나 무신교자들이 기독교에 유의하는 시기로 신앙생활에 가장 순수하게 집착했던 시기였었다. 제아무리 비잔틴 제국이 이집트 콥트교인들의 신앙생활의 차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이단으로 단죄했었으나, 그러면 그럴수록 더 콥트교인들은 교회와 기도원을 중심으로 공동체 생활로 응집하며, Didascalia(12사도 교훈집)[27]에 의하여 매주 주일에 정기적으로 모여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하고 친교를 했음을 계속 따르려 한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무슬림이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고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으로는 믿지만, 콥트인들이 구원의 은혜에서 발견하는 친밀한 '아바 하나님'[28]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슬림들에게는 믿음에 의한 구원이 이해하기 힘든 개념이다. 무슬림들은 기독교 성서를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왜 성서에는 네 개의 복음서가 있는지, 왜 성서에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예수는 아

27)「사도교훈」(Didascalia Apostolorum) : " 가르친다 " 는 말에서 " 교리 " 라는 단어가 나왔다.
didascalia : didake (신약성경) → doctrina (라틴어) → doctrine(영어) → 교리(敎理)
28) 하나님을 아바(Abba) 아버지라 부른다. (눅 10:22, 마 11:27, 눅 22:29)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람어로 말씀하셨는데, 왜 성서는 헬라어로 쓰였는지,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성서가 경전이 될 수 있는지, 성서는 여러 명의 사람들에 의해 쓰였다. 따라서 무슬림들은 사람이 쓴 책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가 될 수 있는 건지 의아해 한다. 무슬림들에게 더욱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는 예수이다. 무함마드는 자신이 최후의 선지자이며 코란은 하나님의 최종 말씀이라는 전제하에 이슬람의 모든 교리를 귀속시켰다. 무함마드에게 예수는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일뿐이지, 예수가 알파와 오메가는 아니었다. 무슬림들은 예수를 존경하며 예수가 일으킨 기적도 인정하지만 숭배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 선지자가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수는 있지만, 임마누엘(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정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코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들은 그를 살해하지 아니했으며 그와 같은 형상을 만들었을 뿐이라(제4장 니싸아:157). 이슬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나 선지자가 죄인처럼 처형당했다는 사실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만일 예수가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무슬림의 관점에서 예수는 완전히 실패자일 뿐이다. 무함마드가 메디나와 메카에서 습격하여 거둔 승리야 말로 그가 선지자임을 확고히 해 주는 증거였다. 그러나 예수는 구약성서에서 예언한 모든 예언들을 다 이루는 업적을 신약 성서의 기록으로 알 수 있다. 무함마드는 이스마엘의 후예라는 것 이외에 성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인다.

죽음에 임박한 무함마드는 자신의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았다고 한다. 움마의 통일을 지키기 위해 고령인 아부 바크르가 후계자로 선출되었다. 2년 후에는, 우마르(Umar, 634-44)가 지명되었다. 우마르가 한 페르시아인 노예에게 암살당하자, 우스만(Uthman, 644-656)을 칼리프로 선출했다. 그러나 우스만이 이집트와 이라크 주둔지의 베두인들에게 피살되자 메디나 사람들은 알리(shiat Ali)를 칼리프라고 선언했다. 그런데 시리아의 총독 무아위야(Muawiya I, 661-80)는 알리를 칼리프로 인정하지 않았다. 661년 알리가 암살당하자, 알리의 장남 하산(Hasan ibn Ali)을 칼리프로 선언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었던 무아위야는 하산을 잘 설득하여 그의 지위를 포기하도록 하는 데에 성공을 하는 유능한 군사 지도자이자 교활한 정치가였다. 그는 이슬람제국을 재편하고 우마이야 왕조(661-750)를 세웠다.

이렇듯, 무함마드 사후 30년이 지나는 동안, 후계자가 순조롭게 위임되지 않고 피살, 암살, 포기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움마는 세 개의 분파[29]로 분열하게 되었으며

29) 신도 가운데 다수파는 순니파(Sunnites), 즉 순나(Sunna, 관행, 전통)의 신봉자들이며 이들은 당대 칼리프들에게 복종해 왔다. 시아파는 알리의 혈통에 충성을 서약한 자들이다. 하와리지파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 상태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하나의 조직으로 움직이는 이집트의 콥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도표3.이집트의 콥트 교황

콥트교회 교황	년도	이집트 정복자 또는 국가
제 38대 벤자민 1세 AD 623 - 661		
	AD 639 - 644 AD 644 - 656 AD 656 - 661	우마르(Umar) 오스만(Othman) 알리(Shiat Ali)
제 39대 아가톤 AD 662 - 680		
	AD 661 - 750	무아위야, 우마이야 왕조, 수도: 다마스쿠스
제 46대 카일 1세 AD 743 - 767		
	AD 750 - 1258	아바스[30]왕조, 수도 : 바그다드
제 70대 가브리엘 2세 AD 1131 - 1145		
	AD 969 - 1171 AD 1096 - 1291	파티마 왕조[31][Fatimid dynasty]이스마일 시아파 십자군 전쟁 1-9차 186년 동안
제 73대 마가 3세 AD 1166 - 1189		
	AD 1171 - 1250	아이유비 왕조(Ayyubids)
제 75대 시릴 3세 AD 1235 - 1243		
제 76대 아타나시우스 3세 AD 1250 - 1261		
	AD 1250 - 1517	맘룩 왕조(Mamlukes) : 몽고 침입
제 94대 존 13세 AD 1484 - 1524		
	AD 1517 - 1798	오스만 터키
제108대 마가 8세 AD 1796 - 1809		
	AD 1798 - 1801 AD 1801 - 1882	프랑스의 나폴레옹 오스만 제국의 무함마드 알리
제 112대 시릴 5세 AD 1874 -1927		
	AD 1882 - 1922 AD 1922년	영국 이슬람 국가로 헌법 공포
제 113대 존 19세 AD 1928 - 1942		
	AD 1936 - 1952	파루크 왕조
제 115대 조셉 2세 AD 1946 - 1956		
	AD 1952 - 현재	이집트 아랍 공화국
제 116대 시릴 6세 AD 1959 - 1971		나세르
제 117대 쉐누다 3세 AD 1971 - 2012		사다트, 무바라크
제 118대 타와드로스2세 AD 2012 - 현재		무르시, 엘시시

(이탈파)는 오직 신자 공동체(움마)만이 칼리프를 선출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세 분파는 나름대로 모두 이슬람의 종교제도와 신학 및 신비주의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다.

30) 아불 아바스(Abu' l Abbās)가 우마이야 왕조를 무너뜨리고 750년에 세운 왕조. 이라크를 중심으로 서아시아를 지배하였으며 동서 문화가 융합된 이슬람 문화의 황금시대를 이룩하였다. 1258년에 훌라구가 이끄는 몽골군에 멸망하였다

31) 909년부터 1171년까지 북아프리카에서 이집트, 시리아까지를 지배하던 이슬람 왕조. 지중해, 북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콥트교회 교황과 이집트 정복 국가들 : 콥트교회는 교황 제1대부터 순조롭게 계속 제118대를 이어오고 있는데, 이집트를 정복한 국가들은 여러 번 바뀌었다.

제4절 이슬람 지배 왕조 속의 콥트의 언어

1. 이슬람 왕조와 콥트의 언어

우마이야 왕조(Umayyad 661-750)때에는 수도를 다마스쿠스로 정하고 전제군주와 율법을 중심으로 삼은 국가주의인 '아랍 제국주의' 즉 '아랍 국가주의'로 연결되었다. 그러나 아바스 왕조(Abbasid 750-1258)때에는 수도를 바그다드로 옮겼고, 이슬람을 '고전적 이슬람 세계 종교'로 등장시켰으며, 이는 '범이슬람주의'에 영향을 주었다. '이슬람교도는 평등하다'는 이슬람법으로 통치하고 국제적인 이슬람제국을 세웠다. 이때, 즉 동시대에, 이집트의 콥트들은 제38대 밴자민1세 교황(Benjamin I, 623-62)에서부터 제76대 아타나시우스3세(Arthanasius III, 1250-61)에 이르는 교황을 민주적으로 선출하여 종신제 지도자로 세우고, 그들은 필요와 상황에 따라 콥트어와 아랍어로 의사소통을 하며 교회생활과 수도원생활에 치중하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다.

8세기부터 사회적인 갈등요인이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슬람주의가 강화되면서 이슬람으로 개종이 장려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콥트들이 개종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그들의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는 있었다. 단 콥트교회 안에서의 예배는 허락이 되었으나, 무슬림에게 전도는 금지되었고, 무슬림들이 거주하는 도시에서의 기독교 예배행위도 금지되었다. 기독교 선교 활동을 본질적으로 막았다. 즉 기독교 신앙을 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어디서나 공적인 곳에서는 콥트어 보다는 아랍어를 사용하도록 했다. 점진적으로 아랍어가 행정상 공용어임이 보편화되고 서서히 인정되었다.

로마제국 시대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되기 전에는 박해에 시달리며 순교를 당하기도 하였고, 기독교가 공인되었지만 비잔틴 시대에는 이단이라 하여 배척을 당했었을 지라도, 콥트어와 헬라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며 그들 스스로의 신앙생활에는 자유

아프리카의 무역을 독점하였으나 아이유브 왕조의 창시자 살라딘에게 멸망하였다.(브리태니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가 보장되어 있었으나(제2장 참조), 아랍 이슬람의 지배 하에서는 콥트어로 의사표현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시되었으므로 점점 콥트어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되었다. 997년 제 63대 콥트교황 필로테우스(Philotheus) 때에는 칼리프 알-하킴(Caliph al-Hakim)이 공식적으로 콥트어를 의사소통을 위한 구두어로 사용하는 것조차 아예 금지시켰다. 996년부터 1020년 사이에는 알-하킴이 책정한 규율에 따라서 여러 콥트교회가 파괴되었고, 많은 콥트인들이 토지 소유권을 빼앗기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이 시기에 많은 콥트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였다(Makari 2007, 44). 칼리프 알-하킴은, 그의 어머니가 기독교도인데도, 콥트들을 미워하여 아주 심한 박해를 가한 사람이었다. 무슬림 역사가 알-마끄리지(Al-Maqrizi)에 의하면, 그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무거운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게 하였고, 말을 타고 다니는 것을 금지시켰으며, 노새나 당나귀를 타게 했고, 기독교인은 다 검은 색 터번을 쓰도록 강요"했다고 한다. 기독교도들은 허리둘레에 구별되는 수건을 매도록 명령받았고 나중에는 외투 앞뒤로 커다란 노란 헝겊을 달아서 자신이 기독교도임을 표시해야 했고 머리도 앞머리를 짧게 깎아야 했으며, 길 갈 때 길 중앙으로 다녀서는 안 되며 길을 가다 무슬림을 만나면 길을 양보해 주어야 했다. 이렇듯 종교정치사회적 제재는 차별정책으로 나타났다. 콥트는 2등 시민의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굴욕감이 고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콥트들은 그들의 신앙을 더 중요시했으므로, 아랍군이 제시하는 법을 묵묵히 지키려고 노력했다.

경제적 제재가 심각하게 진행될수록 점진적으로 이집트의 기독교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콥트들이 그들의 관습과 문화를 고수하며 그들의 기독교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경제적 갈등 요인인 인두세 지불의 약속을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가 가중되었다. 교회의 예배에 참여할 때에는 두 배의 세금을 내야만 참여를 가능하게 했다. 기독교인이라는 세금의 의무는 그가 죽었을 때라야 끝이 났다. 그러나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즉시 모든 무거운 세금에서 면제되었다. 반면 이슬람으로의 개종을 다시 철회할 수는 없었으며, 무슬림이 된 후에 타종교로의 배교는 죽음의 형벌을 의미했다.

이집트에 아랍화의 촉진은 이브라힘(Saad Eddin Ibrahim)이 지적한 세 가지 결정적인 요인이 있었다. 첫째는 7-13세기 사이에 아라비아 반도에서 계속적으로 아랍인들을 대거 이주하였다. 둘째, 이슬람으로 개종한 이집트인들을 타 지역으로 분산시켰다. 셋째는 적극적인 아랍어 사용 권장이었다. 콥트어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됨으로 콥트들은 스스로 고심을 하게 되었다. 콥트어가 그들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이었기 때문이었다. 콥트어는 콥트들만의 언어였고, 5개의 지방어로 나뉘어져 있었다. 즉, 사이딕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Sa'idic), 보하이릭(Bohairic), 파이우믹(Fayyumic), 아크흐미믹(Akhmimic), 그리고 수바크흐미믹(Subakhmimic)이었다. 단지 보하이르어(Bohairic)만이 콥트교회에서 예배시의 언어로 사용이 허용되어졌다(제2장 참조). 비록 9세기까지도 사이딕(Sa'idic)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콥트어였지만, 그 후로는 보하이르어(Bohairic)로 대치되었고, 12세기, 1131년에 이르러서는 제70대 교황 가브리엘 2세(Gabriel II)도 어쩔 수없이 사제들에게 주기도문 암송과 예배의식의 진행을 콥트어와 아랍어로 동시에 함께 사용하도록 했어야 했다. 13-14세기의 콥트어로 된 예배용 책에는 콥트어와 나란히 아랍어가 변역되어 적혀 있었다. 그러나 상 이집트에서 콥트어가 더 활발히 사용되었으며, 이슬람 역사가인 알-마끄리지에 의하면, 15세기 때에 아시우트(Asyut)지역의 수도원에서는 그때 까지도 콥트어가 온전히 사용되고 있었다고 했다. 17세기에 이르러서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가족끼리 이외에는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의식의 진행과정이외에는 콥트어가 구어로도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 오직 아랍어가 이집트의 공용어일 뿐만 아니라 전 아랍 제국에서 널리, 서아시아에서 북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통용되는 언어였기 때문이었다. 민족적으로 콥트들이 고대 이집트 파라오의 자녀들로 순수한 이집트인이라고 믿고 있을지라도, 그리고 콥트들이 2개 언어를 다 유창하게 구사한다 할지라도, 콥트어 활용보다 아랍어 사용의 횟수가 점점 더 빈번해졌다. 콥트들은 콥트어 사용의 퇴화 과정을 가능한 한 아주 서서히 느리게 진행시켰다.

아랍인들은 우마이야 왕조 때부터 아예 콥트어를 배우려고 하지도 않았다. 아랍인들과의 대화를 원만하게 이루기 위하여는 콥트들이 아랍어를 배워야 했다. 콥트들이 그리스-로마 시대 때 헬라어로의 의사표현을 하였듯이 이슬람 시대에는 아랍어를 배워 아랍어로 의사표현을 유창하게 구사하게 되었던 것이다. 콥트어는 콥트들 끼리만의 언어가 되었다. 콥트들 중에는 두 언어를 충분히 통역하고 타협하고 협상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콥트들은 대를 이어 계속 두 언어를 사용하는 어휘 구사력이 능숙한 민족(bilingual people)이 되었다.

아랍어 중심의 이집트 사회에 콥트어 설 자리가 점차 줄어들었지만, 콥트어는 교회 제식언어로 여전히 존재하였다. 또한 아랍어와 콥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콥트인들의 영향으로 이집트 구어체 아랍어에는 콥트문화와 풍습도 녹아들어 갔다. 본디 콥트어는 헬레니즘 시대에 즉 헬라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던 시대에 이집트인들이 상형문자와 헬라어를 합하여 콥트어를 만들어 사용했다. 그런데 콥트어 사용을 금지시키고, 헬라어 대신 아랍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콥트들은 아랍어를 주로 사용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아랍어 이집트 방언을 만들어 사용하게 되었으며, 또한 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른 한편으로는 그들끼리의 언어인 콥트어를 그들의 교회와 수도원에서 제식언어로 사용함으로써 완전히 사어로 만들지는 않았던 것이다.

2. 아랍어의 세계화와 콥트의 언어

8세기 중반부터 약 200년간 아바스 왕조의 통치 세력들은 서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져 있었던 헬라어로 된 그리스 고전 문헌들을 아랍어로 번역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학자들로 하여금 번역하는 작업을 시키기 시작했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아바스왕조의 제국 통치가 실질적으로 통치자인 아라비아 아랍인 무슬림이 아니고, 이슬람으로 개종한 다른 민족 즉 페르시아인 무슬림 관료층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아바스 왕조의 통치는 관료지배와 무역 통상에 기반을 둔 통치로, 칼리프가 가진 종교적 대권의 권위는 점차 신학자와 종교법 전문가 집단인 울라마들에게 위임되었다. 울라마는 공식적인 학칙과 유급 교수가 있는 마드라사[32] 즉 신학 교육을 위한 신학교를 많이 세웠다(엘리아데, 2010, 241-243). 8-14세기경까지 수백 개의 마드라사가 생겨나면서 신학자들이 고등교육을 통제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학자들은 지식의 전달을 위해서 번역 사업을 주도할 수밖에 없었다.

아바스 왕조보다 그 앞의 우마이야 왕조는 정복전쟁으로 아프리카·유럽·페르시아에 걸친 대제국을 만들었으나 소수 아랍인의 세속적 지배체제인 탓에 비무슬림 세력들의 반발과 내분이 끊이지 않았었다. 그러나 누구나 무슬림이 될 수 있었으며, 무슬림이 되면 모두가 평등하다는 만민평등의 세계 제국을 지향했던 아바스 왕조는 유연하였다. 이미 오래 전에 페르시아·이집트·근동 등이 모두 이슬람제국의 경제·문화권에 들어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바스 왕조는 서아시아·유럽(스페인)·아프리카의 주민들에 대하여 차별이 없이 유연하게 범 세계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번역운동으로 표방할 수 있었다. 이 시대에 헬라어와 아랍어에 능통했던 콥트들이 번역 사업에 적극 참여하였으리라 추측된다.

아바스 왕조의 번역 운동은 체제 수호라는 절박한 배경이 있었지만, 또 다른 창작인 번역의 문명사적 가치를 인류에게 각인시킨 사건도 되었다. 이슬람 학문의 지적 성취와 오늘날 아랍 세계의 공동 유산을 전달하는 데 적당한 높은 수준의 표준어를 만들어

32) 마드라사 (madrasah) : 이슬람 국가의 고등교육기관. 20세기에 들어설 때까지 〈코란〉에 기초한 교과목을 중심으로 신학교와 법학대학의 기능을 했다. 이슬람의 신학과 법학 외에 아랍어 문법, 수학, 문학, 논리학, 때로는 자연과학도 가르쳤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냈고, 사상 최초로 과학적·철학적 사고가 만국 공통이라는 것을 보여준 계기도 되었다(디미트리 구타스, 2013, 17-24, 249-251). 그 결과 이슬람문화가 서구 중세사회에 끼친 가장 큰 영향은 마드라사에서 아랍어로 번역된 고대 철학과 과학의 서적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들이 아랍 세계로 유입되었다. 이것이 스페인에서 다시 라틴어로 번역되어 유럽으로 들어갔다(Makari 2007, 243). 아랍어에서 라틴어로의 최초 번역은 스페인에서 1150년경에 크레모나의 게라르두스에 의해 행해졌다(엘리아데, 2010, 241-243). 그리고 유럽 전역에 각 나라 언어로 번역되었다.

오늘날, 나라와 지역에 따라 각양각색으로 다른 여러 방언들 가운데, 아이러니하게도 아랍 세계에 가장 널리 퍼져있는 방언은 푸스하(Official Arabic)와 상당히 거리가 멀다고 일컬어지는 이집트 방언(암미야, Spoken Arabic)이다. 왜 이집트 방언이 아랍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되고 있는가 하면,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들 수 있다. 첫째는 아랍연맹의 본부를 두고 의장을 배출하는 이집트의 정치적 영향력에 있고, 둘째는 이집트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 아랍의 각국에 진출해 있다는 것이고, 셋째로 가장 큰 이유는 이집트가 문화면에서 아랍의 각국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랍어의 약진으로 인해 이집트 콥트들이 아랍어를 구사하게 되었지만, 콥트 기독교도들과 일반 무슬림들 간에 구분이 가능했다. 그것은 그들의 특징이 일상 사회생활에서 표출되어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이다. 20세기 중반에도, 이집트의 콥트들은 간단하나마 기독교인이라는 표를 달고 다녔다. 오른 손의 손목에 있는 십자가 모양의 문신과 그들의 이름으로 기독교도임이 확실하게 나타냈다. 1960년에 한 이집트 신문사의 신문기자가 미리 소집된 민족 회의 참석자 400명 회원의 명단을 인쇄해 보았을 때, 콥트의 이름을 금방 가려낼 수 있었다. 그들은 13개의 씨족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이름과 성으로 콥트인임을 입증하고 있었다. 알리(Ali), 오마르(Omar), 모하메드(Mohammed)는 무슬림 이름이고, 이는 두 계열로 나누어진다. 무슬림 칼리프계열과 예언자 무함마드의 이름을 따르는 계열인데, 비슷비슷하게 이 두 계열의 이름들에서 이름이 파생되어 있다. 알-사이드(as-Sayyid : master)와 압드 알(Abd al- : slave of)로 시작하는 이름은 이슬람 이름이다. 콥트들은 그들의 이름을 사도들의 이름이나 혹은 성인들이나 천사들의 이름에서 선택하거나 이시스(Isis)와 같은 좋아하는 고대 이집트인들의 이름에서 택한다.

또한 이집트문화에는 아랍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숙명적으로 강조된 결정적인 격이 있다. 그 구분은 하나님을 "알라 Allah"라고 부르는 무슬림과 "랍비나 Rabbina"라고 부르는 기독교인이다. 예를 들어, 아랍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관용구 중 알라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삽입된 관용구인, En-shah Allah(=in God's will)나 Ba Isn Allah(=with God's wisdom)가 있다. 콥트들은 알라가 포함된 관용구 대신 같은 의미의, Ba isn Rabbina(=through the Lord's will); Rabbina sahal(=If it's the God's will, He will make it easy to do); Rabbina mahak(=The Lord be with you); Rabbina havez alake(=The Lord watch over you and protect you); Rabbina ya wah-fahak(=God's help and divine hand will give you success); Lau Rabbina ahrad(=If God allows)를 사용하여 말한다(Boulos 2011, 29).

이와 같이 콥트들에게는 어휘 구사력의 특이함이 보인다. 다(多) 언어 사회의 적응력도 좋다. 그들의 특징은 신앙의 정체성과 사명감이 확고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황을 중심으로 한, 콥트공동체는 응집력이 강하다. 이러한 콥트들의 언어였던 콥트어 대신 아랍어를 사용하게 된 콥트들에게 그들의 전기(biography)나 자서전(autobiography)쓰기의 붐이 일어나기도 했다. 콥트 문인인 살라마 무사(Salamah Musa 1887-1958)는 콥트의 정체성에 대한 그의 주장을 뚜렷하게 결론짓지는 않았으나, 파라오의 땅에서 사는 이집트 사람들의 모습을 그는 그의 시대의 분위기에 맞추어 재현시켰고 제자들을 많이 양성했다. 1920년대에 살라마 무사의 표현력에 영향을 받은 이브라힘 알-미스리(Ibrahim al-Misri)의 작품이 후편으로 등장했다. 그리스 정교회 소속이었던 이집트인인 이브라힘 알-미스리는 살라마 무사처럼 소작인 농부들의 우직스러움을 이집트 정체성의 핵심으로 믿었다. 무슬림이며, 우리 동네 아이들(1988년 한글번역)로 1988년에 노벨문학상을 받았던 나기브 마푸즈(Naguib Mahfouz)는 40편이 넘는 소설을 썼으며, 그 중 그의 출세작 《앗 술라시야》3부작(Trilogy)작품 속에서도 살라마 무사의 a beginner's story(Cragg 1992, 193-4)를 배경으로 한 고대 이집트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33] 이는 영락한 구(舊) 카이로 지역에 사는 1가족 3대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가난하고 무지한 이집트인의 삶을 작품 속에서 극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다(Cragg, 1992, 192-194).

그러나 무슬림 사회에서 코란은 아랍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는 번역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다. 다른 나라로 전파될 때에도 반드시 코란은 아랍어로 읽어야 했다. 인쇄술이 들어왔을 때에도 코란만은 반드시 손으로 필사하였다. 신의 말씀을 기계로

33) 살라마 무사의 영향을 받았다.(http://blog.naver.com/leebc642/1456026). 삼부작(Trilogy al-Tha1athiyyah, 1956-7)은 단순한 기록에 그친 기존 소설보다 생생한 의식을 지닌 관찰로 아랍 사실주의 소설을 한 차원 높였다. 마푸즈는 그의 소설의 특징으로 이집트 소설과 서구 소설의 만남을 보여주며 전통적인 아랍 고유의 형태의 이야기를 향한 작가의 노력이 돋보이는 작품을 남겼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찍는 것 자체가 일종의 신성모독이라고 여겨졌었다. 1450년경에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이용하여 처음 책을 찍은 이후, 그 기술이 곧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었고, 유럽은 인쇄술을 적극 활용하였다. 지식과 정보 면에서 유럽이 세계의 타 지역과 확연히 구분되었다. 아마도 이것이 근대에 유럽이 타 지역보다 앞서간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추측 된다(http://blog.naver.com/jdyi8589/70095208073. 2013.8.30). 기독교는 세계 각지로 퍼지면서 지역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띠게 되었지만 이슬람은 여전히 코란이라는 기준으로 통일되어 있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기독교 신약과 구약 성서의 아랍어 번역본 출판도 무척 더디게 진행되었다. 아랍어로 번역된 성서의 어휘들이 이슬람 세계의 아랍어 어휘에 영향을 끼치기에는 그 영향력이 미미했다. 20세기에 겨우 Van Dyck와 예수회 양쪽 모두에서 의미 있는 개정판이 나왔다. 오늘날의 아랍어 신약 성경은 1979년에 출판된 것이다. 그러므로 콥트들은 아랍어를 능숙하게 사용함으로서 성서와 코란의 일치점과 다른 점을 속속들이 꿰뚫어 다 알고 있는데 반하여, 이슬람 사회의 영향으로 성서의 아랍어 번역본은 상대적으로 매우 늦게 출판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5절 콥트의 다수가 무슬림으로

인구수로는 콥트어 사용 기회의 저조에 따라 인구수의 감소와 크게 관계가 있다. 어떻게 콥트의 인구수가 감소하게 되었는가에 대하여도 살펴보아야 한다. 종교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갈등 요인의 해결은 이슬람으로 개종하여 무슬림으로 적응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었다. 콥트들은 결코 쉽게 개종하려 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십자군 전쟁 시기에 개종을 택한 콥트 무슬림들에게도 십자군 전쟁이후에는 침체기의 늪에서 또 다른 갈등을 겪어야했다.

972년 파티마 왕조(969-1169)[34]가 이집트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까지도 무슬림의 인구수가 소수였고 콥트가 여전히 대다수이었다. 파티마 왕조 지배의 첫 20년 동안은 콥트들에게 많은 자유가 부여되었었다. 파티마 왕조는 이슬람 소수종파인 시아의 한 분파인 이스마일파를 따랐기 때문에 관용과 개방적인 정책으로 콥트들을 우대하였다. 즉 자유롭게 행해지는 예배와 교회행사, 교회와 수도원의 건축과 수리, 예술적 표현, 정치적 지위, 전문직 승진 등등에서 그러하였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교회를 신축하거나

34) 파티마 왕조(969-1169) : 파티마 왕조는 수니파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에 대해 칼리프권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아즈하르사원을 건설하는 등 활발한 종교·문화 활동을 벌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개축하려하면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므로 콥트들은 허가받기가 힘들어졌다.

다른 한편 아라비아 반도의 아랍인들에게는 이집트가 가장 인기 있는 곳이었다. 이집트 나일 강 유역이 가장 살기 좋은 곡창지대이기 때문이었다. 끊임없는 아랍 전사와 관리, 그들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주해 들어왔고, 그들의 높은 출생률로 인한 이집트 정착 아랍인들의 숫자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십자군 침입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1. 십자군 전쟁의 영향

유럽의 십자군 원정으로 이집트 콥트들은 이중고를 겪게 됐다. 아랍무슬림들에게는 이집트 기독교도인 콥트들이 "혹시, 같은 기독교도라는 이유로, 첩자 노릇을 하지 않았나?"라는 의심을 받게 하였고, 다른 한편 유럽십자군들은 콥트들을 유럽 기독교도들과 다른 이단으로 보았기 때문이었다. 특히 4-5차 유럽십자군의 이집트 상륙은 기독교도인 콥트들에게 커다란 재앙이 되었다. 콥트들은 양쪽으로부터 받는 오해로 인하여 무슬림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사회적 지위가 점차 더 낮아지게 됨으로, 생존을 위해서 이슬람으로 개종을 신청하는 자가 속출하였다. 자연히 인구학적인 숫자가 현격히 줄어들어 기독교도들이 소수파로 전락하게 되었다. 많은 이집트 콥트들이 그들의 생존의 보장과 사회적 지위의 보존을 위하여 이슬람으로의 개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슬람교도가 된다는 것은 아랍인의 종교와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가지며, 아랍어를 더욱 선호하여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기독교도인 콥트들도 아랍어를 공식 문서, 공무로 근무, 또는 지배층인 아랍인과의 교류 등을 위해 써야했으며, 더 나아가서 차츰 그들의 생활 용어로도 아랍어를 쓰게 되었다.(Nisan 2002, 137). 이런 상황은 현재까지 지속 되어 특히 20-40대 사이의 젊은이들이 무슬림으로 개종하고 있다. 매 해 약 5,000명의 콥트가 이혼 또는 직업난으로 개종하고 있다고 추산된다. 상하 고하를 막론하고 무슬림에게는 우선권 또는 특혜를 주고, 젊고 유망한 콥트나 중산층 콥트에게는 취업의 문이 아예 닫혀있거나 지극히 조금 열어 놓고 있었기 때문에, 콥트 인구수가 점점 더 줄어드는 추세에 있었다(Wakin 2000, 117). 즉 신앙을 선택함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생계라는 현실문제 때문에 개종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이집트인의 인구수의 비율에 변화가 나타났으며, 이집트는 소수의 아랍무슬림, 다수의 콥트 비아랍 무슬림, 그리고 소수의 콥트기독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도들로 구성되게 되었다.

약 360여 년 동안 계속된 십자군 전쟁에서 아랍제국의 파티마 왕조(969-1169) 아이유브 왕조(1169-1250)[35], 맘룩 왕조(1250-1517)[36]의 이슬람 군이 모든 십자군 원정군들을 물리쳐 승리는 하였으나, 인도양과 지중해를 잇는 동서교류 문물교환 교역 활동이 차단되는 결과를 만들었다. 그들은 그들의 지리적 이점을 누리지 않고, 그냥 동양과 서양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에 있게 되었으며, 그러면서 그들은 자꾸 침체기에 빠져 들어갔다. 그들끼리 싸우거나 몽골의 침입은 격퇴시켰지만, 스페인에서 기독교도의 군대와의 싸움에서는 후퇴함으로써 레콘키스타(Reconquista)[37]가 1492년에 끝났고, 포르투갈 함대가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을 돌아 맘룩 함대를 인도양에서 1509년에 격파시켜, 포르투갈이 인도양을 장악함을 시작으로, 변화되는 대서양문화권에 아랍제국은 들어가지 못했다. 결국 무슬림들은 더 이상 서유럽 쪽으로 진출을 못하였다.

유럽과 아랍제국은 여러 문화면에서 견해 차이가 컸다. 이탈리아가 먼저 15세기(1420-1500)에 플로렌스를 중심으로 초기 르네상스를 꽃피웠고, 예술과 문화 분야에서 유럽의 중심지가 되었다. 세계의 역사는 전쟁터에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상가와 발명가, 기술자와 예술가의 작업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도 결정되어질 수 있었다. 유럽의 르네상스는 라틴어 공부와 그리스어 공부의 부흥, 고대 로마인과 그리스 문헌에 대한 역사 비평적 연구의 부흥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유럽은 자유의지를 표현하려는 인류, 자기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의식을 느끼는 인류가 등장했다. 도처에서 새로운 기술 발명의 정신, 물질적 풍요에 대한 추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농업을 대신하여 무역과 상공업 발전의 토대도 되었다. 새로운 투자의 형태와 은행제도의 단초가 되었다.

반면에 이슬람은 예술분야에서 모든 종류의 그림을 거부했다. 이슬람세계에서는 에라스무스, 토마스 모어 같은 휴머니스트가 나올 수 없었다. 지금까지 모든 면에서 앞서 있었던 아랍세계가 중세 후기부터는 유럽의 휴머니즘(humanism)과의 접촉을 거부했다. 이슬람 사회에서는 유럽의 새로운 세계관과 인간관에는 관심이 없었고 주로 유럽

---

35)아이유브 왕조(1169-1250) : 1169년 파티마 왕조의 재상이었던 쿠르드인 살라 웃딘은 아이유브 왕조를 수립했고, 십자군을 막기 위해 군대를 재편성하고, 수니파의 지배체제를 확립했다.

36)맘룩 왕조(1250-1517) : 술탄을 우두머리로 바리 맘루크왕조는 십자군과 몽고인을 격퇴시킴으로써 강성해졌으나, 군벌의 세력다툼 격화와 왕조 말기의 경제적 혼란 및 중계무역지로서의 기능상실로 점차 쇠퇴하였다.

37)레콘키스타(Reconquista) : 8세기에서 15세기에 걸쳐 기독교도가 아랍군에게 점령당한 이베리아 반도 지역을 되찾기 위해 일으킨 운동. 1492년에 무슬림 최후의 거점인 그라나다를 함락함으로써 끝이 났다. 같은 해 1492년, 스페인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의 무기에 관심이 있었다. 이로써 인간 개인을 향한 새로운 전환, 자유를 향한 전환이 이슬람 세계의 바깥일이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종교적인 문제와 세속적인 문제의 분리인 정치와 종교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서양과 이슬람 세계와의 차이라 할 수 있었다. 즉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서곡으로서의 르네상스가 이슬람세계, 무슬림 문화권에는 없었다.(퀑 2012, 695) 이슬람은 그 이후의 세기에도 정신적으로는 중세 울라마·수피에 머물러 있었다. 그로 인해 이슬람 문화권이 수세에 몰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늦게 깨달았다. 코란과 순나(관습)에 집착하는 전통주의자들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철학 정치학 자연과학에서 더 이상 독자적인 사상가를 배출하지 못한 이슬람 세계에서는 르네상스도, 종교개혁도, 계몽주의도 일어날 수 없었다. 이슬람세계에서는 철학자가 아닌 종교학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슬람세계는 율법주의에 빠져있었다고 추측된다. 이집트의 무슬림 사회도 이와 같았다.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슬람)을 법률(샤리아)에 대한 복종과 완전히 동일시하고 있었다.

2. 무슬림의 세계와 소수의 콥트

아메리카 발견(1492년)과 아프리카를 회항하여 인도로 가는 길 항로 발견(1509년)으로, 지중해문화권에서 무역의 최강대국인 이집트와 이슬람 영토를 통과하는 동양 무역은 자연히 제2순위로 밀려졌다. 경제 활동의 중심지가 지중해 연안에 인접한 국가들(지중해문화권)에서 대서양 연안에 인접한 국가들(대서양문화권)로 서쪽을 향하여 이동함에 따라 옮겨갔으며, 이로 인하여 식민지를 거느린 5대 강국이 나타났다. 즉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가 각축을 벌였다. 이는 정신적 문화적 변화였다.

17세기 중반에 유럽은 자율적 이성이 발전의 동력이 되었는데, 이슬람세계는 울라마·수피를 고수하느라 철학과 결별하고 자율적 이성을 거부했다. 유럽의 근세는 르네상스와 결합하고, 그리스 로마의 고대 문화를 추구하는 반면, 낙관적이고 미래지향적이었다.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앙과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주어진 본성에 대한 신앙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신앙과 진보에 대한 신앙이 되었다. 이성 및 진보에 대한 신앙에 기초한 우월감은 다음의 4가지 획기적인 근대화 동력을 일으켰고 이는 기독교 세계뿐만 아니라 이슬람 세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바로 이 4가지 근대화 동력으로 유럽은 이슬람 세계에 대항한 도전을 시도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근대화 동력, 그 첫 번째는 갈릴레오, 뉴턴, 데카르트, 칸트 등에 의한 자연과학과 철학의 혁명이었다. 그러나 이집트의 콥트와 무슬림을 포함한 이슬람제국에서 사회를 이끌어가는 세력은 도매상인, 수공업장인, 울라마 이었다. 이슬람세계에서는 갈릴레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 무슬림이 서양의 우월성을 확실히 느낀 것은 대사관을 상주시키는 외교와 군사의 영역에서였다. 그때서야 수세에 몰린 오스만 제국(Ottoman Empire,1517-1798)은 그들의 독자적인 연구 없이, 서양의 무기와 망원경, 시계, 안경 등을 수입하고, 서양의 전문가들에 관심을 품게 되었다.

두 번째는 문화와 신학의 영역이었다. 18세기에 유럽에서는 계몽주의[38]의 문화적 혁명을 가져왔고, 정치적 혁명으로 이어졌다. 문화와 종교 그리고 사회와 교회의 분리가 이루어졌고, 종교적 관용과 양심의 자유와 종교 행위의 자유가 있었다. 18세기의 무슬림들에게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문화적 측면에서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코란의 신성한 언어인 아랍어로 책을 찍어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19세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인쇄출판이 허용되었으며, 이로 인해 이슬람 세계에는 엄청난 정보 지체현상이 야기 되었다.

기독교계에서는 구약성서나 신약성서가 인간 저자의 작품, 즉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코란의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이라며, 그래서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해야한다는 것이었다. 코란에 대한 진지한 역사 비평적 연구를 시도도 하지 않았다. 20세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이슬람을 이성의 종교로 포장하였다(퀑 2012, 744).

세 번째는 정치와 민주주의 혁명이었다. 프랑스 혁명의 성공으로, 프랑스의 국가 이념은 정치적 자유, 사회적 평등, 정신적 박애로 표현되었다. 신정정치 즉 로마교황으로 대표되는 가톨릭교회 중심의 정치는 끝이 났다. 그러나 이슬람 세계에서는 여전히 정치와 종교의 분리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1798년에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점령하여 무슬림 세계를 흔들어 깨웠다. 프랑스가 전쟁에 사용한 신식무기들은 이슬람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슬람 세계의 쇠퇴한 유럽의 약진이라는 과정 속에서 경제 문제가 점점 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기술과 산업의 혁명이었다. 산업은 근대적 가치이다. 1805년 나폴레옹의 전쟁이 끝나자, 이슬람 국가들은 새로운 무역시대를 접하게 되었다. 유럽 배들이 대량의 생산품을 지중해의 동쪽 항구로 실어왔다. 이 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38)지식수준이 낮거나 의식이 덜 깬 사람을 깨우쳐 인류의 보편적 진보를 꾀하려는 이념. 신이나 교회의 권위에 바탕을 둔 특권이나 제도에 반대하고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제창함.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항구는 고대의 과거와 같이 제 역할을 찾아 활성화되었고 석학들이 모여들었다. 증기선 운항, 전보 통신 활용. 이런 사태가 2차 세계대전 이후까지 지속되었다.

나폴레옹 군대의 3년간 이집트 점령 이후, 다시 이집트 영토를 장악한 사람은 알바니아 출신의 장군 무함마드 알리(1805-1848)였다. 오스만 제국이 그를 총독으로 임명했다. 그는 이집트 전체를 유럽의 법률 및 재정 체제의 모범을 따라 재구성했다. 특히 영국의 경제가 이집트에 확산되도록 만들었다. 이집트는 여러 가지 사정의 재정 문제 때문에 영국에 대한 의존성이 점점 높아갔다. 알리의 손자 이스마일이 수에즈 운하(Suez Canal,1869)[39]를 개통했다. 그리하여 영국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집트의 위치가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에 놓여 있으므로 이집트가 더욱 크게 부각되었다. 또한 그와 동시에 이집트는 엄청난 채무를 지게 되었다. 결국 영국이 이집트를 점령하는 치욕이 일어나게 되었다. 1900년에 이슬람 아랍세계가 지배했던 무슬림 국가들은 유럽 열강이 통치하는 영토 또는 그들에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분할되었다. 이집트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이집트는 오스만 제국 멸망 이후 영국의 보호국이 되었다가 1922년에 이르러 독립을 약속받았다. 1956년에 나세르가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했다. 아스완 댐(Aswan Dam)[40]이 건설되었다. 아스완 하이댐(Aswan High Dam)[41]도 건설되었다.

이슬람세계와 유럽의 도전이 근대성의 대결로 첨예해지고 19세기 이슬람 정체성의 위기가 정점에 달했을 때, 카이로의 무슬림들은 다시금 아랍적인 것에 마음을 모았다. 초창기의 아랍어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고, 중세의 고전 표준 아랍어를 연구하고 현대화하려는 노력이 활발해졌다. 아랍적인 문화 국가를 세우고자 했던 것이다. 그런데 20세기 초반이 되면서 문화적 아랍주의와 나란히 정치적인 아랍주의가 형성됐다. 아랍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은 정치적으로도 하나의 유일한 '아랍 국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유럽의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또한 범(汎)오스만주의와 범투르크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아바스왕조 시대의 범아랍주의 운동이 다시 일어났다. 아랍 문화, 아랍 언어, 아랍 종교를 육성하고 그것을 토대로 모든 아랍 국가의 대대적인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이 운동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우마이야 왕조시대의 이미지도 풍기고 있었다(퀑 2012, 446). 그리고 테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이

39) 아시아와 아프리카 두 대륙의 경계인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 서쪽에 건설된,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수평식 운하. 세계 최대의 운하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최단 항로이다. 1869년 개통되었으며, 영국의 지배하에 있다가 1956년에 이집트가 국유화하였다. 길이는 163.5킬로미터이다.

40) 이집트 아스완 남쪽 6km지점에 있는 댐. 나일 강의 물을 조절하여 사막을 경지화할 목적으로 1902년에 완성하였다. 길이는 2,140m, 높이는 51m, 저수량은 55억㎥이다.

41) 이집트 아스완 댐 7km지점에 있는 댐. 경지 50만 ha를 넓혔고, 연간 100억 kWh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1971년에 완성되었다. 길이는 3,500m, 높이는 111m, 저수량은 1,300억㎥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움트고 있었다.

이집트의 하산 알 반나에 의해 무슬림 형제단이 창설(1928)되었다. 이집트무슬림은 어떤 이슬람 세계를 원하는가에 대하여 관심이 쏠렸다. 먼저 유대교와 기독교의 경우와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디아스포라들의 영향으로 유럽에 널리 퍼져있는 유대인들은 무슬림보다 빠르게 게토에서 빠져나왔다. 유대교의 종교개혁은 기독교의 종교개혁과 다른 모습으로 전개됐다. 기독교에서는 종교개혁이 합리적 계몽주의의 전제 조건이었지만, 유대교에서는 거꾸로 계몽주의가 종교개혁의 전제조건이었다. 이 개혁은 예배형식에서 시작하여 랍비 교육을 거쳐 의복 식습관 등 생활 전반의 근대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무슬림문화권의 이슬람세계는 과거의 여러 패러다임이 여전히 현재를 지배했다.

유대인과 기독교인과 무슬림이 모두 동의하는 한 가지가 있었다. 그것은 근동지역이 정치적 광신, 민족적 흥분, 종교적 차단의 상징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정치적 종교적 갈등을 품고 있는 콥트들은 이집트무슬림이 어떤 이슬람 세계를 원하는가에 민감했다. 콥트들이 범이슬람주의[42]보다도 범아랍주의[43]에 반응을 나타냈다. 무슬림이 아니지만 아랍어를 쓰고 있는 이집트 콥트들이 범아랍주의 운동에 가담했다. 범아랍주의는 수백 년간 지속되어온 오스만의 지배에 반대했을 뿐 아니라 유럽 식민지주의에 대해서도 반대했었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와의 약속이 깨어지고, 오히려 영국의 외무상 벨푸어가 유대인들에게 한 약속, 즉 팔레스타인에 유대인들의 '민족적 향토'를 약속한 것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으며, 궁극적으로는 거의 해결 불가능의 상태로 몰아갔고, 마침내 범아랍주의는 실패로 돌아갔다.

1990년도 이후로는 범이슬람주의의 집단의 영향력이 다시 증가하면서 그것이 콥트기독교, 진보적 문인,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적대적 행동으로 불거져 나왔다. 거기에 대해서 이집트 당국은 오직 탄압과 대량 검거로만 대응했다.

이집트 나세르 대통령은 이슬람 종교와 문화 속에 서양의 세계관과 세속주의[44] 문화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의 세속적인 공화국은 개인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주지 못하여 세속주의도 실패했다. 사상적으로 혼란스러움이 다수의 이집트 무슬림들 사이에 내재되어 있었다,

42) 19세기 후반에 유럽의 기독교 국가의 침략에 대항하려는 사상
43) 아랍민족 해방과 아랍세계의 통일을 목표로 하는 주의
44) Secularism : 내세가 아닌 현세의 삶을 지향하는 사회운동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 쿠쉐, 테러마을을 평화마을로

비폭력 사회를 지향하는 콥트들에게 불안함은 강경파 무슬림의 즉흥적 행동의 폭력적 공격 테러에 있었다. 이슬람 사회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소수의 콥트들은 가능한 한 무슬림들을 관용으로 대했다. 콥트들은 보복적인 살인 행위를 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수의 무슬림들 중에서 극단적 이슬람주의자들은 단지 콥트가 비무슬림이라는 이유로 콥트들을 공격하여 다치게 하거나 폭력으로 콥트교회와 기물들을 파괴했다.

종교가 다름으로 인하여 콥트 기독교인과 무슬림들 사이에 폭력적인 충돌이 빈번히 일어났다. 아시우트(Assiut) 지방의 다이루트(Dairut)에서 1980년대에 콥트교회가 불태워졌고, 1991년도에 이슬람 과격분자가 기독교인을 살해하는 사건도 있었다. 1992년도 태마(Tema)에서는 60채 이상의 집들과 교회와 기독교인 소유의 가게들이 불태워졌고, 도끼로 기독교인을 죽이는 끔찍한 사고도 있었다. 1997년 상 이집트에서는 한 달 동안에 21명의 기독교인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들 중 9명은 아부 코르카스(Abu Qorqas)마을의 교회에서, 3명의 농부는 들판에서 당했다. 유명한 컬럼니스트인 파미 후와이디(fahmi Huwaidi)가 “모든 콥트들에게 사과한다.”는 제목으로 “나는 범인들이 누구인지, 그 행위의 동기와 의도는 모른다 할지라도, 살인자들이 무슬림이요, 죽임을 당한 자들은 기독교인들이며, 결국 이집트인 모두가 그에 대한 상처를 입는 피해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기사를 썼다.

1997년 룩소르(Luxor)에서는 단체로 찾아 온 독일인 관광객들에게 갑자기 한 집단이 공격하여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독일인들과 이집트인들, 기독교인들과 무슬림들이 모여 함께 희생자들을 위한 철야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슬람 그룹이라고 불리는 알-자마 알-이슬라미야)al-Jama'a al-Islamiyya들이 폭력을 가했었기 때문이었다(Makari 2007,178-179).

2000년 1월4일에 상 이집트의 수하즈 지방에서 일어난 쿠쉐(al-Kusheh) 마을의 사고는 콥트 기독교도들을 더욱 긴장과 불안에 떨게 했다. 이는 과격분자들에 의하여 일어난 20명 넘는 콥트 기독교인들을 죽인 참사였다. 33명이 부상을 당했다. 수십 채의 집들과 이웃 마을의 성 조지교회를 파괴한 큰 사건이었다. 33개의 기독교인의 가게와 자동차 두 대와 45개의 무슬림 가게가 피해를 입었다. 카이로 타임즈의 보도에 의하면, 22명이 체포되었다고 한다. 그 결과로 종파에 대한 공포, 불신, 기독교인들과 무슬림들 사이의 분노가 각 지방에 널리 퍼졌을 뿐만 아니라, 이는 또한 이집트 전역 어디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서나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의 감정이 되었다. 쉐누다 콥트교회 교황이 "이집트인은 기독교인이든 무슬림이든 다 같이 동등하다, 이집트인은 누구나 다 신앙생활과는 관계없이 이웃과의 관계를 개선시켜야 한다."고 발표하곤 하였던 것처럼, 2000년 1월 21일 금요일에 콥트교회의 공식적인 잡지인 알-키라자(al-Kiraza)가 머리기사로 "쿠쉐 마을에서의 순교자들"을 출판 보도했다. 이 사건의 기록으로 인한 이집트에 대한 비평이 인터넷으로, 신문 잡지, 방송, 외국 뉴스로 고통스럽게 보도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가 치안이 보장되어 안전한 사회로 누구나 선하게 살 수 있는 정다운 국가가 되기를 기원하였다.

2000년도의 쿠쉐 마을의 비극적인 사건은 이유가 있었다. 1월 7일은 콥트의 크리스마스로, 이집트 콥트기독교인들이 중요하게 기념하는 기간이었다. 특히 서기로 2,000번째를 맞이하는 그 해의 년 중 가장 큰 축제 기간이었으므로, 무슬림의 입장에서 일으킨 이 테러는 콥트의 크리스마스 축제를 야유하는 것임을 의미했다. 또한 그 첫 주가 이슬람 달력으로는 라마단의 마지막 주(1월 9일이 'id al-fitr 라마단의 마지막 축제일)에 해당되었다. 바로 이 "Y2K"[45]에 대한 기대가 뜻밖의 논쟁으로 번지게 된, 즉 이집트의 두 종교집단의 최대의 종교 축제가 같은 기간에 겹치며 야기된 사건이었다.

이집트의 최고 종교지도자인 무프티 탄타위(Muhammad Sayyid Tantawi)가 교회 지도자들에게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복종하는 형제들이다."고 말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라마단 마지막 날 축제 행사에 쉐누다 콥트교황이 대표단을 인솔하여 탄타위를 방문하였다. 쿠쉐 마을의 테러 사건 3주 후에 탄타위가 인터뷰에서, 콥트교황의 방문이 화해의 행위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고 언급했다. 진정한 화해는 정의가 실현될 때만이 성립될 수 있으며, 특히 이집트의 경우에는, 콥트와 무슬림이 이미 공존하던 이집트인만큼, 실정법에 의거하여 양쪽이 다 같이 책임과 권리를 공유한다고 재확인했다.

희생자의 대부분이 기독교도인 콥트였으나, 이 위기의 사태가 좋은 방향으로 퍼져 알려지게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는 쿠쉐 마을의 이름을 "평화마을"로 바꾸어, 2000년 1월 31일자로 효력이 발휘되도록 제의했다. "쿠쉐 마을이 모델 마을 - 긍정적인 공동의 관계와 사랑의 모델, 기독교인과 무슬림이 같은 민족이라는 모델 - 사랑의 마을이 될 것이다."고 'Ebeid수상이 반복하여 소상히 설명하였다. 이러한 표현들은 모든 이집트인들에게 법 앞에 누구나 동등한 시민의 신분이라는 것과 이집트 내에서 종

45) Y2K = Year 2000.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교문제로 인한 위기의 관념은 거부한다는 정부의 입장과 일치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미래에 대한 희망과 약속을 제시한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을 그 해 1월20일에 국영 방송국 채널1에서 방영했다.

그런데, 아랍 무슬림 사회에서는 시아파 수니파 등 여러 파로 나누어져 무슬림 사회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있었고, 사상적으로도 아랍제국주의, 범이슬람주의, 세속주의 등 선택의 갈등이 있었다. 이러한 와중에 테러를 감행하는 극단주의자들이 등장했던 것이다. 마치 콥트들의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 같았다. 인내의 결과는 대화의 필요성을 대두시켰다.

무슬림과 콥트 간의 종교적 갈등요인을 비교하여 보면, 무슬림들은 이집트 전 지역이 이슬람화 되기를 추구했다. 모든 콥트들이 개종하기를 원했다. 그러므로 콥트들에게 불안을 조성할 수 있었고 위협하거나 파괴하거나 테러도 감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테러를 시도함은 순간적인 성취감은 얻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이성적 판단에 의함이었다기보다는 감정적 표출에 불과했음으로 또 보복적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으므로, 성공적인 행위라고 할 수는 없었다.

콥트들은 기독교도로 살기를 원했다. 이로 인하여 일어나는 테러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의 인내로 오래 참으며, 사랑으로 용서했으며, 평화를 추구했다. 즉 대화로 갈등이 해결되기를 추구하였다.

이러한 갈등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가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송경근 2013.6, 61)

1.종교적 갈등요인의 해결방안으로 종교 선택은 개인적인 문제이므로 신앙생활의 자유 부여와 폭력적 테러 방지에 대한 통제력이 요구된다.

2.정치적 갈등요인의 해결방안으로 정치종교분리 주의 사상에 입각한 정책 수립과 불안 해소를 위하여 안위와 정의가 요구된다.

3.경제적 갈등요인의 해결방안으로 교회 파괴나 재산 몰수 등 폭력적 행위를 방지하기위한 치안과 질서의 유지가 요구된다.

4.사회적 갈등요인의 해결방안으로 콥트의 사회적 위치 인정과 소속감을 인정하는 즉 정체성과 소속감이 인정되는 인권의 보장이 요구된다.

결국 살인과 강요, 테러 행위로는 사랑과 자비의 베풂에 의한 자의의 행위를 이길 수 없다. 자연굴복을 기다리는 인내가 더 요구되었다. 콥트들은 용서하는 마음으로, 쿠쉐 마을이 당한 테러를 보복으로 되갚기보다 인내하기로 결정하고, 통제력, 안위와 정의, 치안 질서 유지, 그리고 인권 보장을 요구하면서, 그들의 테러행위를 자비와 사랑으로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용서하기를 기대하고, 쿠쉐 마을의 이름을 평화마을로 바꾸는 데 동의했던 것이다.

4. 크리스마스를 이집트의 국경일로

이집트 전체 인구의 10%는 소수이나 무시할 수 없는 소수이다. 콥트 기독교는 이집트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한 기독교로, 21세기에도 이집트 전체 인구 약 8천500만 명의 약 10%가 아직도 콥트교회를 다니며 기독교를 믿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이슬람 수니파에 속한다[46].

이집트 세계 최대 콥트교회 성시몬수도원교회 담임사제 사만 이브라힘(Samaan Ibrahim)은 이집트의 콥트교회는 "전 세계의 어머니 교회이며, 1세기의 첫 교회"라고 말했다. 성시몬수도원교회는 1974년 9명의 신자로 시작되었으나 지금은 7,000명의 성도들이 모여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다. 사만 이브라힘은 신약성서 사도행전 2장을 언급하면서 "이미 1세기 때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이집트 사람(행2:10)도 참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2013 10 18 국민일보)[47].

콥트인들에게는 콥트문화축제로 7개의 대축제와 7개의 소축제가 있다. 7개의 대축제는 수태고지 축일(Annunciation), 크리스마스(Christmas, 1월7일), 성령체험(Theophany), 종려 주일(Palm Sunday), 부활절(Easter), 예수의 승천일(Ascension Day), 오순절(Pentecost)이다. 콥트 역사상 많은 순교자들의 순교를 기념하기 위하여 만든 콥트 달력에 이 모든 축제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콥트 공동체에는 1883년도부터 교회와 정부를 오가며 그들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의사전달 담당 직책을 맡고 있는 "콥트 평신도 위원회(Coptic Lay Council)"에 선출된 위원들이 맹활약하고 있다.(http://www.coptic.net/EncyclopediaCoptica/ 2012-11-17) 정부 측에서도 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스티노(Stino, Coptic Minister of Supply)가 정부의 대변자로 콥트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정부와 교회 사이의 중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Wakin 2000, 116).

1992년 이후에도 수많은 콥트들이 이슬람 과격파들에 의해 죽었다. 이에 대하여 무

46)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H11&DCD=A00805&newsid=03004486602975216 (2013 10 21 카이로=연합뉴스).

47) http://missionlife.kukinews.com/article/view.asp?gCode=0000&sCode=0000&arcid=0007666075&code=23111112 (2013 10 18 국민일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바라크 정부는 '체제를 따르는 이교도는 보호해야한다'는 이슬람 원칙에 따라 그들을 보호하려는 정책을 취했다.

무바라크는 정정의 안정과 국가의 지도자로서 중재자의 역할을 위하여 이슬람 과격세력의 활동을 억제하면서, 전임 군 출신 지도자들에 비하여 기독교도들에 대하여 관대한 정책을 취하였다. 그는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전임자 사다트 대통령이 와디 알-나트룬(Wadi al-Naturun)에 구금 상태로 있게 만들었던 콥트 교황 쉐누다 3세를 풀어주었으며, 그의 권위를 완전히 복귀시켰다(Al-Mitran Yatim & al-Arshmandrit dik 1991, 352). 또 콥트교도인 이민 국무 장관 피크리 마크람 오베이드를 부수상으로 임명했다. 더 나아가서 사다트가 취했던 여러 가지 기독교도에게 불리한 정책을 수정하였다. 기독교회의 수리와 건축을 허락하였으며, 기독교도 교육을 위한 학교 설립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가 콥트들을 위하여 이집트 현대사에서 가장 기록될만한 일을 하였으니, 콥트의 크리스마스인 1월 7일을 국경일로 정한 것이었다(이준교 2008, 143). 이 결정에 대하여 콥트들은 크게 환영하였으며,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집트 사회에서 이집트 기독교도인 콥트들의 사회적 지위를 인정하는 의미가 되었다(송경근 2013, 21).

무바라크 정부는 현대 역사상 처음으로 2003년 1월 7일을 콥트 크리스마스 국경일로 정하는 법령을 만들어 국내 국외에 널리 공포하였다(al-Ahram Weekly 2003)(Makari, 2007, 70). 그리고 "Reading for All"캠페인을 일으킨 것도 관록 할 만한 활동이었다. 여러 책들 가운데, Thawrat(The 1919 Revolution)가 말하는 사아드 자글룰(Sa'ad Zaghlul)의 지도력과 이집트 독립을 협상한 와프드(wafd) 대표단들의 활동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후세인 카파피(Husain Kafafi)의 al-Masihiyya wa'l-Islam fi Misr(Christianity and Islam in Egypt)도 시리즈 책으로 출간되었다. "This is Islam" 소책자도 시리즈로 무수히 출간되었다. 책값이 쌈에도 불구하고 콥트들은 읽으려하지 않았다. 그래서 무바라크 정부가 television으로 크리스마스와 이스터의 미사 장면을 방영해 주었다. 공개 토론회도 개최하였다. 자연히 텔레비전이나 공적 대화석상에서 여론화되어 물의를 일으켰다. 그리고 쉐누다 교황과 mufti[48]들이 함께 iftar[49]와 ramadan[50]에 참석하는 기회를 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무바라크의 제안에 열성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Makari 2007, 67-90).

48) mufti : a jurist who interprets Muslim religious law
49) iftar : 매일 하루의 금식을 끝낸 이후의 식사
50) ramadan : the ninth month of the Islamic calendar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콥트들은 그들 스스로의 능력 즉 피눈물 나는 인내심, 자비심, 용서, 능숙한 어휘 구사력과 표현력 그리고 그들의 설득력으로 대축제일 중 크리스마스를 국경일로 성취하여 기념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렇지만 또 언제 테러가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함을 느끼는 콥트들은 무바라크 정부의 대화 유도에는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이슬람 사회 안에서 오직 10%에 해당하는 소수 인구가 콥트공동체로 남아 제식언어로 나마 콥트어를 사용하며 교황을 중심으로 교회생활과 수도원생활을 유지해 오고 있다.

d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4장 콥트 공동체의 상황과 전망

앞의 제2장과 3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로마와 그리스 그리고 아랍제국 하에서의 콥트 공동체는 응집력이 강했다. 그들에게 그들 스스로가 창조해 낸 상형문자와 콥트어가 이미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집트 콥트들은 인내심도 강하고 의지력이 강하며, 콥트어로나 아랍어로나 어휘 구사력이 뛰어남을 보여주었다.

21세기에도 이집트는 지중해 문화권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중심국가 중에 하나이다. 아프리카와 서아시아에 연결되어 그 지리적 중요성이 어느 시대에나 늘 강조되고 있다. 최초로 바다와 바다를 이은 이집트의 수에즈운하는 홍해로 인도양과 지중해를 연결하게 했다. 1869년 11월에 수에즈 운하 개통식이 화려하게 거행되었다. 총 길이 163.5㎞로, 세계 최대의 운하이다. 해상으로도 동양과 서양의 문물을 교류시켜주고 있다. 사막으로 형성된 이집트에 여전히 나일 강이 흐르고 있고, 그 유역에서 파라오의 후예들이며 원주민인 콥트들이 소수로나마 대를 이어 살고 있으며 이슬람 사회에서 무슬림들과 함께 이집트 아랍어방언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제1절 콥트 공동체의 변화

콥트교회는 초대교회 당시부터 전혀 변하지 않고 이어져 오는 풍속이 있다. 콥트교회의 교황 선출하는 방법이 그 중에 속한다. 콥트 공동체는 약 2,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118명의 교황을 추대했거나 선출하여 따르며 의존했다. 그들의 신앙생활을 대대손손 꾸준히 콥트 문화로 유지시켜왔다. 교황 선출 과정은 맨 먼저 모든 콥트가 투표를 해 교황 후보 10명을 정한다. 그 후 5,000명의 콥트 대표자들이 투표에 참가하여 후보를 3명으로 좁힌다. 최종 결정은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3명 후보들의 이름을 제단에 넣고, 한 어린 아이가 제단에서 그들 중 한 명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꺼낸다. 그 종이에 쓰여 있는 후보가 바로 교황이 되는 방식이다. 콥트들은 그들이 직접 교황을 선출했을지라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교황은 그의 직분을 발휘할 수 있다. 공동체의 주교들은 새로이 선출된 교황에 대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계승하는 새 교황의 취임식을 거행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 제115대 교황과 콥트의 삼두정치, 그리고 제116대 교황

콥트들은 이슬람 사회 속에서 그들 기독교 공동체를 존속시키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므로, 이를 위하여 콥트 교황의 강력한 지도력의 중요성과 그 필요성을 깨달아 알고 있었다. 비록 그들이 뽑았을지라도 교황의 지도력이 약하다고 콥트들의 의견이 일치되었을 때에는 삼두정치[51]를 행하여 위기의 가능성을 모면하려 하였다.

이집트 콥트들은 그들이 선출했던 안바 유사브(Anba Yusab II세 콥트교황, 제115대)이 우유부단하여 그의 지도력이 약하므로 콥트공동체가 위기상황에 봉착했다고 여겨졌을 때, 나세르 대통령에게 그의 추방 승인을 신청하여 받았고, 그를 수도원으로 유배시켰다. 교회는 머리 역할을 하는 교황이 필요한데, 그 머리가 정상적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몸통인 교회 전체가 흐트러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콥트들의 압도적인 의견으로 몸통인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머리인 교황을 추방시키는 것을 합의했었다

이집트 콥트를 대표하는 교황 안바 유사브 II세가 경건한 교인이었음에는 틀림이 없었으나, 제115대 교황으로서의 그의 역할에 대한 콥트들의 요구를 만족스럽게 수행하지는 못하였다. 그는 그냥 교회 관료들의 수행 과정에 따른 결정과 관례대로 안일하게 자리를 지켰을 뿐이었다. 그의 일대기를 살펴보면, 그는 15세 때 상 이집트의 한 수사로 교회에 들어왔었고, 1912년도에 자파(Jaffa)에서 콥트 수도원의 대수도원장이 되었으며, 1920년에는 Guergueh의 대주교가 되었고, 1946년도에 교황으로 선출되었었다. 콥트교회의 공동체 위원회와 주교들은 1955년도에 연약하여 기가 죽은 그를 al-Muharraq의 상 이집트 수도원에 보내었고,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모여 결정하기를, 그가 죽을 때까지 세 명의 주교로 형성된 삼두정치로 교회를 이끌어가기로 하였다. 교황 안바 유사브 II세가 1956년 가을에 죽었을 때에는, 제116대 교황을 곧바로 선출하지 않고 공동체 위원회의 23명과 주교 9명이 만장일치로 Anba Asnathos주교를 선출하여 교황의 역할을 대행하게 하였다.

그렇게 결정하게 된 저변에 잠재되어 있는 이유는 교회 집회에서 추방된 교황의 죽음을 발표 했을 때, 새 교황을 뽑기 위한 후보자로 교회 집회에서는 수도사(Monks)를 추천하였고 공동체 위원회에서는 주교(Bishops)를 좋아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집트의 교황을 수도사들 중에서 선출하여야 할지 아니면 주교들 중에서 뽑아야하는지에 대하

51) 삼두정치(三頭政治) : 세 사람의 주교(bishop)들이 결탁하여 행한 교황 대행 전제 정치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여 의견이 분분하였다. 수차례의 집회를 거친 후에, 그들의 전통에 따라 교인 대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959년 4월19일에 선택한 성가대 소속의 5세 소년인 Rafik Bassil al-Toukhy로 하여금 탄타(Tanta)의 나일 델타(Nile Delta)시에서 각각 다른 이름 셋이 쓰여 있는 종이가 든 봉투 속에서 종이 하나를 뽑게 했다. 은둔자 미나 알-무타와하드(Mina al-Muttawahad)로 알려진 수도사가 새 교황으로 탄생하였다. 그 수도사는 레몬차를 마시므로 금식을 중단하고, "이는 새로운 시험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임무입니다. 나는 항상 외롭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외롭게 살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참으로 오묘하고, 그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신비롭기 그지없습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가 이집트 콥트를 대표하는 제116대 교황으로 선출된 시릴 4세(Cyril VI)였다.

성직봉헌 기도자가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은 대제사장이 되었고, 목자이며 선생님입니다." 라고 선포했다. 콥트교회의 역사적인 날, 1959년 5월 10일, 은둔자 미나 알-무타와하드는 시릴 4세로 임명을 받으면서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왼손으로 손수건을 눈으로 가져가 눈물을 닦았으며, 오른손으로는 커다란 금으로 된 콥트십자가를 꼭 붙잡았다.

새 교황으로 선출된 그는 첫 방문지로 그가 혼자서 4년 동안을 울며 기도했던 수도원 동굴을 찾아 갔다. 동행한 한 주교가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는 "책임감이 큽니다." 로 대답했다. 1902년생인 마부나 미나(Abuna Mina)의 수도사로서의 일생은 25세 때부터 시작되었다. 1931년에 성직을 받았고, 수도사가 되기 위해 2년간 핼완 학교(Helwan School)를 다닌 후, 알-바라무스(al-Baramus)의 수도원 부근에 있는 동굴로 들어갔다. 식수용 물과 빵을 굽기 위해 필요한 밀가루를 공급받기위하여 수도원을 가는 것 이외엔, 동굴 속에서 오직 금식하며 기도를 드리는 외로운 생활을 하였다.

그는 St. Michael교회와 St. Theodore교회 가까이에 있는 곳의 조그만 방에서 수년간 지내다가, 1944년에 상 이집트의 St. Samuel수도원의 수도원장이 되었다. 사막에 있는 수도원에서 가장 외롭게 지낸 수도사이었으므로, 순례자들(pilgrims)이 그가 있는 곳까지 찾아와 그의 조언을 구했고 그럴 경우에 그는 기도를 해주고 축복도 해 주었다. 그는 순례자들이 헌금해 준 돈으로 Old Cairo에 St. Menas교회를 지었고, 수도원 생활을 배우기 위한 학생들을 훈련시켰다. 현 세대에 그의 영향을 받은 수도자들 중에 Abuna Makari as-Suriani와 Abuna Matta al-Maskin이 있다.

이집트 콥트 공동체의 사회는 반드시 교회의 주교들 중에서만 교황이 선출되는 것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아니라, 수도원의 수도사도 교황의 후보자가 될 수 있었다. 실재로 제116대 교황 시릴 4세처럼 수도사가 교황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115대 교황 안바 유사브 2세처럼 교황이 또한 기도에만 전념하는 수도사로도 계속 남아 있었다. 구약 성서에 기록된 이사야의 예언(이사야19:19) - 그 날에 이집트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교회)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수도원)이 있을 것이요. - 의 실행이 21세기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었다(제2장 참조).

즉 엄격한 예배의식과 콥트 기독교인들을 응집케 하는 교황의 권위와 지도력 그리고 사막에 운둔하며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배출한 수도원의 영성이 콥트교회를 지탱해 주는 힘이 되었다. 콥트교회의 교황과 수도원의 마타(수도원장)가 바로 그 콥트공동체를 대표하는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었다. 교황은 어느 때이든 교회에서 성도들이 질문하는 것을 쾌히 허락하였다. 성경강해 시간이 시작되면 성도들은 질문이 적힌 작은 쪽지들을 교황에게 전달하였고, 교황은 가끔 유머를 섞어가며 모든 사람의 질문에 대답하였다. 특히 쉐누다 교황은 그가 해야 할 역할의 비중을 여기에 두었고, 1960년대부터 시작된 콥트 신학교 교육을 새롭게 확장시켜서 신학생 수를 3배나 많게 늘리는데 공헌했다. 1900년에서 1961년 사이에 500명의 신학생들이 배출된데 비해 1964년부터 1994년까지 배출된 신학생의 수는 2,300명에 이르렀다. 그들 중 주교가 된 사람들도 많았다.

한편 수도원의 마타는 초기 교회 선배들의 엄격한 연구에 기초를 두고 영적인 발전을 도모했다. 수많은 콥트들이 수도사적인 삶에 동참했고 개혁적 수도사 그룹을 형성했다. 그리고 1969년엔 오직 6명의 고령의 수도사들만이 거주하고 있었던 마카리우스 수도원을 재건해달라고 마타에게 부탁하였다. 당시 대부분의 건물이 붕괴되어 있었으며 주위의 땅 또한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현재 마카리우스 수도원은 농업프로그램으로 풍성함을 누리고 있고 수도사들도 약 100명에 달한다. 또 100여권의 콥트 신앙문서를 발간하였다.

2. 제117대 교황 쉐누다 3세(Shenoudah III)의 업적과 콥트의 해외이주 시작

쉐누다 교황은 1923년 남부 이집트의 아시우트 주의 "살람"(평화) 마을에서 태어났다. 속명은 나지르 가이드 라와필(라파엘). 출생시 어머니를 잃었으나, 그는 카이로 대학교(그 시절에는 푸아드 1세 대학교)에 입학해서 이집트 역사를 공부하였다. 1947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년에 졸업하면서 성 마르코 교회의 성직자 대학에 입학했다. 1940년대 와프드 당이 집권하던 그 시기는 이집트 자유주의의 황금기였다. 그러나 그는 와프드 당에서 콥트 운동가들이 주도권을 상실하여 떨어져 나가는 장면도 목격했다. 졸업 이후 잠깐 이집트 군에서 중위로 복무하다가 콥트 신학 학교에서 낮에는 영어 선생님으로, 밤에는 신학을 배우는 학생으로 활동했다.

1954년에는 수도승이 되어 수도원에 머무르면서 약 10년간 동굴 속에서 기도와 명상으로 시간을 보냈지만, 1959년엔 당시 콥트 제116대 교황 시릴 6세(Cyril VI)의 개인 비서로 잠시 일하기도 하였다. 이후 그는 자신이 공부한 성직자 대학의 학장으로 임명되었는데 이는 콥트교회에서 교육 부문에 주교로 임명받은 첫 번째 사례였고, 1971년 시릴 6세 교황의 선종 시 117번째 교황으로 선출되었다.

교황이 되기 전에 신문기자로도 일한 적이 있어서 그는 언론인 노조 소속이었기에, 알 아흐람 지(紙)에 글을 기고하기도 했었고, 1949년에는 콥트교회 부흥 운동의 일환으로 창간된 "주일 학교"란 잡지의 편집장으로 일하기도 했다. 이 잡지에서 일하던 사람들 중 많은 수가 나중에 콥트교회 및 세속주의 운동의 지도적 인물이 되었다.

교황이 된 이후, 그는 매 수요일마다 압바시야 광장의 거처에서 신도들의 질문과 고민에 대답해주는 모임을 가졌고, 이집트의 여러 수도원을 수리하고 건설하는데 노력했다. 또한 콥트교회 내의 여성의 참여의 길을 열어주었다. 이 덕분에 여성작가 나빌라 미카일 유수프는 잡지 "설교"에 "지식의 걸작들" 이라는 글을 쓸 수 있었으며 1989년부터는 콥트 전체가 모이는 신도 회의에 의원으로 참가할 수도 있었다. 여성뿐만 아니라 청년들을 끌어들이는 데에도 관심을 가져 "청년들의 주교"란 직책을 만들어, 무사 신부를 임명하기도 했다.

1986년부터 처음으로 이집트 정치, 사회계 주요 인사 머프티(mufti)들과 함께 이프따르(iftar 매일 하루의 금식을 끝낸 이후의 식사)를 함께 가지기도 했다.

쉐누다 교황은 사다트의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정 정책에는 반대를 표했다. 1977년도에 사다트의 이스라엘 방문에도 동행하지 않았다. 사다트 대통령이 그를 북부 이집트에 있는 와디 엘 나트룬(Wadi El Natrun)의 사막 수도원에 연금시켜 버림으로써, 그는 무바라크가 대통령에 취임한 1985년에 이르러서야 복직되어 카이로로 돌아올 수 있었다(Makari, 2007, 57). 이 사건 이후, 이집트의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정에 불만을 품은 아랍 세계에서는 교황의 인기가 오히려 크게 올라, 아라파트가 이집트를 방문했을 때, 쉐누다 교황을 찾아오기도 했다.

사다트는 나세르주의자와 좌익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이슬람주의자들을 지원했었는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데, 이로 인하여 콥트교회에 대한 원리주의자들의 테러가 시작되었다. 카이로 근교의 칸카 지역의 교회를,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슬림 집단이 불태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은 그 곳으로 달려가, "어떤 대가를 치르던 간에 예배는 진행하라" 라는 명령과 함께 성직자들을 위로했다.

새로 집권한 무바라크는 온건 성향이든 무장 집단이든 간에 무슬림들의 과격 행위들을 억누르는 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다. 과격한 이슬람주의자들의 집권을 두려워하던 쉐누다 교황은 무바라크에 대한 지지 선언을 여러 차례 하면서, 콥트들에게는 자제와 인내를 요청하였다. 2011년 1월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도, 콥트들에게 혁명에 참가하지 말 것을 촉구하였다.

무바라크 집권기동안 이슬람적인 요소가 강해지자, 콥트교회는 신도들을 보호하는 조직체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에 따른 교회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로 인하여 교황이 콥트교회를 "국가 안의 국가"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다만 많은 콥트들은 이집트 정부가 그들을 국민으로 보호해주지 못하는 만큼 교회가 그들의 보호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물론 무바라크에 대한 교황의 지지 입장은 콥트교회 내의 세속주의와 자유주의 세력으로부터도 비판은 받아왔다. 결국 교회 상층부의 입장과는 상관없이, 마스페로 청년동맹, 콥트 여단과 같은 청년 세력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에 참가했다. 또한 콥트들의 정치적 성향을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닌, 교황이 집단의 성향을 정해 주고 신도는 그에 따르게 하는 경향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쉐누다(Shenoudah III)교황이 마지막까지 콥트들의 정신적 지주로 그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기 때문에, 많은 신도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있는 교황과의 접견에 더욱 모여들곤 했다.

불안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일부 콥트들은 20세기이후부터 해외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그들 중 대부분이 미국으로 이주하고 있다. 그 외에도 유럽, 캐나다, 호주로도 이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집트 국내에 거주하는 숫자에 비하면 소수 중에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미국에 이주하여 정착한 콥트들은 미국 콥트 문화(American Coptic Culture)를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또는 트위터로 여론화시키려고 한다. 이집트 국내의 콥트인들은 아랍어와 콥트어만 공부하면 되는데, 미국에서 살고 있는 콥트인들은 영어로도 잘 구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으로 콥트교회를 세계에 알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쉐누다 교황은, “콥트 문제는 국내 문제이므로 세계에 알리지 말고 국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타국의 부정적인 간섭을 반대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으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나(Makari, 2007, 171-172), 이미 많은 콥트들이 미주 각지에서 콥트교회를 세우고 정착하여 대를 이어가고 있다. 미주에 이주한 이집트인이 콥트만은 아니고 이집트 무슬림이 더 많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이집트 국위 선양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었다.

한 예로 쉐누다 교황은 독일 콥트 발언 뉴스에 민감한 반응의 비판을 보였다. 1992년 8-9월 세계뉴스사들이 독일에 사는 한 콥트가, 자기가 콥트들의 망명정부 수반이라고 주장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집트 콥트들은 이 소식에 대해 거부 반응을 일으켰다. 왜냐면 이집트 밖에서 콥트들이 취한 잘못된 행동으로 보았기 때문이었다. 콥트국가 설립의 주장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칭했다. 서방 홍보 매체들이 사실과는 다르게 또는 콥트의 전통과도 다른 생각과 방향으로 이 하찮은 사건을 확대하여 선전했다고 덧붙였다. 쉐누다 교황은, 독일에 사는 이 콥트는 직책이 있는 책임자도 아니고 편파적인 공격으로 집단 난동을 꾸미기 위한 도구로써 이용당했다고 꼬집었다. 오히려 난동을 자극하려하는 외국 세력을 비난했고 국민적 일체감과 이집트 공동체의 두 요소 즉 무슬림과 콥트기독교도들 사이의 역사적인 공존 조직을 위한 보호로써 이와 같은 세력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였다(윤상구, 1997, 237).

이와 같이 쉐누다 교황은 이집트 내의 콥트들의 문제에 대해 미국이나 유럽 등 외부세력이 개입하는 것에 항상 반대해 왔다. 이집트 내부의 문제는 콥트와 무슬림 모두를 포함한 이집트인들이 풀어야 할 문제이지 외부인이 간섭할 문제는 아니라고 그의 생각을 주장했다.

이집트는 대통령에 따라 정책에 변화가 있음으로 희비가 엇갈릴 수 있고 갈등과 협동이 교차될 수 있다. 각개인의 신앙생활은 지상생활이 곧 내세와 연결된다고 믿고 있고, 구원이 정부의 강요된 조건을 의무적으로 수행함에 있지 않고, 유일신의 은혜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콥트들은 지상에서의 생사와 관계없이 신앙의 정체성을 붙잡는다. 그러므로 콥트들은 개인적 신앙생활이 보장되고, 그들의 신앙생활이 정부의 정치행정력의 심한 간섭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20세기에 일어난 콥트들의 변화는 더 이상 절제와 인내를 감수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통수단이 발달하여 외국과의 왕래가 편리해 졌고, 둘째, 신문이나 라디오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인터넷을 통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모바일 폰 등 이동통신의 발달로 정확한 뉴스의 정보 교환이 빨라졌기 때문이다. 셋째, 신앙의 자유를 선택하여 삶의 의미를 추구하며 해외로 이주할 수도 있으며, 넷째, 이집트 내에서도 민주화의 물결이 일어났음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지금까지 콥트교회가 이집트에서 맥을 끊지 않고 2,000년을 이어온 콥트의 인내와 용기를 높이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의 콥트들을 이끌어 온 제117대 콥트 교황의 업적을 재조명해 볼 필요성도 느끼게 한다.

20세기, 1960년대에 미국으로 이주가 개방되기 시작되었을 때부터, 이집트 콥트들도 미주로 이주하기 시작하였고, 1971년에 즉위했던 117대 쉐누다 3세가 1977년 미국을 방문함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었다. 이집트에 고립되어 있었던 콥트 교회와 콥트문화가 널리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가 2012년에 별세했음으로 1971년부터 2012년까지 40년 동안 콥트를 이끌어 왔다. 2,000년 동안을 117명의 교황이 즉위 했었으니, 평균적으로는 한 교황이 약 17년간 콥트들을 이끌어왔다는 셈이 된다. 쉐누다 교황은 콥트들의 지도자로 종교분쟁을 줄이고 종교 자유의 권리를 증진시키려는데 많은 노력을 하였다.

3. 제118대 타와드로스 교황과 정권교체

제118대 교황 선출도 역시 수사와 교부 중에서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타와드로스(Tawadros)가 선출되었다. 콥트들은 비무슬림이기에 2류 국민으로 차별을 받아 왔으나, 이집트에서 태어난 이집트인임에는 분명하므로 공평하게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제공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그러므로 새로 선출된 대통령의 정부와 새 교황에 희망을 걸게 된다.

새 교황 선출에는 이집트 대통령의 동의서가 필요하므로, 5대 대통령 모르시가 동의서에 서명을 하게 된다. 대통령의 동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교황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교회 협의회가 콥트교회 공동체를 이끈다. 2012년 11월4일 이집트 카이로 압바시야의 성마가(St. Mark) 성당에서 눈을 가린 소년이 새 교황 후보 3명의 이름이 적힌 종이가 들어있는 성배에서 하나를 뽑자, 한 사제가 새 교황 타와드로스(60) 주교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들어 보였다. 타와드로스는 '신의 뜻'에 따라 지난 3월 숨진 전 교황 쉐누다 3세를 이어 제118대 콥트교황으로 선출되었다. 새 교황에게는 어렵고 복잡한 임무가 기다리고 있다.[52] 콥트들에게 콥트 교황은 여전히 정신적인 아버지로 존경을 받

52) http://www.bbc.co.uk/arabic/middleeast/2012/03/120317_pope_copts_fears.shtml
http://www.bbc.co.uk/arabic/middleeast/2012/03/120317_pope_egypt_obituary.shtml
http://www.bbc.co.uk/arabic/middleeast/2012/03/120317_egypt_pope.shtml
http://www.aljazeera.net/news/pages/d189c5ee-5f69-46e6-bc94-1259184c4af1?GoogleStatID=1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는다. 그런데 제5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모르시가 이슬람강경주의자의 압력 때문에, 새 교황 타와드로스 2세 즉위식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콥트 공동체에 불안감이 감돌게 되었다.

또 다른, 콥트들에게 위기감이 강조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호스니 무바라크 축출 이후, 이슬람 정권이 들어서고, 반미 폭력 시위를 불러일으킨 영화 '무슬림의 무지'를 미국 거주 콥트교회 신자가 만든 것으로 알려지면서였다. 이집트에서 발생한 최대 유혈사태 속에 콥트교회의 수난이 또다시 시작된 셈이다. 콥트교회는 아랍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독교 공동체다. 무슬림의 공격에 평정을 잃을 콥트교회는 아니다. 신학적으로 독자적인 교리를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동·서방 교회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한 채 외롭게 살고 있을 뿐이다.

이집트는 나세르 대통령 집권 이후 反이스라엘 전선과 비동맹국가회의를 주도하며 외교, 군사강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집트의 정치적 격변에 대해서 미국 등 서방세계가 주목을 하는 이유는 이집트가 서아시아지역에서 오랜 기간 지역강국으로 군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집트 내에서 군부가 가장 강력한 엘리트집단이다.

서아시아지역의 민주화바람을 몰고 왔던 이집트에 결국 군이 개입하고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 모르시가 권좌에서 물러났다. 1년 전의 민주화운동을 통하여 혁명의 주체 세력은 아니었지만, 군부에 대한 오랜 투쟁 경험 및 조직과 자금으로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무슬림 형제단은 그들의 과도한 권력 추구로 말미암아, 혁명 주도 세력의 반발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군부의 정치 개입 및 권력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결국 이집트 국민과 군부의 퇴진 압박에도 사임을 거부해온 모르시는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약 1년 만에 대통령직을 잃게 됐다. 모르시가 축출된 이후 일어난 이슬람주의자들의 폭력시위 과정에서 많은 콥트 교회들이 공격을 받았다. 그 당시의 압델 파타 엘시시 국방장관이 국영TV 생방송을 통하여 모르시 대통령의 권한을 박탈했다고 공식 발표를 했다. 모르시가 이집트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그는 설명했다.[53] 엘시시 장관의 발표 회견장에는 이집트 최고 종교 기관 알 아즈하르의 수장인 아흐메드 알 타이예브 대(大) 이맘과 나란히 교황 타와드로스 2세도 참석했다. 그는 이집트에서 처음으로 민주적 선거를 통해 당선된 이슬람주의자 대통령

---

http://www.bbc.co.uk/arabic/middleeast/2012/03/120318_egypt_pope_second_night_vigil_.shtml 의 신문 기사 보도 인용

53) http://www.tokyo-np.co.jp/s/article/2013070401000691.html (東京신문 7월 4일)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모르시를 축출한 엘시시를 강력히 지지해왔다.

이집트의 콥트 교회 부활절을 앞두고 2014년 4월 19일 엘시시가 대선출마를 발표한 이후 첫 공식 활동으로 교황 타와드로스 2세를 방문했다. 이스라엘에 적대적이던 모르시와는 달리 친이스라엘 성향을 띤 엘시시가 극단적인 이슬람 원리주의파인 무슬림 형제단과 모르시 대통령 세력을 밀어버리고 대통령이 되었다.[54] 엘시시가 새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이집트군 실세인 엘시시의 대통령 취임식은 수도 카이로 헌법재판소에서 삼엄한 경비 속에서 이루어졌고, 그의 4년 임기가 시작되었다. 이번 취임식에는 아들리 만수르 임시 대통령과 이브라힘 마흐라브 총리, 이집트 최고 종교기관 알아즈하르의 아흐메드 알타예브 대(大)이맘과 함께 교황 타와드로스 2세가 참석했다.[55] 지난해 부활절에 타와드로스 2세가 머무는 카이로의 성 마가 성당을 모르시는 직접 방문하지 않았고, 이미 언급했듯이, 그 대신 다른 사람을 대표로 보냈었기 때문에, 엘시시가 교황에게 기독교인이라고 폄하하는 무슬림들은 계속 단속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성명의 발표는 모르시의 정책과 크게 비교가 되었다.

세계의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은 "엘시시 대통령이 독재자가 되지 않는다면 이집트 기독교 공동체는 그 규모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지만, 엘시시 대통령이 무바라크처럼 독재자가 되거나, 기독교인들이 엘시시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면, 이집트 기독교 공동체는 큰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즉 이집트 기독교 콥트공동체의 운명은 현 군부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것이다.

콥트 교황 타와드로스 2세는 공식 트위터(twitter.com/PopeTawadros)에서 "모든 교회가 이집트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며 중보기도를 요청했다. 전 세계 많은 기독교도들이 이 메시지를 리트윗 했다. "콥트교회는 이집트가 더 정의롭고 민주적인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 사태를 주관하실 것으로 믿는다. 폭력은 기독교도들뿐만 아니라 무슬림 형제들도 다치게 하고 있다. 인간성과 윤리, 종교 정신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제2절 현재의 콥트의 언어와 상황

---

5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6/04/0200000000AKR20140604003353079.HTML?input=1179m

55)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608_0012969021&cID=10103&pID=10100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 이집트 아랍어 방언

21세기, 오늘날, 대다수의 이집트 콥트들에게 그들 서로 상호간에도 콥트어로 소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대신 그들이 능숙하게 사용하는 언어로 아랍어가 있다. 그런데, 아랍어권 세계에서 공용어인 아랍어가 '푸스하(Official Arabic)'와 '암미야(Spoken Arabic)'라는 두 가지 말로 공존하고 있다(요시미 순야 외 엮음 2007, 60-71).

모스크(Mosque)의 첨탑 미나레트(Minaret)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고전 아랍어로 하루 다섯 번의 예배시간을 알리는 아잔(Azan) 또는 코란(Koran)의 낭송이 흘러나온다. 바로 이 고전 아랍어가 이슬람 성립 이래 1,400년 가까운 세월을 거치면서, 발전을 이룩해 온 언어인 현대 표준 아랍어(Modern Standard Arabic)이다. 그러므로 고전 아랍어와 현대 표준 아랍어는 기본적으로는 같은 말이며, 이 둘을 합쳐서 '푸스하'(Official Arabic)라고 부른다.

이집트인들은 1,400년이나 넘는 옛날에 사용되었던 말을 오늘날에도 반복해서 접하고 있다. 고전 아랍어가 오늘날에도 일상적인 것이다. '아랍어 연구소'가 7세기 코란의 시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아랍어의 전통을 지키는 감시자로서의 기능을 한다(요시미 순야 외 엮음 2007, 64-65). 1842년에 카이로에 설립된 이후, 1982년에 교육부 소관 독립기관으로 확립되었다. 아랍어연구소에는 문학, 철학, 경제학, 역사학, 지리학, 생물학, 화학 등 26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각 위원회는 서적과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매스미디어가 내보내는 아랍어의 표기를 체크해 코란의 아랍어 규범에서 벗어난 표현이 있으면 경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도 활동을 한다. 또한 지금까지의 아랍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이 들어올 때마다 그 용어에 해당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심의를 하여, 가장 적당한 아랍어로 번역을 부여한다. 이러한 활동 덕분에 외래어가 범람하기보다는 순수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표준 아랍어는 늘 코란의 아랍어에 비추어 그 옳고 그름이 검토되기 때문에 원칙에서 벗어난 용법이나 용례가 후대에 이르러 정당화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아랍어연구소의 권위의 원천이며, 매스미디어가 이 연구소의 지도를 존중하는 요인이 된다(요시미 순야 외 엮음 2007, 66).

푸스하가 아랍 세계의 공통의 말인 데 비해, 암미야는 서민들이 사용하는 구어(Spoken Arabic)이다. 아랍 세계의 지역과 각 나라에 따라 암미야의 어휘 표현은 상당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한 차이가 있다. 오늘날, 아랍 세계에 널리 퍼져 통용되고 있는 암미야는 이집트 방언이다. 암미야는 문자로 표기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신문이나 잡지 만화의 대화 부분, 소설의 회화 부분, 광고의 카피 등에 암미야가 사용되고 있지만 정해진 표기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요시미 순야 외 엮음 2007, 75). 바로 그 이집트 방언인 암미야 아랍어로 매일 매일 일상생활에서 콥트들과 이슬람으로 개종한 콥트무슬림들과 아랍인들이 함께 서로 의사소통을 공유하고 있다.

2. 콥트의 신앙생활과 최근의 상황 및 전망

대부분의 콥트들은 하루 1-2번 기도시간을 가지며, 일요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비록 콥트어를 모른다할지라도, 예배 의식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고, 교회나 사회활동을 위해서는 어떤 아랍어 어휘를 사용해야하는지도 잘 알고 있다. 더러는 교회를 가지 않더라도 종교인이라기보다는 콥트인이라는 데 더 강한 느낌을 가지고 있으므로 예수의 수난일에는 꼭 교회에 간다(Wakin 2000, 135). 그리고 무바라크 대통령이 국경일로 정해 준 콥트의 크리스마스 1월 7일을 기념한다(이준교 2008, 143). 콥트의 50%가 금식 기간에는 금식을 시행한다(Lee, Sung Ok, 2002, 110). 콥트들에게 가장 중요한 행사인 부활절 40일 동안 그들은 단식을 한다. 고기류와 달걀은 금지되어 있으나 생선과 야채는 먹어도 된다.

보통의 콥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나일 강 유역에서 인내하며 신앙생활에 우선권을 부여하여 고난을 견디며 산다. 그러나 이젠 고립된 생활은 하지 않으려 한다. 21세기 사회는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국제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 콥트교회와 수도원에서

사막은 저항할 수 없는 실재이다. 이집트의 콥트 수도사들은 인생의 영원한 의미를 추구하는 자들이며, 방해받지 않는 이집트 사막의 변화 없는 환경 속으로 들어가서 단순히 그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갈구하는 바에 대한 확신을 취하려는 자들이다. 수많은 수도사들이 고대 이집트의 신전 또는 그 주위나 격리된 무덤 안에 또는 그 주위에서, 거룩한 성지를 오가며 살고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수도원 생활의 4가지 특징은 대인 관계와 세속으로 부터의 고립, 영성을 추구하기 위한 육체적 순결함, 대수도원장의 명령에 복종과 지도에 따를 준비됨,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을 실행하기 위한 자발적인 빈곤함에 있다. 수도사의 하루 일과는 보통 밤 12시에 찬송가로 시작하는데, 이는 기도의식이 길어서 새벽 동틀 녘이 되어야 성구 암송으로 끝맺기도 한다. 한 예로 금욕 생활을 하는 콥트들의 성향에 맞는 일과표(도표4)를 보면 다음과 같다(Wakin 2000, 126-127).

도표4. 콥트의 수도생활 일과표

시간	공동생활
4:00 a.m.	공동 기도
5:00- 7:30 a.m	미사
7:30- 8:30 a.m.	아침 식사
8:30-10:30 a.m	명상
10:30- 2:00 p.m.	수도원 부근에서 일을 돕거나, 책읽기 또는 명상
2:00- 4:30 p.m.	점심 식사, 휴식
4:30- 5:00 p.m.	영성 추구를 위한 준비, 몸가짐, 자세 갖추기.
5:00- 5:30 p.m.	공동 기도
5:30- 8:00 p.m.	책읽기, 수업, 수도사들과의 담화
8:00- 8:30 p.m.	저녁 식사
8:30-10:00 p.m.	단체 토론 또는 수도사들과 질의응답

한나(Milad Hanna)는 그의 저서 “The seven pillars of the Egyptian identity”에서 조심스럽게 수도원 제도가 파라오 시절부터 존속해 왔던 생각들의 연속됨의 표현으로 나타난 한 예인 것 같다고 제시했다. 또한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콥트어를 공부하고 있었으므로, 콥트어 사용이 수도원의 활성화에 의존되었다고도 지적하였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콥트어가 상형문자나 아람어 또는 라틴어처럼 사어화 되었거나 사라졌을 것이었다고 지적했다(Lee Sung Ok 2002, 69).

마타(Abuna Matta)는 “기독교가 순수한 수도사생활의 이념에 원기회복을 받아서” 되살아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실 교회의 부흥은 수도원 제도의 부흥에 의존하였다. 쉐누다 3세 교황이 나일 강 유역에 있는 사막의 수도원들과 수녀원들을 재건축하여 다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시하였고 조처했었다. 콥트의 수도원과 수녀원이 콥트의 영적 생활에 척추역할을 하고 있었고 수세기 동안 그 기능을 수행해 왔다.(Rowe 2009, 118) 오늘날에도 이집트에 25개 이상의 수도원들이 운영되어지고 있다. 20세기 후반에도 계속 수도원 제도의 부흥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수사들이 젊은 대학교 졸업자들이다. 대학교 졸업생들이 흔히 그들의 직장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수도원에 잠시라도 머물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를 원하고 있다. 수도원 제도는 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도사 생활의 모습이 오히려 현 시대 생활에 더 잘 적응하도록 적용이 될 것이라고 한다(Lee Sung Ok 2002, 70). 콥트 수사들이나 수녀들의 수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와킨(Wakin)은 대충 4백만 콥트들 중에 400명은 수도사들 일 것이라고 추측했다(Wakin 2000, 123).

나. 해외의 콥트교회에서

테러가 빈번히 발생하면 할수록 해외로의 이주가 증가하고 있다. 이슬람들은 그들이 다수이거나 이슬람의 원리가 지배되는 지역은 다르 알-이슬람(Dar al-Islam 이슬람의 집)이라고 보고, 그들이 소수이거나 이슬람의 원리가 지배되지 못하는 지역은 장기적으로 다르 알-이슬람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지역으로서 다르 알-하르브(Dar al-Harb 전쟁의 집)로 본다.[56] 이슬람 강경주의자들은 이집트는 소수의 기독교도들이 있는 한 진정한 다르 알-이슬람이 아니며, 다르 알-하르브 상태의 이집트를 다르 알-이슬람 상태의 이집트로 바꾸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기독교도들이 무슬림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 더 강한 차별대우가 진행되고, 더욱 빈번하게 터지는 기독교회나 교인에 대한 테러가 발생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아무리 2,000년간 계속된 탄압 속에서 자신의 종교를 지켜온 기독교도들이라 해도 그들의 조상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나일 강 유역을 떠나 해외로 이민을 시도하는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송경근 2013.6, 24-29).

그러나 이집트 국내에 거주하는 콥트인구 숫자에 비하면 이주민의 수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미국에 이주하여 정착한 콥트들은 미국 콥트 문화(American Coptic Culture)를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또는 트위터로 그들의 존재를 소개하고 있다. 이집트 국내의 콥트들은 아랍어와 콥트어만 공부하면 되는데, 미국에서 살고 있는 콥트들은 영어로도 잘 구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으로 콥트교회를 세계에 알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교황 쉐누다 3세는, 콥트 문제는 국내 문제이므로 세계에 알리지 말고 국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타국의 부정적인 간섭을 반대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으나(Makari 2007, 171-172), 테러에 불안을 느끼는 콥트들은 해외이주를 서두르

56) Dar al-Islam 는 이슬람이 장악한 지역이고, Dar al-Harb는 아직 이슬람이 장악하지 못한 지역을 일컫는다. 이슬람교도는 Dar al-Harb지역을 Dar al-Islam지역으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길을 가야하는 이슬람교도의 의무로 알고 있다. 이슬람은 기독교 지역을 이슬람화하면서 성장하였으나, 과거의 역사는 상관없고, 현재 자신들의 땅이 된 곳은 이슬람의 땅이라고 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고 있다. 이미 많은 콥트들이 캐나다와 미주 각지에서 콥트교회를 세우고 콥트어를 가르치고 공부하면서 정착하여 대를 이어가고 있다(www.coptic.org. 2013.2.12).

20세기 이래 이집트 콥트들뿐만 아니라 무슬림들도 미국으로의 이주가 증가하고 있다. 리드(Read 2004)는 발표하기를, 2004년도 미국 인구조사 통계에 의하면, 17개국의 아랍국가에서 이민 온 아랍 이민자들 중에서 무슬림은 33%이고 66%가 기독교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아랍계 미국인 단체의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 있는 아랍계 기독교인이 전체 아랍 이민자 인구의 77%를 차지하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Boulos 2011, 4). 그들의 대부분이 이집트에서 온 콥트들로 구성되어 있다. 1996년도에 아부다베(Abudabbeh 1996, 333-346)는 보고하기를 이집트 전체 인구의 약8%에 해당되는 957만 명은 이집트 내에 있고, 120만 명은 이집트 밖에 있다고 한다. 더 최근에 USCIRF(2010)[57]는 이집트에 콥트인의 수가 이집트 전체 인구 약 8천만 명 중 10-15%로 추정된다고 보고하고 있다(Boulos 2011, 10).

교육받은 이집트의 젊은 콥트들이 이집트를 떠나 외국, 주로 미국에서 디아스포라로 살려고 한다. 이집트에는 취업의 문이 막혀있기 때문에 마지못해 떠나는 것이다. 그러나 콥트의 정체성을 버리는 것은 아니다. 단지 공동체 생활의 순환이 깨뜨려지는 것이다. 콥트들은 이미 서구화되어 있다. 이집트를 떠나 흩어진다 해도 콥트들은 일생동안 가족 구성원이라는 하나의 끈으로 연결된다. 이것이 수 세기동안 콥트를 생존시킨 답이다. 가족 단위(family unit)는 교회와 공동체를 불안정한 구조로 세워진 상태에서도 단단하고 굳은 기초를 유지케 한다. 즉 소수파 집단임에도 살아남아 있는 이유는 바로 콥트가정을 이루는 각 가족이 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고, 그 뿌리를 나일 강 유역 골짜기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콥트로 태어났으므로 콥트"라고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비록 대부분의 많은 콥트들이 미국으로 이주해 오기 이전에 그들의 고국에서 차별과 박해를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들은 이집트를 그리워하며 도우려고 한다. 또 다른 나라의 문화에 동화하기 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미국을 이해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안다. 미국으로 이주한 후에도, 고국에서의 집단주의 문화와 공동체생활과 비교하여 미국생활의 다름 때문에 고립되어 있거나, 외롭게 지내거나, 도움을 받지 못함을 느끼기도 한다. 미국으로의 이주생활에 적응 못하는 자들도 있다. 그러므로 미국 곳곳에 그들이 정착한 곳엔 콥트교회가 세워지고 있다. 교회가 있는 곳에서는 콥트어도 가르치고 있다. 이집트를 떠난 콥

57)USCIRF: Annual Report of the United State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트들은 콥트어가 더 이상 이집트 국내에서만 사용되는 언어가 아니라며,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사용했던 말을 하고 싶다. “라고 주장하고 미국에서 태어난 콥트의 후예들도 콥트어를 배우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 What will become of the Coptic church in America?"라고 묻고 있다. Coptic Newspapers, "Watani"와 5개의 Coptic magazines를 발간하고 있다(www.coptic.org. 2013.9.2). 콥트어가 해외 디아스포라 사회에서도 다시 살아나고 있다. 콥트어가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케 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하겠다. 콥트어에 대한 연구가 서서히 활기를 되찾아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콥트들은 콥트어를 버리지 못 한다. 콥트어에 고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 향수를 느끼고 있다. 이집트 순수 원주민이라고 자처하는 콥트들은 2000년 동안 내내 악조건 속에서 고난과 갈등을 인내와 협동으로 견뎌내며 오직 신앙심을 붙잡고 지켜온 그들의 정체성을 콥트어로 가장 적절하고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수도원 제도의 관습은 또한 해외로 이주한 콥트들에게서도 발견되어지고 있었다. 2001년도 8월에 쉐누다 3세 교황이 San Francisco에 세워지는 St. Anthony 수도원 착공식에 참석하고자 방문하였었다.[58] 이 수도원이 콥트들에 의해서 미국에 세워지는 수도원으로 첫 번째의 해외 콥트를 위한 수도원이 된다.

다. 21세기, 콥트와 콥트어에 거는 기대

성서가 각 나라 각 민족 언어로 거의 다 번역이 되어 있으나,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기독교신학교에서 성서 연구에 구약 성서는 히브리어로도, 신약 성서는 헬라어로도 읽고 있다. 나그함마디에서 발견된 문서 중에는 1세기에 예수에게 직접 배운 제자들의 저서가 콥트어로 써져있다고 했다. 콥트어는 이집트 고유의 상형문자와 헬라어가 합쳐져서 생성 활용되었다(제2장 참조). 기원전에 생성 활용되었던 상형문자의 유물과 유적은 있으나 이미 사어화되어 있는 듯한 상형문자를 1799년에 로제타스톤이 발견된 이래 프랑스인 샹폴리옹이 완벽하게 해독하였다는 기록이 있다(제2장 참조). 헬라어는 고대 그리스어이다. 1-7세기에 이집트에 기독교가 깊숙이 전파되면서 콥트어는 생성 활용된 언어이다. 콥트어로 써져 있다는 문서, 나그함마디에서 발견된 문서, 1세기에 예수와 직접 생활하며 훈련받았다는 제자들과 관련이 있다는 이 문서들을 읽거나 각 나라 언어로 번역하기 위하여 콥트들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관심자들도 콥트어 공부에

58) The Copts Daily Digest for Aug. 23, 2001.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치중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지중해문화권의 콥트 기독교문화가 기독교 전파에 따라 대서양문화권으로 옮겨갔다. 21세기에 콥트들 중 일부의 해외 특히 미주, 캐나다와 미국으로의 이주가 증가 추세에 있다. 지중해 문화권에서 유럽과 친숙해진 그들이 대서양을 건너 미주로 생활 터전을 옮기고 있다. 지구는 크게 5대양 6대주로 구성된다. 5대양은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 북극해 그리고 남극해이고, 6대주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북미 남미 그리고 오세아니아이다. 아메리카 대륙에 속한 나라들은 대서양문화권에도 속하고 태평양문화권에도 속한다. 태평양문화권에는 동아시아의 러시아 중국 북한 남한 일본 베트남 필리핀과 오세아니아의 대표로 뉴질랜드와 호주가 있다. 이들 대부분의 나라에는 기독교문화가 깊숙이 전파되어 뿌리가 내려져 있다.

각 나라 여러 민족들 사이에서 성서를 읽고 연구하기를 즐겨하는 기독교도들은 평생에 한 번은 서아시아로의 성지순례를 희망하고 단기 또는 장기 선교여행이나 성지순례 여행 체험에 동참한다. 이집트가 성지순례 대상지에 당당하게 포함된다. 성서의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 이집트가 중요한 배경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콥트 공동체와 콥트교회, 콥트 수도원, 콥트교황, 콥트어문서들에 대하여서는 비교적 알려져 있지 않고 있다. 이집트가 서아시아에 소속된 나라인데도 이집트 콥트들과 동아시아 소속 나라와 특히 한국인과의 왕래가 없었다. 2013년 부산 세계기독교협의회(WCC) 제10차 총회가 부산에서 개최되었는데, 외관상 생소하게 보이는 콥트교부의 낯설은 모습으로의 참석이 언론에 낯설게 보도된 바 있다.

태평양문화권의 동아시아에 위치한 한국의 광주가 2015년 아시아문화전당의 개관을 시작으로 거창하게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된다. 아시아의 전체 즉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각 나라에 포함된 여러 민족의 다양한 문화가 전시되고 공연되고, 각 민족의 언어로 그리고 통역되고 번역되어 소개될 것이다. 여기에 콥트문화와 콥트어도 포함될 것이다. 그러므로 콥트들의 활동이 특히 미주로 이주한 영어권 콥트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리라 예측된다. 미주콥트의 이집트 고국방문 길의 방향잡기에 대서양을 건너 지중해로의 진입이 익숙하여 좋겠지만, 방향을 다르게 반대 방향으로 태평양을 건너 태평양문화권의 나라에 머물다가 인도양을 건너 이집트 나일 강 유역으로 가는 방법도 있음을 고려해 볼 가치는 있을 것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5장 결 론

본고는 이집트 콥트 문화를 역사와 언어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AD 1세기에 생성되기 시작한 콥트어는 이집트의 지리적 위치와 환경, 주변 국가와의 관계, 역사, 종교와 정치, 그리고 문화권의 이동이라는 변화에 적응, 동화, 혹은 거리를 두며 어떤 때는 역사적, 문화적 발전의 중요 수단으로, 어떤 때는 중요한 정치적 매개로 작용해 왔다.

지중해는 남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서아시아에 소속된 여러 나라들을 연결시키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집트가 지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곳에 위치한다. 남유럽을 마주보며 서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딱 경계선을 차지하고 있다. 육지로는 서아시아에도 속하고 아프리카에도 속하며, 해양으로는 수에즈 운하가 홍해와 지중해 사이에서 명실 공히 수문장 역할을 한다. 교통의 중심지요, 문물 교환의 중심지이다. 지중해 문화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이다. 세계 최초의 등대가 알렉산드리아 항구 앞에 세워졌었다.

이집트에는 세계에서 제일 긴 강 나일 강이 흐른다. 나일 강 유역에서 생산되는 풍요로운 농산물이 이집트를 부유하게 했으며, 세계 최초의 도서관을 신축한 학문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이웃나라 유대인의 민족 이동을 체험했다. 그들의 유대교 신앙생활에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이집트는 마케도니아제국, 로마제국과 비잔틴제국, 아랍제국, 그리고 대영제국을 포함한 대서양문화권의 열강들에게 정치와 군사적으로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외침과 간섭에 시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콥트들의 굳건한 정체성이 21세기에도 그들 고유의 문화를 돋보이게 유지시키고 있다.

본고는 이집트 콥트의 문화를 연구하여 다음의 결과를 도출했다. 첫째, 인내와 끈기를 발휘해온 이집트의 콥트가 누구인지를 밝혀냈다. 1세기에 마가에 의한 기독교 전파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로마제국에 참담한 순교를 당하면서도 굽히지 않고 기독교 신앙생활에 몰입하여, 전 국민이 신실한 기독교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민족으로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찾은 이집트 기독교인을 7세기 때 아랍인들이 콥트라 칭했다. 콥트들은 이사야의 이집트인에 대한 두 기둥 예언을 입증하고 있는 민족이다. 1세기부터 21세기 오늘날까지 교황을 선출하여 그를 중심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으며, 콥트교회들과 수도원들을 약 2,000년 동안 계속 유지해 오고 있다. 세계 최초의 수도원생활과 그 제도도 이집트 콥트들이 시작하였다.

둘째, 콥트의 선조인 이집트인들이 상형문자를 사용했듯이, 파라오의 후손인 이집트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콥트들은 그들 고유의 문자인 콥트어를 만들어 사용했다. 그들은 상형문자에 헬라어 알파벳을 추가하여 말과 글로 그들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신앙생활의 모습을 자유롭게 표현했다. 그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표현을 풍족히 하기 위하여 콥트어의 생성이 필요했으며. 콥트들끼리 사용하는 언어였기에 콥트어라 했다. 헬라어로 된 문서들 대부분을 콥트어로 번역하여 읽었다. 콥트어로 기록된 나그함마디 문서가 발견되었으므로 이를 확실하게 입증하고 있다. 이집트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 많은 교황과 교부들 중에서 특히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중심으로 한, 교부들의 활동이 분부시게 빛났었다. 로마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기 전에는 순교자의 시대라 칭할 만큼 많은 콥트들이 순교를 당했다. 로마제국이 동과 서로 분리된 후로는 이집트는 동로마제국 즉 비잔틴제국으로 소속되었다. 각 공의회가 열릴 때마다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교부들이 대표로 참석하곤 했었는데, 칼케돈 공의회에서 단성설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이단으로 몰려 고립되었으나, 642년 이슬람을 신봉하는 아랍군에 의해 이집트가 점령당하기 전까지는 자유롭게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였던 황금기를 누렸었다.

셋째, 콥트어가 21세기에도 소멸되지 않고 살아남은 요인들에 대하여 분석했다. 특히 아랍군이 이집트를 정복한 후, 이슬람 사회 속에서 콥트들은 점진적으로 여러 갈등요인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아랍군에 의해 점령당한 아프리카의 다른 지역 민족들의 토속어들은 모두 다 사어가 되어 사라졌지만, 오직 콥트어만이 약 1,400년 동안 이슬람 사회 속에서 통용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콥트들은 대대로 두 언어를 유창히 구사하는 이중 언어 민족으로 살아 왔다. 로마 비잔틴 시대에 콥트어와 헬라어를 사용했듯이, 초기 아랍제국시대에는 콥트어와 아랍어 즉 콥트어는 가정과 교회에서 아랍어는 사회생활의 공용어로. 그리고 점차 콥트어가 교회와 수도원에서만 사용되는 제식 언어로 되면서, 아랍어 방언과 아랍어 표준어를 사용하는 민족이 되었다. 언어는 시대에 따라 발전되고 변용된다. 자연스럽게 고전 아랍어인 표준아랍어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발전되는 시대와 사회에 맞게 아랍어 방언을 생성하여 풍부한 어휘 구사력으로 통용하였다. 아바스 시대에는 각 종 헬라어 문헌을 아랍어로 번역하는데 공헌하기도 했다.

특히, 아랍어 방언이 활성화 된 까닭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아랍어 표준어만으로는 일상생활의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았으므로 콥트어가 아랍어와 섞여져서 써졌기 때문이었다. 마치 상형문자에 헬라어를 추가하여 콥트어를 만들어 냈듯이, 아랍어 표준어에 콥트어를 추가하여 아랍어 방언을 생성시켜 일상생활에 사용하였던 것이다. 언어도 살아 있어서 각 시대에 따라 변화 변모한 까닭에 이집트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는 아랍어 방언이 활성화되었다.

콥트는 아랍세계를 충분히 이해는 한다. 그러나 온전히 동화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이슬람 사회 속에서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하며 노력해 왔다. 콥트가 약 1,400년의 세월을 아랍 세계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콥트들 대부분은 종교를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하여 콥트무슬림이 되었으나, 그래도 약 10%는 여전히 콥트로 기독교인으로 남아 있다. 언어는 사회생활을 위한 공용어인 아랍어를 사용할지라도, 신앙생활만은 기독교도로 이집트 콥트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기 원하기 때문이다.

유럽으로부터의 십자군 침입이 콥트들에게 이중고를 겪게 했던 시기도 있었다. 아랍군의 십자군 전쟁을 물리쳐 이룬 승리가 아시아와 유럽 간의 교역을 차단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음으로 지중해 연안의 지중해문화권에 속한 이집트 콥트들에게는 유럽과의 문물 교환만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런 환경은 콥트들이 서구화를 지향하게 하였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군대의 3년간(1798-1801) 이집트 점령이 콥트들로 하여금 더욱 지혜롭게 표현하는 언어생활의 중요성을 깨우치게도 했다. 콥트어는 상형문자와 헬라어가 합하여 생성된 언어임을 이미 밝혔는데, 그리고 상형문자는 사어화 되어 잊혀진 문자였는데, 프랑스 군에 의한 로제타스톤 발견(1799)이후 프랑스인 샹폴리옹이 상형문자를 해독하여 그 의미를 밝힘으로써 다시 그 글의 내용을 이해하게 되었고 상형문자의 가치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종교문화로 그들의 정체성과 풍속을 유지시키고 있는지도 연구분석하여 보았다. 그 첫째는 콥트들이 특이한 교황 선출 방식의 전통을 고수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약 2,000년 동안을 한결같이 그들만의 방법으로 교황을 선출하여 교황을 그들의 대표자로 추대하며 섬기고 있다. 2012년에 제118대 교황 타와드로스 2세(Tawadros II)도 같은 방식으로 선출되어 즉위하였다. 2,014년 동안을 118명의 교황이 즉위하였으니, 평균적으로는 한 교황이 약 17년간 콥트공동체를 이끌어오고 있는 셈이 된다. 이슬람사회 속에서 콥트 공동체의 존속을 위하여 콥트들은 콥트교황의 강력한 지도력을 요구하였다. 그들이 비록 선출했을지라도 제115대 교황처럼 우유부단하여 교황의 지도력이 약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교황을 수도원에 유배시키고 그가 자연사할 때까지 세 명의 주교로 형성된 삼두정치 체제로 콥트공동체를 이끌기도 했다. 그 두 번째는 교회와 수도원에서 콥트어를 제식언어로 사용하며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며, 세 번째로는 테러를 인내와 자비로 승화시켜 평화를 추구했다는 것이다. 콥트들은 이슬람으로 개종을 안 하는 대신 세금을 지불하는 쪽을 택했었다. 그러나 일부 극단적 이슬람주의자들은 단지 콥트가 비무슬림이라는 이유로 콥트들을 공격하거나,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콥트교회와 기물들을 파괴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한 예로 쿠쉐마을에서 일으킨 테러를 들 수 있다. 콥트들은 대화로 갈등이 해결되기를 원하였으므로 쿠쉐마을 이름을 평화마을로 바꾸어 부르는 것으로 해결하였다. 네 번째, 1992년 이후에도 여전히 수많은 콥트들이 이슬람 과격파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으나, 무바라크 정부가 '체제를 따르는 이교도는 보호해야한다'는 이슬람 원칙에 따라 그들을 보호하려는 정책을 취했었다. 무바라크는 정권의 안정과 국가의 지도자로서 중재자의 역할을 위하여 이슬람 과격 세력의 활동은 억제하면서, 기독교도들에 대하여 관대한 정책을 취하였다. 무바라크의 노고는 지대했다. 2003년 1월 7일을 콥트 크리스마스 국경일로 정하여 국내 국외에 널리 공포하였고, "Reading for All"캠페인을 일으켰었다. 그러나 콥트들은 언제 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테러에 대한 불안감이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바라크 정권의 대화제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국경일 지정은 그들 스스로의 능력 즉, 피눈물 나는 인내, 자비, 용서, 그리고 능숙한 어휘 구사력과 표현력을 통한 설득력으로 그들이 스스로 성취했다고 인정하고 있다. 다섯 번째, 콥트들에게는 콥트문화축제로 7개의 대 축제와 7개의 소축제가 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행사는 크리스마스 대축제를 기념하는 것이고, 40일 동안 단식하는 부활절이다. 콥트들은 이집트 국내에 있건 해외에 있건 관계없이 콥트어를 몰라도 일요일에는 콥트교회에 간다. 교회에 가지 않더라도 콥트민족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예수 수난일에는 교회에 간다.

이슬람 사회 안에서 단지 약 10%로 줄어든 소수 인구(약 8백만 명, 2013년 통계)가 콥트공동체로 남아 있을지라도,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콥트어를 그들의 제식언어로 사용하며 콥트교황을 선출하여 그를 중심으로 콥트교회생활과 수도원생활을 유지하여 콥트 공동체를 존속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콥트는 서로 다른 문화라 할지라도 문화간에 협력을 도모하고, 이슬람 사회 속에서 콥트의 생존을 위하여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며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언어생활을 택한 민족으로 콥트어를 존속시키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21세기의 콥트공동체의 전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유추하여 본다. 첫째, 21세기에 세계 기독교 신학계에서 콥트어에 관한 관심이 서서히 대두되리라 여겨진다. 샹폴리옹의 상형문자 해독이 있었으므로 그리고 신학교에서 헬라어를 공부하고 있으므로, 1세기 초기 기독교시대 문헌(나그함마디) 번역을 위해서라도 콥트어를 연구할 가치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집트의 콥트들은 교회와 수도원에서 콥트어 공부를 한다. 두 언어 구사력에 능숙했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그들은 아랍어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능숙하게 표현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둘째, 20세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후의 콥트들은 옛날 그들의 선조들이 했던 절제와 인내를 더 이상 똑같이 감수하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교통수단이 발달하여 외국과의 왕래가 편리해 졌고, 신문이나 라디오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인터넷을 통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모바일 폰 등 이동 통신의 발달로 정확한 뉴스의 정보 교환이 빨라졌기 때문이며, 신앙의 자유를 선택하여 삶의 의미를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해외로 이주할 수도 있으며, 이집트 내에서도 민주화의 물결이 일어났음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0세기 1960년대 이래 이집트 콥트들도 해외로의 이주가 용이하고, 117대 교황 쉐누다 3세가 1977년 미국 방문 후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집트에 고립되어 있었던 콥트 교회와 콥트문화가 널리 세계에 알려지고 있다. 콥트교회가 있는 곳에서는 콥트어를 가르치고 있다. 수도원 제도의 관습 또한 해외로 이주한 콥트들에게서도 발견되어지고 있다. 2001년도 8월에 쉐누다 3세 교황이 San Francisco에 세워진 St. Anthony 수도원 착공식에 참석한 바 있다. 이 수도원이 콥트들에 의해서 미국에 세워지는 수도원으로 첫 번째의 해외 콥트를 위한 수도원이다.

콥트교회의 부흥은 수도원 제도의 부흥과 밀접히 상호 의존 한다 오늘날에도 이집트에 25개 이상의 수도원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수사들이 젊은 대학교 졸업자들로 구성되고 있다. 수도원 제도는 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도사 생활의 체험이 오히려 현 시대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적용이 될 것이다.

미래에도 이집트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중요한 관광대국 중 한곳으로 남을 것이다. 이곳에 오는 관광객을 세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은 일반 관광객으로 옛 파라오 왕조 시대의 유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세계 각지의 기독교도들 특히 성서공부에 열성적인 동아시아인들로 성서에 기록된 지명을 찾아 이집트 성지순례 여행에 동참하려는 관광객들이 주였지만, 이제 앞으로는 주로 미주로 이주한 해외 콥트들의 고국방문이 계속될 것으로 본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참 고 문 헌

김경묵(1986), 이야기 세계사, 경기 파주시: 청아출판사

김용옥(2008), 『도올의 도마복음이야기1』, 서울: 통나무

_____(2010), 『도올의 도마복음한글역주2·3』, 서울: 통나무

김호동(2002), 『동방 기독교와 동서문명』, 서울: 까치글방

디미트리 구타스 지음, 정영목 옮김(2013), 『그리스 사상과 아랍 문명』, 파주: 글항아리

뤼시앵 레뇨, 허성석 옮김(2009),『사막교부, 이렇게 살았다』,경북: 분도출판사

미르치아 엘리아데, 박규태 옮김(2010), 『세계종교사상사 1.2.3』, 서울: 이학사

밀라드 한나, 전완경 옮김(2000), 이집트를 떠받치고 있는 일곱 기둥, 부산: PUFS(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방성규(2005), 『모래와 함께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서울: 도서출판 이레서원

박찬기·최영철·송경근·유왕종·최창모(2009),『헤즈볼라, 하마스, 무슬림형제단 및 마흐디민병대』,서울: 명진C&I

손주영·송경근(2009), 이집트 역사 다이제스트100, 서울: 가람시획

송경근(2013), "이슬람 사회 속의 이집트 기독교도의 상황과 미래-콥트를 중심으로-", 『중동문제연구』, 제12권 4호, 1-30

_____(2013.6), "이집트 국내 갈등의 분석과 해결에 대한 연구",『한국중동학회논총』제34권 제1호 : 55-70

유태용(2002), 『문화란 무엇인가』. 서울: 학연문화사

윤상구(1997), "이집트 소수집단 꼽뜨 연구-정치과정을 중심으로-",『한국이슬람학회논총』, Vol.7 No.1

이준교(2008),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서울: 쿰란출판사

이원삼(1997), "이집트 소수집단 꼽트연구-민족정체성을 중심으로-",『한국이슬람학회논총』, Vol.7 No.1

요시미 순야 외 엮음, 이광호 옮김(2007), 『아시아 신세기6 미디어, 언론과 표상의 지정학』, 파주: 한울

정규영(2000), 『이집트와 이집트문명의 이해』, 광주: 조선대학교 출판부

_____(2004), 『문명의 안식처, 이집트로 가는 길』, 서울: 르네상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정재서(2013), 『이야기 동양신화』, 파주: 김영사

Geert Hofstede, 차재호·나은영 역(2007), 『세계의 문화와 조직』, 서울: 학지사

피터 버그, 조한욱 옮김(2004), 『문화사란 무엇인가(What is cultural history?)』, 서울: 길

하르트무트 뵈메 외 2인, 손동현·이상엽 옮김(2004), 『문화학이란 무엇인가』,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한스 큉, 손성현 옮김(2012), 『한스 큉의 이슬람-역사 현재 미래』, 서울: 시와 진실

황의갑(2008), "이슬람 이전 시대의 이집트 콥트교의 유래와 발전과정 연구 ", 『중동연구』 제27권 2호, 61-79

21세기 중동이슬람문명권 연구사업단(2005), 『중동종교운동의 이해2』, 서울: 한울

Abudabbeh, N(1996), Arab families. In M. McGoldrick, J. Giordano & J. K. Pearce(Eds.), Ethnicity and family therapy(2nd ed., p333-346). New York: Guilford Press.

Annual Report of the United State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USCIRF, 2010), Egypt. Washington, DC: 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Retrieved From: www.uscirf.gov

Boulos, Sallie Ann(2011), "The Role of Acculturation, Ethnic Identity, and Religious Fatalism on Attitudes towards seeking Psychological Help among Coptic Americans", Texas A&M University

Cragg, Kenneth(1992), "The Arab Christian" - A History in the Middle East-, Mowbray

Hanna, Milad(1994), " The Seven Pillars of the Egyptian Identity", Mass Market Paperback

Kamil, Jill(2002), "Christianity in the Land of the Pharaohs" - the Coptic Orthodox Church-, Routledge

_____(2005), "Christianity in the land of the Pharaohs", The American University in Cairo Press, Cairo

Lee, Sung-Ok(2002), "Pharaoh's Alienated Children: A Study on the Self-Identification and Self-Expression of 'Coptic' Christians in Egypt", Department of Middle East & African Area Studies Graduate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Schoo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Makari, Peter E(2007), "Conflict & Cooperation", Christian-Muslim Relations in Contemporary Egypt, New York: Syracuse University Press

Meinardus, Otto(1999), “Two Thousand Years of Coptic Christianity”, Cairo: The American University in Cairo Press

_____(2006), “Christians in Egypt”, Cairo: The American University in Cairo Press

Nisan, Mordechai(2002), “Minorities in the Middle East”, London: Mcfarland & Company, Inc.

Purcell, Mark(1998), "A place for the Copts: imagined territory and spatial conflict in Egypt", Cultural Geographies: http://cgj.sagepub.com/content/5/4/432.citation. Downloaded from cgj.sagepub.com by guest on November 21, 2012

Read, J G.(2004), “Family, religion, and work among Arab American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4), 1042-1050. doi:10.1111/j.0022-2445.2004.00077.x

Rowe, Paul(January 2009), "Building Coptic Civil Society: Christian groups and the State in Mubarak's Egypt, Middle Eastern Studies", Vol.45, No.1, 111-126

Wakin, Edward(2000), “A Lonely Minority”, an Authors Guild Backinprint.com Edition, Lincoln: iUniverse.com.Inc.

Brittingham, A. & De la Cruz, P(2005), We the people of Arab ancestry in the United States, Census 2000 Special Reports. 1-21.

Samhan, H.(2006, April), Arab Americans, In: 2001 Grolier's Multimedia Encyclopedia; Retrieved January 21, 2008 from: http://www.aaiusa.org/definition.htm

Coptic Orthodox Churches in the Diaspora(1997), http://www.coptic.org(2013.2.12)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The Christian Coptic Orthodox Church of Egypt(2006),
http://www.coptic.net/EncyclopediaCoptica/(2012.11.17)

Collection @ chosun